

北濟州郡 長田里
現地學術調查報告
(2002. 7. 26 ~ 7. 29)

1. 調査経緯
2. 마을개황
3. 方言
4. 民謠
5. 說話
6. 信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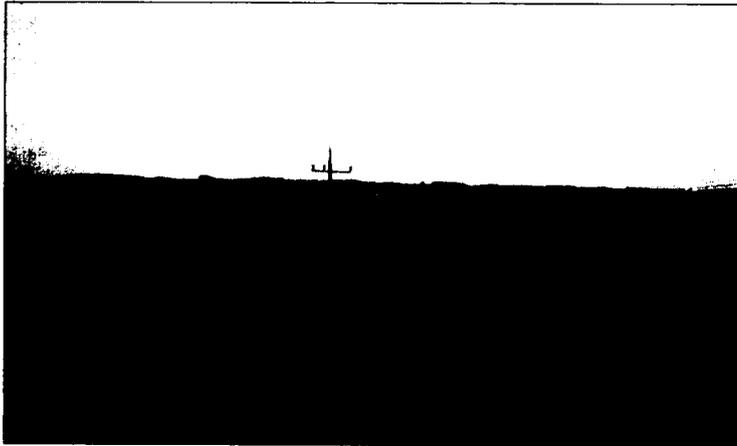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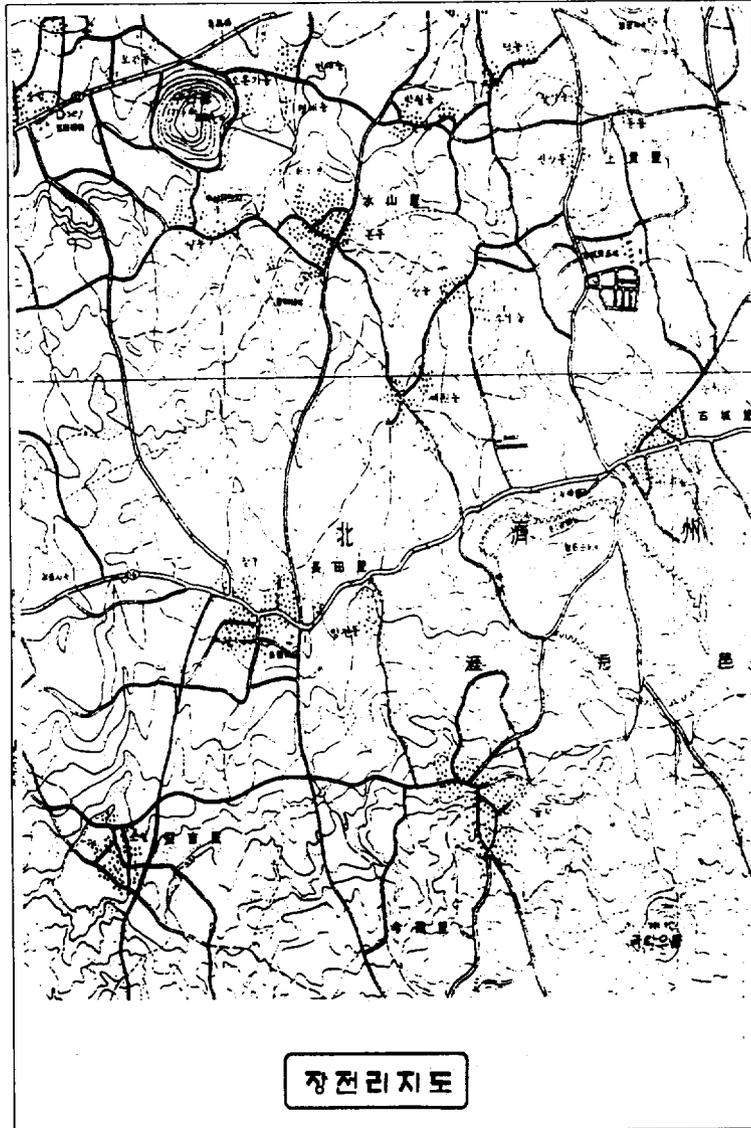


사진7 장전리 전경

● 장전리 부근 지도



調查經緯



우리 국어교육과에서는 1976년부터 매해 여름방학 학술조사를 실시하여, 올해로 벌써 24번째가 된다. 그 동안 현지 학술조사를 통해 학생들은 강의실에서 익힌 이론을 실제로 적용시켜 보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또한 방언이나 민요, 설화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지역의 사회와 문화를 이해할 수 있었으며, 국어국문학의 시야를 확대하는 계기를 가질 수 있었다.

이번 학술조사는 2002년 7월 25일부터 7월 29일까지의 3박 4일동안 복제주군 애월읍 장전리에서 이루어졌다. 답사 경위와 조사 경위는 아래와 같다.

장전리로 장소가 선정된 것은 5월경이었다. 그러나 본격적인 사전답사는 6월말에 이루어졌다.

1차 사전답사는 6월 25일에 다녀왔다. 사전 답사반은 회장을 비롯하여 집행부, 각 반 반장들로 이루어졌다. 우선 장전초등학교에 가서 현용두 교장 선생님을 만나 뵙고, 숙식 장소로 초등학교를 사용할 것을 허락 받았다. 그 후 장전리 강세표 이장님을 찾아뵈려 했지만 서울로 출장을 가셔서 만나 뵈 수 없었다. 전화를 통해 학술조사 협조를 부탁드렸더니 흔쾌히 도움을 주시겠다고 하셨다. 그리고 각 반 반장들은 노인 회장님을 통해 제보자들을 파악할 수 있었다.

2차 사전답사는 7월 3일에 집행부, 각 반 반장 및 반원들이 함께 다녀왔다. 마을회관을 찾아가 이장님을 뵙고 다시금 학술조사 협조를 부탁드렸다. 그리고 마을회관에서 마을 개황 자료를 얻었고, 노인회관에 가서 직접 마을 노인 분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면서 각 반에 필요한 제보자를 확보하였다. 그리고 장전리 마을을 둘러보며 마을 지리를 익혔다.

3차 사전답사는 7월 10일에 집행부, 각 반 반장들과 반원들이 함께 다녀왔다. 우선 학교를 찾아가 사용하게 될 교실과 화장실을 둘러보고,

교감 선생님께서 학교 시설물 사용수칙을 전해 들었다. 다음으로 각 반 반장들과 반원들은 노인회관을 찾아가 각 반에 필요한 자료들을 수집하였다. 구체적인 제보자들의 집을 찾아뵙고, 인사를 드릴 예정이었지만 시간이 허락지 않아 그냥 돌아와야 했다. 공식적인 사전답사로는 이번이 마지막 답사였다.

이번 장전리 답사는 집행부, 반장 이외에 반원들도 많이 참여 할 수 있었고 노인회관을 중심으로 마을분들이 자주 모이시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은 제보자를 얻을 수 있었다.

본 조사에는 재직교수, 재학생, 그리고 동문들이 많은 도움을 주셨다. 재직교수로는 최규일, 김태곤, 윤석산, 문성숙, 손오규, 현승환 교수님, 동문들로는 송문석, 강건후, 부상력, 임용진, 변성구, 김윤경, 백운주, 변숙자, 김소현, 고상수, 고창근, 정루시아, 이태은, 현승춘 동문 등이, 그리고 백록어문학회와 현대문학 연구회 및 교육대학원 국어교육전공 원우회에서 많은 도움을 주셨다. 특히 현승환·강정식 선생님은 사전 답사부터 많은 도움을 주셨고, 특히 본 조사에는 숙식을 같이 하여 3박 4일 동안 모든 반을 지도하여 주셨다.

그리고 참가 재학생은 아래와 같다. [()안은 학년]

- 마을개황 : 이수연, 강보윤, 한은정(3), 김양희, 김주연, 양지선, 현정대(2)
차은미, 한혜경, 김상현, 양원(1)
- 방 언 : 지혜진, 고경란(3), 고영란, 강성진, 고미지(2)
강동호, 오정은, 강희경, 강소은(1)
- 민 요 : 김진희, 김미경, 문희진(3), 강현주, 박하연, 강은정, 변영철(2)
김성희, 문현식, 우기성(1)
- 설 화 : 강연주, 박소미, 오정아, 김영만, 임미라(3), 김은향, 박미진
문지환, 문석희(2), 강민정, 홍원정, 김원구(1)
- 신 앙 : 부고은, 양승희(3), 박신춘, 고은실, 서지은, 위햇님(2)
강영찬, 고안나, 이은정, 고경림(1)

조사에 도움을 주신 장전리 마을 주민들과 숙박 장소를 허락해 주신 장전리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바쁘신 중에도 자리를 함께 하며 지도해 주신 학과 교수님과 여러 동문 선배들에게도 감사를 드린다. 또한 열악한 현지에서 땀흘리며 조사를 맡아 준 각 반의 반장과 반원들에게 고마움의 뜻을 전한다.

마을개황

〈 목 차 〉

- | | |
|---------|-----------|
| 1. 자연환경 | 2. 역사적 배경 |
| 3. 인문환경 | 4. 산업환경 |
| 5. 세시풍속 | |

1. 자연환경

장전리는 제주시에서 서쪽 중산간 도로를 따라 14km 지점에 위치한 전형적인 중산간 농촌마을이다. 동쪽은 고성리, 서쪽은 상가리, 북쪽은 수산리, 남쪽은 소길리에 이웃하며, 애월읍 북쪽 중앙부에 자리잡고 있다. 해발 100~150m에 위치해 있으며, 함몰지역인 천아오름에서부터 비현정질 현무암 등 용암류가 남북으로 15km 분포하여 치밀한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대규모 용암류 분출로 암석균열이 심하고, 용암류의 흐름에 따라 한라산 반정장석 및 반정휘석을 갖는 다공질 암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깊은 계곡이 자리잡고 있다. 장전리는 본동과 양전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연평균 강수량은 982mm이다.

장전리는 감귤생산 주산단지로서 1992년 감귤 성장작목 시범단지 조성지역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총면적 355.1ha 중 경지면적은 7.4%에 불과하지만 과수원 면적만 39.2%에 달한다. 농가소득의 90% 이상이 감귤소득이며, 시설감귤(가운, 월동, 비가림, 한라봉)이 많이 재배되고 있다. 이 밖에 참깨나 보리와 같은 곡물 농업도 행해지고 있다.

장전리에 과수원이 많이 들어서면서 1992년에 농림부 특별 사업계획

으로 지하수관정 3개공(5호공, 6호공, 7호공)이 설치되었다. 이를 관리하기 위해서 농지계량제(정식 명칭은 농지수리제임)가 조직되었는데, 3개의 관정을 5, 6, 7호공 계로 나누어 검침, 수도 고지 발급, 고장 수리 등의 관리를 하고 있으며, 5호공의 현 회원 수는 90명, 6호공은 70명, 7호공은 90명에 달한다고 한다. 이 지하수공은 식수로 쓰이지 않고 농업용수로만 쓰이고 있다. 그 외에 개인 지하수관정 1공이 있다.

장전리는 제주시와 시내버스 노선이 연결되어 있지 않고, 시외버스는 평균적으로 한 시간에 한 대이기 때문에 제주시로 왕래할 때 불편이 많다고 한다. 2003년에는 무수천~장전리~상가리로 이어지는 우회도로가 착공될 예정이어서 교통불편문제가 해소될 전망이다.

장전리에 위치한 오름과 샘물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① 켓물오름

애월읍 유수암리 노꼬메족은오름 서쪽기슭과 노꼬메큰오름 북서기슭 사이에 위치한 오름으로, 북동쪽으로 벌어진 말굽형 화산체이다. 서부산 업도로 남읍관광목장에서 새로 개설된 제1산록도로 중간지점의 도로변 우측으로 쉽게 오를 수 있으며, 정상부에 산화경방초소가 설치되어 있어 쉽게 구별된다. 해송과 삼나무가 부분적으로 조림되어 있고, 오름 북동쪽 사면에는 ‘켓물’ 이라 부르는 샘이 있어 켓물오름이라 부르고 있다.

② 눈오름

애월읍 장전초등학교 서쪽 약 1.5Km지점, 도로연변 굴밭 너머에 나지막히 누워있는 오름으로 동쪽으로 벌어진 말굽형 화산체이다. 오름 동쪽의 화구 안사면은 분지형태를 띠면서 감귤원과 농경지가 조성되어 있고, 해송이 주종을 이루면서 가시덤불이 우거져 숲을 이루고 있다.

③ 마고(馬古)리 물

마고리 물은 사장발 남쪽 200m 지점에 위치한 샘물이다. 사철 물이 흐르는 샘물로서 바로 북쪽 들판까지만 해도 흐르는 물을 이용하여 논밭

을 가꾸고 주민의 생활용수로 활용했다. 이 물(마고리 물)이 바로 대몽항쟁 당시 책임자인 역장의 지휘하에 사장밭에서 훈련하던 군마에게 물을 먹이던 곳이라 한다. 이에 연유하여 마고리 물(옛날 군마들이 먹던 물)이란 이름으로 오늘까지 전해오고 있다.

2. 역사적 배경

2.1 설촌 유래

장전리의 설촌 유래를 밝히려면 700년 전 고려 삼별초시대 대몽항쟁 당시로 거슬러 올라가 살펴보아야 한다.

삼별초의 대몽항쟁은 1270년(고려 원종 11년)~1273년(원종 13년)에 강화도를 거점으로 몽고세력에 반대하여 일으킨 항쟁으로 삼별초의 지휘관인 배중손(裵仲孫)은 왕족 승화후(承化侯) 온(溫)을 왕으로 추대하고 체제를 정비했다. 강화도에서 사태가 불리해지자 해상권을 잡기 위해 근거지를 진도로 옮긴 후 제주를 비롯하여 30여개 도서를 지배하며 해상왕국을 이루었다. 그후 조정의 김방경(金方慶)이 이끄는 관군과 몽고군이 합세한 연합군의 반격에서 승화후(承化侯) 온(溫)이 살해되고 배중손도 전사했다는 소식이 묘연해지자 세력은 날로 약해졌다.

당시 별장이었던 김통정(金通精) 장군이 마지막으로 남은 군사를 이끌고 제주에 들어와(원종 12년, 1271) 이미 제주를 점거하고 있던 이문경(李文京) 장군, 남해현(南海縣)을 점거한 유존혁(柳存革) 장군과 합류했다. 김통정장군은 여몽연합군의 반격에 대비 귀일촌(貴日村) 항파두리(지금의 애월읍 고성리)에 거점을 정한 후 안팎 이중으로 된 내성(內城, 石城으로 750m)과 외성(外城, 土城으로 15리)을 쌓았다.

동쪽으로 고성천(古城川)과 서쪽으로 갈구미천(渴味川, 속칭 '갈구미내')에 이르기까지 총 24만평에 달하는 천혜요새지를 만들어 놓은 것이다. 이

즈음에 김통정 장군은 항과두리 주변 요소에 지형과 지세를 이용하여 삼별초군과 제주인 장정들이 훈련할 장소를 물색한 것이다. 활쏘기, 기마훈련, 무예답기 등 무술훈련용으로 가장 적당한 지형을 선정하고 활용했던 장소들이 항과두리 주변에 있음이 하나씩 밝혀지고 있다.

이 장소를 사장밭(射場밭)이라 하여 장전리에서도 구전으로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다. 그중 가장 규모가 큰 훈련장소가 현재 장전마을 일대라고 추정되는 것이다. 이 당시부터 장전마을에 항몽군사들과 제주의 장정 및 주변 사람들 등 촌락형태를 이루어 집단적으로 사람이 살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1) 문헌 기록

① 탐라순력도(耽羅巡歷圖)

이 마을이 등장하는 문헌 기록으로서 이른 시기의 것은 《탐라순력도(耽羅巡歷圖)》(1702)이다. 탐라순력도(耽羅巡歷圖)는 조선 숙종 28년 임오년(1702년) 제작된 고지도로서 지도의 형태를 갖추고 있다. 이 지도에서 보면 토성을 중심으로 인근에 오름 이름과 마을 이름들이 나타나 있다. 토성이 가운데 위치하고 오른쪽에 '장전(長田)'이라는 지명이 이웃 마을들의 이름과 같이 뚜렷이 나타나 있다.

② 제주삼현도(濟州三縣圖)

제주삼현도(濟州三縣圖) 1700년대(18세기경)에 제작된 저자 미상의 고지도이다. 이 지도에서 보면 삼별초 토지의 가운데 위치하고 오른쪽 편에 '장전촌'이라는 마을 이름과 이웃 마을들의 명칭까지도 표시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1600년(17세기) 장전 마을에 사람이 살고 있었다는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그 다음의 기록은 조선 고종 47년(1771)에 제작된 장전 호적단지이다. 이로 보아 장전 마을의 설촌은 1700년 이전에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다만 항과두리 함락이후 1600년대까지의 기록이나 고증자료가 발견되지 않았는데, 이는 앞으로 발굴 과제라고 하겠다.

2) 연혁

- 1271년 (고려 원종 12) 삼별초시 설촌
- 1723년 (고려 원종 14) 향파두성(缸坡頭城) 함락으로 분산 거주
- 1600년 (조선 선조 28) 마을 형성
- 1771년 (조선 고종 47) 장전 호적단과 제작
- 1946년 장전공립국민학교 설립
- 1948년 정부 소개령으로 향민 이주 및 가옥 전소
- 1949년 장전리 마을 재건
- 1969년 6월 1일 장전 어승생 수원지 수도 시설
- 1974년 2월 1일 장전리 전기 가설
- 1983년 2월 21일 장전리 전화 가설

장전리는 4·3사건 당시인 1948년 정부 소개령으로 마을사람이 모두 해안가 마을로 이주하였으며 가옥은 전소된 바 있다. 그 다음 해 마을을 재건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2.2 지명유래

① 사장밭(射場밭)

사장(射場)밭이란 활터를 일컫는 말이다. 현재 장전에 위치한 사장밭은 동·서 길이 300m, 남·북 길이 200m나 되는 넓은 들판이다. 김통정 장군의 지휘 아래 대몽항쟁 당시 군사적으로 훈련하던 장소(밭)라는데 연유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이 밭이 '사장(射長)밭'으로서 웃어른들에 의하여 지금까지 구전(口傳)해 오는 말과 일치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로 보아서도 이 당시 최초로 장전 마을 사람들이 살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장전리에 촌락이 형성된 후로 이 사장밭은 개인소유화 되었다. 당시 장전리 청년회에서는 이 밭이 역사적인 밭임을 감안하여 공금으로 일괄 구입하고, 공공 장소로 활용해 오다가 장전리에 교육기관 설립의 필요성 느껴 마을에 기증, 1946년경 국가에 기부 체납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장전리에서는 1946년 8월 21일 장전공립학교로 설립인가를 받고 배움의 터전으로 활용 하던 중 1948년 11월 4·3사건으로 인하여 국가의 소개령에 따라 장전 마을이 소개되자 장전 마을과 함께 학교도 전부 전소되었다. 그후 장전리가 재건됨에 따라 1950년 5월 25일 장전 국민학교로 재인가를 받아 지금까지 2세 초등교육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② 장전리

장전(長田)이란 이름은 고려와 조선시대 역장(驛長)에게 지급하던 토지의 명칭이다. 이흥식(『국어대사전』 1976)에 의하면 “장전은 고려와 조선때 각 역장의 공비(公費)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급된 토지이며, 조선 때의 장전은 각자수세지(各者收稅地)로써 二結을 주었다.” 라고 기록하고 있다. 또한 장전은 馬位田의 한가지라고 기록된 문헌도 있다. 마위전(馬位田)이란 이흥식에 의하면 “조선 때의 역전(驛田)으로써 역마(驛馬)의 사육에 충당하기 위하여 서정된 토지로서 역정(驛丁)이 이를 경작케 했고,太祖 때 설치하여 호조(戶曹)에서 이를 관리했다”라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기록들을 종합해 볼 때 삼별초군이 대몽항쟁(對蒙抗爭) 최후 거점지로 향파두리를 정한 수 토성 주변에 대규모 본부로서 군사 훈련장소가 될만한 지형을 찾아 정한 곳이 바로 장전(長田)일대라는 것이다.

장전리의 옛 이름은 ‘진밭’ 또는 ‘장밭’이다. 한자로는 ‘장전(長田)’, ‘장전촌(長田村)’, ‘장전리(長田理)’ 등으로 표기하였다. 장전(長田)의 ‘장(長)’자를 대부분 사람들은 ‘길다’는 뜻으로 해석하고, ‘전(田)’자를 ‘경작하는 밭’으로만 해석하여 ‘진밭’, ‘긴밭’ 등으로 풀이한다. 그러나 장전(長田)의 ‘장(長)’자는 ‘길다’는 뜻 외에 우두머리 장(長)자로서 ‘가정, 기관에서 제일 높은 분’이란 뜻을 갖고 있다. ‘전(田)’자는 ‘경작지인 밭’이라는 뜻 외에 시골이란 뜻으로도 풀이하고 있다. 그러므로 ‘장전(長田)’이란 이름의 바른 해석은 김통정 장군이 대몽항쟁 당시 장전일대를 군사훈련 장소의 책임자인 역장(驛長)에게 지급된 토지 명칭에 연유하여 유래된 것으로서 장군으로부터 하사(下賜)받은 자랑스러운 이름이라는데 더 큰 의미가 있다. 따라서

“고매한 인경과 큰 덕을 갖춘 훌륭한 높은 어른들이 출현하는 시골”이라는 뜻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③ 동정리(同井里)

정조초(1780~1789)에 간행된 『제주읍지』에서 살펴보면 당시 面·里 행정의 편제에 따라 제주 신우면 장전리(濟州 新右面 長田里)에 36호 213명(남86명, 여127명)의 인구가, 우로리(牛路里, 현소길리)에 33호 264명(남113명, 여151명)의 인구가 살았다는 기록이 있다. 그러나 두 마을은 산촌(散村)형태의 자연마을로서 이웃에서 조석으로 만나 이웃사촌처럼 생활권을 같이하고 같은 우물을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있었다.

이 때 마을 사람들은 같은 우물을 먹는 사람들로서 지금까지 분리된 두 마을을 하나로 합하여 단일 마을의 명칭으로 사용하자는데 합의를 보고, 그 명칭을 동정리라 칭한데서 유래하고 있다

이 동정리는 1882년(고종19, 임오(壬午))~1891년(고종 28, 신묘(辛卯))까지 10년간 불려왔다. 그후 인구의 증가, 거주지 이동에 따른 지역적인 거리, 시대적인 변화 등 생활여건이 달라짐에 따라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분리되었다. 이에 처음의 마을 이름인 장전리(長田里)를 행정상의 명칭으로 사용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2.3 유물 및 유적지

① 열녀박씨지려(烈女朴氏之閭)

이 비석은 장전리 속칭 '능선이'에 있다. 전면 중앙에 「學生孫處權妻 烈女朴氏之閭(학생손처권처 열녀박씨지려)」, 그 오른쪽에는 「上純祖十七年十月日命旌(상순조십칠년십월 일명정)」, 왼쪽에는 「嘉慶二十一年丙子(가경이십일년 병자)」라 하여 두 줄로 음각되어 있고, 뒷면에는 「男德福 孫恩悌 曾孫珍奕, 좌측면에는 「光緒十四年戊子二月 日改建(광서십사년술자이월 일개건)」이라 되어 있으며, 우측면은 해독이 불가능하다. 순조 17(1817)년과 가경 21년(1816)은 1년의 차이가 있다. 개건한 광서 14년은 고종 25년(1888)이다.

규모는 너비 43cm, 높이 85cm, 두께 9cm이며 비각 안에 세워져 있다.

이 비석에서 박씨의 행적을 알 수 있는 내용은 아무데도 없다. 다만 「효열록」 열녀조에 의하면, 「朴召史 州吏孫處權之妻 夫得暴疾 竟至奄忽 卽於屋 自의 同穴(박소사 주리손처권지처 부득폭질 경질엄홀 즉어옥침자의 동혈)」이라 하여, “박소사는 주리 손처권의 아내이다. 남편이 폭질에 걸려 마침내 죽음에 이르자, 즉시 집 처마에 목을 매어 남편과 같은 무덤에 묻었다.” 하였다.

② 포제단

마을 남쪽 소길리 경 소 나무 밭에 제단이 있다. 이 일대를 ‘포제청’이라 한다. 큰 소나무를 의지하여 자연 석을 쌓아 보호벽을 마련하였다. 그 안에 넓적한 자연 석을 두어 제단으로 삼았다. 제단 이외에 다른 시설은 전혀 없다.



사진8 포제단

③ 장전본향당

장전초등학교에서 동쪽으로 30여m 가량 떨어진 곳에 높은 동산이 하나 있다. 이 동산을 속칭 ‘능선’이라고 한다. 이 동산의 동남쪽에 당이 있다. 당 주위에는 불래낭, 멀구슬 나무, 송악 등 상록수와 잣목이 우거져 있다. 이중 큰 팽나무가



사진9 장전리 본향당

자리한 곳 주위를 돌담으로 에워 둘러 당을 마련했다. 이 나무가 바로 신목이다. 신목 앞에 윗면이 비교적 매끈한 자연석을 두어 제단으로 삼고 있다. 제단의 좌우로 뺨은 나뭇가지에 지전, 물색과 소지가 걸려 있다. '산신대왕산신백관 노려 노씨할망'을 모시는 당이다. 이 당은 금덕(유수암리)에서 가지가른 당이라 하며, 장전리 사람들의 생산·물고·호적을 관장하는 본향당이다. 제일은 해일 또는 매 7일이다. 본풀이가 『무가』에 실려 있다.

④ 장전리 절터

애월읍 정전리에는 속칭 '강구지동산'이라는 곳이 있다. 사찰은 이 동산의 북쪽편에 속칭 '절왓'이라고 하는 곳에 있었다. 그러나 사찰이 있었던 정확한 위치는 확인되지 않았다.

3. 인문환경

장전리는 본동과 양전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2002년 7월 26일 현재 인구를 살펴보면 총 240세대, 780명이 살고 있다. 이 중 남자는 414명, 여자는 366명으로 6%정도의 남초 현상을 보이고 있다.

● 장전리 인구현황

(단위: 세대, 명)

세대수	인구수			가구 당 인구
	계	남	여	
240	780	414	366	3.25

<2002. 7. 26일 현재, 장전리 리사무소 제공>

장전리는 인구수와 위치에 따라 1~7개 반으로 구분되어 있다. 1월 1일 청년회 주최로 장전초등학교에서 열리는 체육대회도 반대항으로 뛰게 되며, 반 자체적으로 마을 환경정화 활동, 가지치기, 야유회, 수도고지서

배부 등이 이루어진다고 한다.

장전리 마을단체로는 개발위원회, 청년회, 부녀회, 노인회, 제향회, 장전새마을문고, 녹구메 등이 있다. 각 단체들은 활발한 활동을 벌임으로써 마을의 발전과 주민화합에 큰 이바지를 하고 있다. 이들 단체의 특색과 활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개발위원회는 새마을운동사업의 일환으로 1970년대 무렵에 생긴 단체이다. 개발위원장 1명, 개발위원 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임기는 2년이며 중임이 가능하다. 회칙은 없으며 한 달에 한번 모임을 갖는다. 부녀회와 청년회, 노인회가 마을이장과 별개로 존재하는 단체임에 비해 개발위원회는 마을이장 산하에 있으면서 그의 역할을 보좌하는 위치에 있다. 특별히 활동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토지, 교통, 도로포장, 감귤 사업의 문제 등 마을 전체의 일을 두루 살핀다. 모임 시에는 이장과 각반 반장, 개발위원장, 개발위원회 5명이 모여 일을 논의한다.

장전리 청년회는 1974년에 발족하여 현재까지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현재 활동하는 회원 수는 100여명이며, 정기총회는 1년에 한번 12월 중순에 갖고, 임시총회는 임원의 2/3가 승낙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연 2회 정도 갖는다. 청년회의 활동 내용을 살펴보면, 연중 행사로 마을 주민들의 단합체육대회를 주최하고 있다. 2년에 한 번 장전 초등학교의 개교기념일에 맞춰 동문체육대회를 열고, 읍 단위 체육대회 및 광복기념대회에 나가기도 한다. 1998년부터 국경일 날 마을 도로변에 국기 게양을 하고 있는데, 소실되는 태극기는 읍에서 기증을 해준다고 한다. 장전리 청년회에서는 연 3회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한다. 마을 전체가 아닌, 초등학교 동쪽에 위치한 연못(전나물)과 소공원 주위의 잡초 정리, 가지치기 및 조경 다듬기를 하고 있고, 마을 내에 위치한 양계장과 제조업체 주위 환경도 감시하고 있다. 2000년 10월부터는 청년회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화단(상여)을 마을 주민들에게 제공하고 하관을 도와주고 있다. 화단은 처음에는 무료로 대여되었지만, 현재는 화단 보수 비 명목으로 약 10만원 정도를 받고 대여해 준다고 한다. 하절기에는 2주에 한 번씩 마을 방역활동을 하고, 하귀 파출소의 방법활동으로 매월 8자가 들어

간 날 저녁에는 마을청년 6명이 정전리 내 순찰을 돈다고 한다. 어버이날에는 부녀회를 도와 경로잔치를 준비하고, 포제 시에는 포제단을 정비한다. 이밖에도 청년회에서는 마을 밖 활동으로 불우이웃돕기 및 고아원·양로원 방문을 하고 있었는데, 이를 연중행사로 잡기 위해 사업을 추진중이라고 한다.

장전리 부녀모임은 1962년 8월 8일부터 재건부녀회 자치법에 의해 처음 시작되었다. 1970년 1월 1일에 재건부인회의 명칭이 장전리 부인회로, 1977년 9월 11일부터는 다시 장전리 새마을 부녀회로 개칭되었다. 부녀회 임원 자격은 장전리에 거주하는 65세 미만의 부녀자들이며, 현 부녀회의 회원은 130여명 정도이다. 회원은 회장, 부회장, 총무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임기는 2년이며, 4월과 12월에 정기모임을 갖는다. 새마을부녀회의 활동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부녀회에서는 월 1~3회 마을 노인들의 점심을 대접한다. 1년에 2번 마을을 돌아다니며 농약 병, 비료 푸대 등의 폐품을 수집하는데, 이를 통해 얻어진 자금은 마을의 독고 노인 방문과 불우 이웃 돕기 등에 쓰여진다. 어버이날에는 청년회와 연합하여 경로잔치를 열고, 포제 시에는 음식준비와 잔심부름을 한다. 새마을 부녀회에서는 마을 외적 활동도 활발히 하고 있었다. 애월읍 주체인 봉사활동 '사랑의 삼고리'에 참가하여 애월읍에 거주하는 독거노인을 돕거나 어려운 가정의 헌집수리 및 도배를 하고 있었고, 1년에 한 두 번 하귀 농협에서 소금, 쌀, 라면, 떡국 등의 일일판매를 통해 봉사활동비를 마련하고도 있었다. 애월읍에서는 부녀회장들만이 모여 여러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들불축제를 돕거나 꽃길 조성 등이 그 예이다.

노인회는 만 65세 이상의 장전리 거주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며, 회장 1명, 부회장 2명(남, 여 각 1명), 총무, 이사 4명, 감사 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정해진 회칙은 없으며 읍에서 내려오는 노인강령을 기본으로 이끌어져 간다. 1년에 한 번 1월이나 2월에 정기총회를 열고 임시총회는 필요시에 갖는다. 노인회의 활동을 살펴보면, 마을 회관 옆에 설치된 게이트볼장에서 조석으로 경기를 갖고, 애월읍 주체로 부락마다 돌아다니며 게이트볼 경기를 하기도 한다. 한 달에 한번 마을 주변

정화활동을 하며, 1년에 한번 야유회를 갖는다. 10여 년 전부터 여름방학 기간동안 마을 초·중·고 학생들을 모아서 충효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희망자에 한해서 50여명 정도를 모집하고 20일 동안 하루 한 시간씩 예의, 예법, 윤리, 도덕, 붓글씨, 한자성어 등을 가르친다고 한다. 군에서 충효교실을 위해 50만원의 보조금이 나오는데, 이는 학생들의 노트 및 간식거리 제공에 쓰인다. 마을의 어르신들 중 과거에 교직이나 공무원에 몸담고 계시던 분들이 충효교실을 이끌어가고 있었는데, 필요시에는 외부에 거주하고 있는 장전리 출신 사람들을 초청해서 학생들을 지도한다고 한다.

장전리에서는 연 1회 음력 1월에 마을의 안녕과 영원을 기리는 마을 포제 봉행을 담당하는 제향회가 조직되어 있다. 과거에는 향장 제도가 있어서 마을의 어르신 중 한 분이 향장이 되어 포제를 준비했었으나, 2001년 12월 총회에서 차기 향장을 선출하지 않기로 결정한 이후부터는 향장의 역할이 이장과 노인회장으로 분산되어 있다. 포제에 들어가는 돈은 각 반별로 반장이 걷고(장전리는 7개반으로 구성) 포제 준비는 부녀회와 청년회의 도움으로 이장이 총괄 하에 이루어진다. 제향회 소집은 매년 초 음력 정·해일에 하며 포제 2~3일 전에 포제 준비가 시작된다.

장전새마을문고는 1991년에 발족하였다. 회칙은 없으며 회장, 부회장, 지도위원 3명, 총무, 감사, 운영위원 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새마을문고의 활동을 살펴보면, 2년 1회 추석날 노래자랑과 풍물패가 어우러진 한마당 축제를 열고, 연 1회 정전초등학교의 백일장을 주최한다. 새마을문고에서는 마을주민 20여명으로 구성된 풍물패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풍물패는 타 마을 요청 시나 마을체육대회 및 행사 때 활동하게 된다. 도서보유량은 4~5천여 권에 달하며 6시부터 11시까지 문고를 운영하고 있다. 학생부와 일반부로 나누어 도 주체의 독사경진대회에 참가하며 3월에는 4~50명을 모집해서 허브농장, 남군 농업기술센터를 비롯한 선진지 견학의 장을 마련한다. 2002년부터는 여름 기간 동안 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문·서예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장전리에는 장전 초등학교 동문들을 중심으로 조직된 조기축구회 녹

구매가 있다. 유수암과 소길 사이에 위치한 오름의 이름을 딴 녹구메가 활동한지는 10년 정도가 되었는데, 일주일에 한번씩 모여 축구를 한다고 한다. 1996년부터는 부천 여월 조기회와 자매결연을 하여 연 1회 교류방문을 하고 있다.

이밖에 향우회의 일종인 재시 리민회가 있다. 이 지역에 살았던 사람이 타지역에 나가서 사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나가서 사는 분들끼리 친목도모를 위하여 조직한 단체가 재시 리민회이다. 1991년에 정식으로 조직되었고, 마을 경로잔치 시 필요한 물품을 기증하기도 한다. 현 회원수는 116명으로 비공식 단체에 속한다.

이러한 단체들 중 대표로 청년회의 규약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장전리 청년회 회칙(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청년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 정신에 입각하여 마을의 발전 및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청년회는 장전리 청년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제주도 북제주군 애월읍 장전리 리민회관에 둔다.

제4조(공고의 방법) 본회에서 행하는 공고는 이 회칙이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본회의 게시판(마을 게시판 등)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하고 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단, 임원회에서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5조(통지 또는 최고의 방법)

① 회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의 회원 명부에 기재된 주소로 한다. 다만 회원이 따로 연락처를 신고한 경우에는 그 연락처로 한다.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 또는 최고의 통상적인 방법에 의하여 도달할 수 있는 기간 안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기타) 임원회에서 의결하면 방송 등으로 대신한다.

제2장 회원

제6조(회원) 본회의 회원은 다음의 자(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회원으로 가입하는 자로 한다.

1. 제주도 북제주군 애월읍 장전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본회 가입일 현재 20세 이상부터 45세까지의 남자인 자.
2. 제주도 북제주군 애월읍 장전리 출신으로써 제주도내 거주자로서 본회 가입일 현재 20세 이상부터 45세까지의 남자.

제7조(회원가입)

- ① 본회의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주소 또는居所 성명 및 주민등록 번호를 기재한 회원가입 신청서를 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본회는 회원가입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 6조의 규정에 의한 회원자격에 적합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지체없이 회원명부에 회원으로 등재하여야 한다.

제8조(의결권 선거권) 회원은 평등한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진다.

제9조(회원의 신고의무) 회원이 제 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가입신청서의 기재사항이 변경이 있을 때는 지체없이 이를 본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0조(탈퇴)

- 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탈퇴로 된다.
 1. 사망한 때
 2. 파산선고를 받은 때
 3. 금치산 선고를 받은 때
 4. 회원 자격이 상실된 때
- ② 제 1항 제 4호의 자격상실에 관한 사항은 다음의 각 호의 1인 경우로 그 결정은 임원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제6조의 규정에 속하지 아니한 때
- ③ 회원은 1월 전에 서면으로 탈퇴의 뜻을 통고하고 탈퇴할 수 있다.
- ④ 탈퇴한 회원은 본회에 대한 모든 권리를 박탈한다.

제11조(회원의 의무) 본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 의무를 진다.

1. 본회의 회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2. 본회의 회의 및 사업에 성실히 참석하여야 한다.
3. 본회의 의결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장 기관

제1절 총회

제12조(총회) ① 본회에 회원으로 구성하는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여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13조(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매 사업 년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개최하되
일시 및 장소는 임원회에서 정한다.

제14조(정기총회)

① 임시총회는 다음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소집을 요구한 때
3. 회원 50명 이상이 그들의 대표자를 선임한 후 회의의 목적과 이유를 기재하고 기명 날인한 서면으로 그 소집을 요구한 때
4. 감사가 본회의 재산 상황 또는 사업의 집행에 관하여 위법 사실을 발견한 경우 이를 신속히 총회에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감사 2인이 합의하여 판단)하여 그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제 1항 제 2호 내지 제 3호 제 4호의 규정에 의한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장은 2주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15조(감사의 총회소집) 다음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가 7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한다. 이 경우 감사가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1. 회장이 직무를 행할 자가 없을 때.
2. 제 14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소집을 회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행하지 아니한 때.

제16조(회원대표의 총회소집) 감사가 제 15조의 기간 내에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 14조 제 2항 제 3호의 규정에 의한 회원의 대표가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총회의 소집방법)

- ① 총회는 개최 7일전까지 그 회의의 일시, 장소, 목적 사항 등을 본회의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 ② 성원이 되지 아니하여 총회를 개의하지 못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다시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18조(총회의 의결사항)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회칙의 변경

2. 본회의 해산
3. 임원의 선임과 해임
4. 결산 보고서의 승인
5. 사업계획·예산의 결정
6. 임원회가 정하는 중요한 사항
7. 기타 중요한 사항

제19조(총회의 개의와 의결)

- ① 총회는 재적 회원 30명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18조 및 제 2호의 사항은 회원 50명 이상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총회에서는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사항으로서 재적회원 30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③ 본회와 회원간의 관련사항을 의결하는 경우에는 그 회원은 의결권이 없다.

제2절 임원회

제20조(임원회)

- ① 본회에 임원회를 둔다.
- ② 임원회는 회장, 부회장, 총무를 포함한 임원 및 애월읍 및 북제주군 연합청년회임원(지도위원, 고문, 감사를 제외한다)으로 구성되며 회장이 소집한다.

제21조(임원회 소집)

- ① 임원회는 매 분기마다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3.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 ② 제 1항 제 2호 및 제 3호의 규정에 의한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에 회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7일 이내에 소집하지 아니한 때에는 임원회의 소집을 요구한 임원 또는 감사가 임원회를 소집한다.
- ③ 제 2항의 경우에는 임원 중에서 선임된 임원 및 감사가 의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④ 임원회의 소집 방법은 그 개최일 3일전까지 그 회의의 일시, 장소, 목적사항을 기재한 서면 또는 기타 필요한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임원회의 의결 사항)

- ①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은 임원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규정의 재정, 변경 또는 폐지
 2. 사업집행에 대한 기본 방침의 결정
 3. 사업계획 범위 내에서 각종행사의 개최 및 참가의 결정
 4.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각종행사의 지출금액 결정
 5. 총회로부터 위임된 사항과 총회에 부의 할 사항
 6. 기타 회장이 부의 하는 사항
- ② 임원회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임원회의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임원 전원이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 ④ 본회의 임원과외의 관련사항을 의결하는 경우에는 그 임원은 의결권이 없다.

제3절 임원과 감사

제23조 (임원의 정수)

- ① 본회의 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1인
 3. 총무 1인
 4. 기획부장 1인
 5. 사업부장 1인, 사업부차장 1인
 6. 체육부장 1인, 체육부차장 1인
 7. 홍보부장 1인, 홍보부차장 1인
 8. 감사 2인
 9. 직전회장 1인 및 애월읍 및 북제주군 연합청년회 임원.
 10. 지도위원 3인 이내
 11. 고문 3인 이내
- ② 회장, 부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 ③ 지도위원은 본회 출신 전직회장 및 청년회 발전에 관심이 많은 분을

임원회 의결을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

- ④ 고문은 현직 마을 이장을 당직 고문으로 하고 그 외는 회장이 임원회 의결을 거쳐 위촉한다.
- ⑤ 그 외 임원은 회장과 부회장이 총회에서 지명하며 총회의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24조 (임원의 직무)

-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통괄하여 총회와 임원회의 의장이 된다.
-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유고 시 회장잔여 임기 동안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총무는 회무 관리 및 재정업무 관리 및 사무를 총괄한다.
- ④ 기획부장은 본회의 모든 운영에 대해 기획한다.
- ⑤ 사업부장은 본회의 모든 사업에 대해 총괄한다.
- ⑥ 체육부장은 본회의 체육활동에 대해 총괄한다.
- ⑦ 홍보부장은 본회의 홍보 및 회원에 대한 연락을 총괄한다.
- ⑧ 각 부서의 차장은 그 부서의 의장을 보좌한다.
- ⑨ 감사는 본회의 재산과 업무집행 상황을 매년 1회 이상 감사하여 그 결과를 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⑩ 직전회장, 지도위원 및 고문은 본회 운영에 대해 자문을 하고 지도를 하며 총회 및 임원회에 출석하여 조언을 할 수 있다.
- ⑪ 감사 및 직전회장, 지도위원, 고문은 임원회에 출석할 수 있으며 의결권은 없다.

제25조(회장의 직무대행)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회장이, 회장과 부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임원회가 정하는 임원이 그 직무를 회장이 잔여 임기 동안 대행한다.

제4절 임원선거

제26조(임원선거)

- ① 총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임원을 선출할 수 있다.
- ② 임원선거는 임원의 임기만기일 1월 전에 총회를 개최하며 선출하여야 한다.

제27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지도위원, 고문제외) 2년으로 한다.

제5절 사업

제28조(사업의 종류)

- ① 본회는 다음 각 호에 기재하는 사업을 행한다.
 - 1. 회원상호간의 친목도모 및 권익옹호
 - 2. 경로 효친 및 청소년 선도육성
 - 3. 장전초등학교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 4. 마을 발전 및 지역사회 개발 사업
 - 5. 체육에 관한 사업
- ② 본회는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회비 및 각종기부금을 받을 수 있다.

제6절 회계

제29조(사업연도) 본회의 사업회계 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0조(재정)

- ① 본회의 재정은 특별회비 및 각종수입금으로 한다.
 - ② 특별회비는 임원회에서 정한다.
- 제31조(지출) 본회의 재정지출은 총회에서 의결 받은 예산범위 내에서 임원회에서 결정하며 회장이 집행한다.
- 제32조(결산) 회장은 사업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을 완료하고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제33조(사업계획과 예산) 회장은 매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사업계획 및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본회의 유지 운영에 꼭 필요한 경비는 전년도 수준에 준하여 이를 집행할 수 있다.

부칙

- 제1조(시행일) 본 회칙은 1993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임원의 임기 등에 관한 적용례) 본 회칙 시행당시 본회의 임원은 본 회칙에 의한 선임 방법에 따라 선임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199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3조(최초로 선임된 임원의 임기) 본 회칙 시행 후 본 회칙에 의하여 최초로 선임된 본회의 감사 및 지도위원의 임기는 199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지도위원 중 마을 이장은 제외한다.)
 제4조(내규) 본회의 활동 및 시행상의 명문화를 요하는 기타 중요한 사항
 의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임원회에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회칙은 1999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조 규정 등) 본 회칙 시행 후 경조 규정을 별도로 제정 시행한다.

장전리에는 마을보건소와 장전새마을금고가 각각 한 곳 있으며, 교육
 기관으로는 장전초등학교와 장전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이 있다.

3.1 장전초등학교

① 학교의 설립유래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되자 제주도내 마을마다 경쟁적으로 국민
 학교가 설립되었다. 장전마을에서도 자녀들을 이웃 원거리 마을학교에 보
 내지 않고, 마을 내에서 배울 수 있도록 학교를 만들자는 부락민들의 뜻
 을 모아 학교 설립 추진위원회가 결성되었다. 1946년 8월 21일 장전국
 민학교 설립인가를 받고 장전리 431번지, 435번지 대지 1,313평(현재의
 학교부지)을 기부 체납 받아 학교가 건설되었다. 설립 당시 학교 건축 및
 부지는 장전리민 일동의 합심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1949년 1월 25일
 소위 4.3사건으로 학교 건물이 전소, 폐교되었다가 1950년 5월 25일 학
 교를 재인가 받고 개교하였다.

② 연혁

연 월 일	주 요 내 용
1946. 8. 21	장전국민학교로 설립인가 개교
1949. 1. 25	4.3 사건으로 전 교실 전소 폐교
1950. 5. 25	장전국민학교 재인가 개교
1973. 3. 1	금덕분교장 설립인가

1946. 8. 21	장전국민학교로 설립인가 개교
1949. 1. 25	4.3 사건으로 전 교실 전소 폐교
1950. 5. 25	장전국민학교 재인가 개교
1973. 3. 1	금덕분교장 설립인가
1974. 4. 23	금덕분교장 개교(1. 2. 3학년)
1984. 3. 5	본교 병설유치원 설립인가
1984. 10. 22	북제주군 교육청지정 과제시범학교 운영보고
1985. 3. 1	학교급식 시작
1992. 3. 1	금덕분교장 폐교(통학버스 운행)
1994. 2. 15	급식소 신축
1996. 2. 5	본관1층 4개 교실 수리
1996. 2. 15	학교 동쪽 자연석 울타리 조성
1996. 3. 1	장전초등학교로 개명
1998. 10. 29	열린 교실 대수선공사(7개 교실)
1999. 9. 1	컴퓨터교실 개축
1999. 7. 31	북쪽인도 공원화 공사
2000. 2. 18	제48회 졸업생 배출 (총 1,836명)
2001. 2. 16	제49회 졸업생 배출 (총 1,846명)
2002. 2. 19	제50회 졸업생 배출 (총 1,858명)
2002. 3. 1	구 교장실개조 화장실1개 외 공사완료
2002. 3. 1	교장실 증축

③ 아동 현황

가. 학급편제 및 아동수

학 년	1	2	3	4	5	6	계	
학 급	1	1	1	1	1	1	6	
아동수	남	19	11	14	14	9	8	75
	여	9	8	4	7	15	13	56
계	28	19	18	21	24	21	131	

나. 거주지

구분	장전리	소길	소년원	유수암	단지	계
인원	47	23	13	33	15	131

다. 보호자 직업

구분	농업	회사원	자영업	공무원	건축업	기타	계
인원	35	39	12	19	13	13	131

④ 교직원 현황

구분	교장	교감	보직 교사	교사	유치원 교사	일반직	기능직	영양사	조리사	계
남	1	1	2	·	·	·	2	·	·	6
여	·	·	·	4	1	1	·	1	1	8
계	1	1	2	4	1	1	2	1	1	14

3.2 장전초등학교 병설유치원

① 연혁

연월일	주요내용
84. 3.20	병설유치원 개원
92. 11.15	유치원 교실 신축
93. 11.19	북제주교육청 지정 지역중심 유치원 운영보고
96. 3. 1	장전초등학교 병설유치원으로 명칭변경
02. 2.29	제18회 졸업생 배출

② 학급현황

학급수	학생수			교원			연령별 학생수		
	남	여	계	원장	원감	교사	3세	4세	5세
1	11	6	17	1	1	1	·	·	17

〈2002. 7. 26일 현재, 장전초등학교 제공〉

4. 산업환경

장전리는 감귤생산 주산단지로서 1992년 감귤 성장작목 시범단지 조성지역으로 선정되었다. 총면적 355.1ha 중 경지면적은 7.4%에 불과하지만 과수원 면적만 39.2%에 달한다. 농가소득의 90%이상이 감귤소득이며, 시설감귤(가온, 월동, 비가림, 한라봉)이 많이 재배되고있다. 특히, 장전자연농업연구회는 무농약·유기재배감귤을 생산하는 연구회로 제주도에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이밖에 참깨나 보리와 같은 곡물 농업과 단감, 키위, 배 등의 과수재배가 행해지고 있다.

장전리 공동목장(애월읍 유수암리 위치)은 1935년에 마을주민 중 밭이나 돈을 낸 사람들이 조합원이 되어 가축방목을 목적으로 설치되었다. 당시 목장에서 방목하던 소와 말의 수는 각각 200두와 500두에 이르렀으며 장전리의 가축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가축도 맡아 방목하였다고 한다. 현재는 가축사육의 사양화에 따라 가축방목은 하지 않고 있으며 대신 임대료를 주어 감자의 경작지로 이용되고 있었다. 초기 100만평에서 현재는 596,159평, 사유지와 도·군 소유지를 제외하면 조합소유 346,069평인데, 조합원 149명이 모두 장전리 사람들이라고 한다. 국제자유도시의 흐름에 맞춰 목장의 용도를 휴양지로 이용할 발전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주민들의 기대가 매우 크다고 한다. 공동목장을 관리하기 위해 장전리공동목장조합이 결성되어 있는데, 목장조합에서는 마을회관 건립 시 2000만원 정도를 회사하는 등, 현재 밭 임대료로 벌어들이는 수입의 일부를 마을 발전에 보태고 있었다.

● 토지 지목별 현황

면 적 (호당 경지 : 5.4ha)					
계	전	과수원	임야	답	기타
355.1	26.3	139.1	79.6	0.3	109.8

<2002. 7. 26일 현재, 장전리사무소 제공>

● 장전리 과수 실태 현황

경영규모(평)						부대시설(평)		
총경지면적	일반작물	과수재배면적				관리사	저장고	축사
		감귤	단감	키위	배			
602,887	45,023	549,064	6,100	1,900	1,800	80	50	208

관리시설 보유사항			유통시설 보유현황			
스프링클러	점적관수	양수기	저온저장고		일반저장고	
			동	면적(평)	동	면적(평)
37,400	20,900	49	4	50	133	2,703

<2002. 에월읍사무소 제공>

● 하작물 재배 현황

(단위: 호, ha)

계		콩		팥		조		수박		참깨	
농가수	면적	농가수	면적	농가수	면적	농가수	면적	농가수	면적	농가수	면적
20	12.03	5	2.38	1	0.15	5	1.12	2	5.94	7	2.44

<2002. 에월읍사무소 제공>

● 농기구 보급 현황

경운기	농용양수기	병충해방제기			관리기	동력절단기	동력예취기			곡물건조기	농업용난방기
		계	주행형분무기	동력분무기			계	미맥예취기	휴대용예취기		
119	1	93	1	92	63	3	32	12	20	2	44

<2001. 12. 1일 현재, 에월읍사무소 제공>

5. 세시풍속

세시풍속은 농사의 주기, 즉 절기에 따라 신앙과 생산 공동체가 절후에 맞게 치르는 명절 의식, 놀이의 관습이다. 또한 세시풍속에는 생활과 의식이 응결되어 엮여지고 있어서 폭 넓은 생활문화가 반영된다. 다음에서는 이러한 세시풍속이 장전리에서 어떻게 행하여지는가를 살펴보고 하겠다.

● 1월

· **정월명절** : 장전리 사람들은 음력 정월 초하룻날에 떡국을 만들어 먹으며 차례와 세배가 끝난 후에는 친척들끼리 모여 윷놀이 등을 즐긴다. 마을의 웃어른들을 찾아다니며 세배를 하기도 하고, 저녁 무렵에는 초등학교에서 노래자랑을 열어 마을 주민들과 함께 하는 시간을 갖는다. 과거에는 '처갓집에는 도솔꽃 피면 간다'는 속담이 있어 처갓집에는 초사흘에 세배를 하러 갔다고 한다. (도솔꽃은 3월에 피기 때문) 할망당에 가서 고기와 떡, 밥을 준비해 올리고 절을 하며 한해 자손의 번창과 농사의 풍년 등을 기원하였고, 실을 상에 올려놓고 자손의 명을 길게 해달라는 소원을 빌기도 하였다.

· **대보름** : 대보름에는 가정마다 시루떡을 만들어 먹는데 이것을 보름떡이라 부른다. 시루떡 위에 가족들의 이름을 써 놓고 한해의 운을 점치기도 했는데 떡이 잘 익으면 그 사람의 한해의 운이 좋은 것이라 믿었고, 떡이 잘 익지 않은 경우에는 운이 좋지 않은 것으로 여겼다. 오곡밥을 해 먹기도 하였다. 남의 집 정낭을 훔쳐다가 불 때는데 쓰기도 하였는데, 그렇게 하여 욕을 들음으로써 한 해에 자신에게 올 액을 미리 막으려 하였다. 연날리기를 하다가 실을 끊어서 날려보냈는데, 한해의 나쁜 것들이 달아나기를 기원하는 의미에서였다. 할망당에 가서 자손을 위해서 빌기도 한다.

· **신구간** : 장전리 사람들은 신구간 기간 동안 이사를 하는데, 문방

(점집)에 가서 좋은 날을 잡아 이삿날로 정한다. 음력 6월에는 이로움이 없다하여 이사를 되도록 피한다. 집 앞에 소금, 붉은 팥, 술을 뿌려서 이사를 하고 밥해먹는 곳을 잘못 건드리면 동티가 난다하여 부엌에 있는 짐은 조심해서 옮긴다. 식생활이 우선 임으로 술을 먼저 가져간다. 신구간에 묘소를 찾기도 한다.

· **마을 포제** : 장전리 설촌 배경은 약 700여 년 전으로 추정되며 포제청에서 포제를 시작한지는 약 300여 년이 된 것으로 추정된다. 포제를 봉행하는 시기는 매년 음력 1월 정일(丁日)을 택하여 봉행한다. 포제 봉행의 목적은 마을의 무사 안녕과 천재지변 및 농축산물의 풍년을 기원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포제를 봉행한 기록은 1948년 4·3당시 기록이 전멸 소실되었으며, 1952년 이후 지금까지의 기록은 남아 있는 실정이다.

마을에 유고가 있을 시에는 비린다고 하여 열흘이 지난 후에 포제를 열 수 있다. 마을 회의를 통해서 몸이 건강하고 가정에 특별한 불행이 없는 사람을 12명 선출하게 되는데, 뽑힌 제관은 육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해야 한다고 생각하여 제관 선출 후 4일 동안 마을회관이나 제단 가까이 있는 건물에 머물면서 바깥출입을 금하고 제를 준비하게 된다. 그러나 현재는 1박 2일로 그 기간이 줄어들었다. 마을 포제는 자시에 맞추어 거행되는데, 이를 통해서 마을의 풍요와 마을 사람들의 건강을 기원하게 된다. 이 기간에는 곤쌀, 찐쌀, 노란 좁쌀, 까만 좁쌀을 섞어서 찐 다음 익은 모양을 보고 마을에 일년 운세를 점쳤다고 한다. 떡 모양이 곱게 모여져 있으면 마을의 일년 운이 좋다고 여겼고, 모양이 흐트러져 있으면 운이 안 좋은 것이라고 여겼다. 마을제를 할 때가 되면 바람이 불다가도 멈춘다는 얘기가 전해지고 있었다.

● 2월

· **입춘** : 큰 대나무에 12알의 콩을 며칠간 놔두었다가 그 해의 날씨를 점치는데 이용하였다. 콩 12알을 한해의 12달로 생각하여 바깥 마른

콩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 달에 가뭄이 든다고 여겼다. 가뭄이 들거나 우물에 고이는 물의 양이 적어지면 마을이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헌관을 뽑아서 입춘 날에 기우제를 지내기도 했다. 기우제는 마을의 깨끗한 들판에서 행해졌는데 특별히 그 장소가 정해진 것은 아니라고 한다. 입춘 날 대문에는 '立春大吉'을 한자로 써서 붙였고, 이 날 아침에는 여자가 남의 집에 가면 부정이 탄다 하여 집밖의 출입을 삼가 하였다.

● 3월

· 묘제 : 삼월 삼짇날은 평소에 제사를 지내지 않는 5대 이상의 조상의 묘에 벌초를 하고, 제를 지낸다.

● 4월

· 부처님 오신 날 : 불교 신자들은 마을 근처의 절에 가서 등을 달고 집안의 안녕을 기원한다.

● 5월

· 단오 : 설, 한식, 추석과 더불어 4대 명절의 하나인 단오에는 조상에 대한 차례를 지내왔으나 오늘날에는 사라지고 없다. 이 날에는 새미떡, 인절미, 절편, 지름떡 등 여러 종류의 떡을 만들어 먹는다고 한다. 마을 주민들이 초등학교에 모여 노래 자랑을 하는 등 새로운 단오 풍습이 자리 잡고 있었다.

● 6월

· 닭 잡아먹는 날 : 음력으로 '유월 스무날'이 되면 무더운 여름 날씨가 잘 이겨내기 위해 집집마다 닭을 잡아먹는다. 이것은 몸을 보신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 제주도에서는 옛날부터 삼복 날은 그냥 지나치고 유월 스무날에 닭을 먹고 잃었던 원기를 회복했다고 한다.

· 갈증이 만들기 : 미녕(무명)에 감물을 들여 갈증을 만들어 입었는데 갈증이는 땀을 잘 흡수하여 주로 여름에 즐겨 입었다고 한다. 갈증이

만드는 방법은 우선, 미녕(무명)을 발로 비벼 뺀 다음 햇볕에 말린다. 풋감을 뺀 다음 생기는 물을 미녕에 조금 넣고 다시 비벼서 뺀 다음 햇볕에 말린다. 감물을 들인 미녕을 햇볕에 말릴 때에는 자주 뒤집어주어야 하는데, 이는 좋은 색을 얻기 위해서이다. 과거에는 광목 가격이 비싸서 미녕으로 갈옷을 해 입었다고 한다.

● 7월

· 칠월칠석 : 칠월칠석에는 절에 가서 가족들의 평안과 풍요를 기원하기도 하고, 밤하늘을 쳐다보며 별을 찾기도 한다.

· 백중 : 장전리에는 물이 귀하기 때문에 백중날이 되면 한라산이나 해변가의 물 나는 곳을 찾아 물을 맞았는데, 흰쌀로 죽을 써서 먹으면서 하루동안 머물러 있기도 했다. 과거에는 백중날 물을 맞으면 신경통을 비롯한 몸의 병이 싹 낫는다고 하여 마을 사람들이 물 맞으러 많이 갔으나, 요즘에는 이 풍습이 거의 사라지고 없었다. 과거 마소를 많이 길렀던 장전리에는 백중날 마소를 기르는 사람들이 들판의 한 장소에 모여 제를 지내는 독특한 풍습이 있었다고 한다. 백중날 절에 가서 백중 기도를 드리기도 한다.

● 8월

· 소분 : 음력 8월 초하루가 되면 흩어졌던 가족들이 모여 조상의 무덤에 벌초를 한다.

· 추석 : 추석에는 오랜만에 친척들이 모여서 조상들에게 차례를 지내고, 저녁에는 보름달을 보며 동네 사람들이 모여 춤과 노래, 놀이 등을 즐긴다.

· 출 베기 : 겨울철 소나 말이 먹이가 부족한 것을 대비하여 사람들이 출을 베어 말려서 저장하였다. 출 베기는 시간이 오래 걸려서 8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계속 되었는데 마을 사람들이 서로 도와가면서 출을 베었다고 한다.

· 말똥 줍기 : 겨울 한철 땀감으로 쓰기 위해 마소를 방목했던 곳에

가서 말뚝을 주운 다음 말려서 사용하였다. 소나무의 솔을 주어다 연료로 사용하기도 했다고 한다.

● 11월

· 동짓날 : 동짓날에는 팔죽을 쑤어 먹는다. 그리고 팔죽을 집 앞에 뿌리며 귀신들이 먹고 가라고 하여 그 해의 나쁜 액이 사라지기를 바라기도 한다.

· 지붕 잇기 : 지붕 잇기는 주로 11월과 12월 사이 날씨가 온화한 날을 골라서 했다. 콩이나 조, 보리 등의 추수가 끝난 담에 새를 가져다가 지붕을 이었는데, 혼자서 하기 힘든 작업으로 마을 사람들이 서로 도와가며 두레 형식으로 했다고 한다.

● 12월

· 장 담그기 : 자신의 띠에 담근 장을 먹으면 안 좋다고 하여, 가족들의 띠를 피해서 날을 정하고 장을 담갔다.

· 옷 만들기 : 과거에는 집에서 직접 옷을 만들어 입기도 하였는데, 여자들은 천에 물을 들여서 정월명절에 입을 옷을 미리 만들어 놓았다고 한다.

방 언

〈 목 차 〉

- | | |
|--------|--------|
| 1. 의생활 | 2. 식생활 |
| 3. 주생활 | 4. 농업 |
| 4. 축산업 | 6. 기타 |

1. 의생활

1.1 평상복

1) 모자

(1) 풍뎡이

: 모저 풍뎡이 영 헤영 모저가 아니고 이제 그 복단보 그 모저 그 저을에 쓰곡 영행 호끔 그 (무슨 모자 마썸) 복단이라고 그전이 그 이제 느네 몰람구나. 풍뎡이 (풍뎡이 어떻 생긴거 마썸) 아니 모저 아니 영 헤그네 칭돌고 영헤영 이래 영 헤영 뒷꼬지 영 헤영 (끄네기도 영행 시꼭)어 당기도 들이곡

(2) 상통

: 머리에는 그때에는 옛날에는 아주 옛날에는 장개가젠 허민 머리 길루왕 상통차 낫주게 상통. 올려그네 영 뱅뱅 감앙. 막전이 구루 후젠 우리 시집가고 장개 가는 때는 머리작앙 갖주게.

(3) 패랭이

: 옛날에 밀 갈랐다가 곱데기 까서 그거 붙이멍 붙이멍 엮아 / 더울 때는 그 때는 수건 하나 행 쓰고 그 패랭이가 그 후제 낫주게 (그

후제 패행이 뿐이여수파?) 그 후제 페렝이 나가난 샷갓도 나가고

(4) 광목 수건

: 여자들 머리에 쓰는 거

(5) 관

(6) 갓

(7) 탕건

: 탕건은 이마에 딱 뚫렁 싸는 거 출으로 만들어 말기는 두르는거고
탕건은 쓰는 게

(8) 망건

: 망건이가 잇고 만기는 머리가 ㅎ끔 길은 홀어지지 않게하는 망건
이가 잇고

(9) 샷갓

: 더울 때 머리에 쓰는 거 (피죽 샷갓, 속샷갓). 대로 졸왕 쓰는거.

(10) 벌립(정동벌립)

: 정동 걸어다가 졸아서 만든 거.

(12) 감피

: 아기 영 헤그냉 이제 사진찍젠 허민 아기 둘에 이맹이에 행 찍느
네이. 어명들이. 그 뜻인 생이라. 그거까 감피라. 감피헤여그냉 영
씩왕. 두 살 되도록 서너살 되도록 씩우주게. 서너살 되가민 저구
리도 행 입지곡, 웃을 행 입지주게 웃을. 경 행입정 그말곤곡.

2) 웃

(1) 갈웃

(2) 적삼(=등거리)

: 위에 입는 거

(3) 저고리

① 숨저고리

: 저을에 숨저고리 입고

② 접저고리

: 봄에는 접저고리 솜아이 낱. 봄 훈 정월 이월 삼월 쫘엔 접저고리
입고

* 5월 나민 곱집어그네 해는 거주게. 곱집엉 솜아이 낱. 접바지 동지섯달
나민 솜바지.

③ 법단 저고리

: 법단 저고리 그때에 시절엔 혼자에 닷돈 닷돈 허멍 비단 혼자에
닷닷닷돈 하멍 살아 낫주. 게난 그거 인주법단 사당 저고리 헤영
입곡.

(3) 치메

① 주름치마

② 목췌리 치메

* 치마 또 막 어릴때엔 치마가 아니곡 그냥 영 포대기 모양으로 행 지성치메

(4) 쪼끼

(5) 굴중의

: 일 혈 때 입는 거. 치메 닳은 거

(6) 갈중의, 갈적삼 :

: 여름에 입는 거

* 갈중의 : 일혈 때 입는거 감들영 갈중이렌 허는거 바지 7치 흘걸로 바
지. 옛날엔 뻘스없던 허영 속난 행 입었지. 경허난 흘걸로 허영
감들이주게 감, 이제 감옷 알아지지? 게난 그추록 들어그네 갈
중이, 적삼 허여그네 입었주게.

(7) 바지, 저구리

: 저을에 입는 거

(8) 손도매

: 추울 때 팔에 끼는 거

(9) 두루마기

: 절할 때 입는 거

(10) 보선

: 양말 7추록 신는 거

(11) 속곳

: 속에 입는 거

* 고장중의 : 경허난 어른대민은 속에는 고장중의 입곡 이젠 속치매 입곡
또시 속치매 입곡 또시 영 걸치매. 주름치마. 그뎨 허리돌양 입었주게.

(12) 귀두르기

: 귀에 쓰는 거

(13) 우장

: 새 비어다가 줄앙 썬.

(14) 깍띠

: 허리띠가 깍띠. 그건 멋으로.

(15) 보뎨창옷

: 그뎨 끝낭 헤영 입은건 대석자, 대석자로 허여그네 그계 보뎨창옷
이라고 보뎨창옷이렌 허영 이젠 그거 헤여그넹 석자 사다그넹 이
제 영 습이 영 혼 두채 허여 그넹 소미로 영 그낭 너비로 헤노민
질어. 영 끈어동 홀수셔도 그걸 끈어불민 그 아기가 어디가민 말
이 모지렌다고 말을 잘 못허여 경형 그걸 막 질게 행 그걸 혼 뎨세
입정 아기 어멍이 영 머리영 솔헤당 머리 몸 굽지고 아기도 몸 굽
저나민 그 보뎨창옷은 데껴동 따른 옷 행 입지고 푸민 입지고 경
아녀민 그것도 몬 여림에 난 아긴 혼 두어덜 입짐도 허곡. 판거 이
제 고치 경 옷이 어섯저. 살 것도 업곡 허민 무신거 영 그뎨 뎨 헤
여그넹 등허리 흐끔 헤그넹 입지고 아래 무신 지저귀도 안 채와.

3) 신발

(1) 초신

: 짚신

(2) 남신 / 나막신

: 나막신, 눈 오고 비 오는 날 신언.

4) 기타

(1) 도매

: (여자들 예쁘게 허젠 머리에도 뭐 뽑아나고 막 그런건 어서 뉘수

파?) 흐 열서너설 서에 그때에게 도매. 이제야 골앙 뻘허난. (옛날에도 도매 같은 거 이서 뇌수파?) 도매엔 헛주게. 그게 일본놈 시절에. 일본에서 오라신디 꽃 거리고 막 곱게 이제보단 더 나오라 자게 그거 머리에 곱고

(2) 분

: (얼굴에 바르는건 어서난 마썸?) 그때엔 분이렌 허곡. 물분이렌 허곡 연지엔 곱고. 물분은 물로 된거. 영 행 손에 삭삭헨 이제 보민 지방 이젠 연지 쓰는 거 어서. 꼬뎨 지방게 이제 연지는거 어서. 이젠 연지를 흐끔씩 발르드라고.

(3) 기지

: (옛날에 옷 만들영 입어 낫지예, 어떤 걸로 만들어 뇌수파?) 어떤 기지? 옛날에 인주 법단으로도 허여고 그냥 개발법단이엔 허는 걸로도 헤보고 목쉐르 치마 반쉐르 치마 그런건 마승에강 돈 쾡헤오라사 존 치메니까 비단이 아니고 쉼르라고 반쉐루지. 춤쉐르 만든 못헨거, 인주법단 저고리 행 입고 그거 허여지른 입고 옛날엔 뭐 헤영입는 기지도 이제 답지 안헤여 뚏아 뚏아.

1.2 혼례복

1) 모자

(1) 족두리

: 총각 가르네 족두리 차.

(2) 방애머리

2) 옷

(1) 치메

① 조패치메

② 멩지치메

③ 갑진치메

(2) 저고리

① 멩지저구리/ 멩지저고리 - 남, 여

(3) 바지

① 멩지바지

② 옥영목바지

(4) 인영속옷

(5) 장옷

: 파랑 것에 빨강 짓 들고 경 허영 색동 낱 우테로 입던 거

(6) 도복(도폭)

(7) 관복

(8) 보선

(9) 사무관대

: 두 번째 장개가는건 사무관대 영 뽕 바롤헌거 하나영 딱 꺾엉 빠
도그네 하나만 영 꼬드령

(10) 도포

(11) 후리메

3) 신발

(1) 가막창신

· 여 : 포허영 고무신 7찌 까망헌 걸로 유단 닳은 거로 만들언, /
시집갈때에 가막창 신은 신영가는거 가메영 고치 오랑 오민
이제 그걸 그레 부찌그넝 신어그네 가그넝 시집이 가그네 오
민 그거 벗어그네 가메에 보내동 흰고무신 신어.

· 남 : 반장화 닳은 거

(2) 꿩

: (신발같은 것도 다른거 신어나지 안혜수과?)신발은 다른거 아니
초신은 안신어서 꿩가 셔서. 신발은 좀 따른거 시언. 거굴아 꿩엔
헨.

4) 기타

(1) 물

: 경행 남자는 물 탕 가고 나는 가메에 영 사람들 모라들영 심정가
곡 / (남자탕 오는 물은 그냥 물이렌 혜수파? 따른 이름 어수파?)
신랑 탕 오라그녕 신랑 탄 온 말은 옛날에 신랑이 태우젠 허민 물
므릿코사라고 술 태우리고 하간거 태우고 민영석자행 야개기 영
감아서라. 새서방 타온말은 헤양헌걸로 영 머리 영 무끄고.

(2) 가메

: 가메에 탕 영 행 들리갓주게.

(3) 분

: (머영 발르기도 행게 텔레비전에서 보난) 텔레비전에서게 분보르
꼭계 물 불르꼭 연지

1.3 상례복

1) 모자

(1) 두건

: 머리에 쓰고

(2) 건대

: 두건위에다 걸치는 것.

① 소건 - 위에 걸은 건

② 대건 - 붙은 건

(3) 건

: 옛날에는 베로꼬양 만든건이 없꼭 요마니더 질게 헤영 수건 수건
쌈 머리 훌어지지 않게 땡겨주 뒤트레 행.

(4) 머리차

: 머리에 흰 편

2) 옷

(1) 상복

(2) 행경

: 행경치고 행경 묶으는 건 행경칭계.

(3) 통두건 (상제가 입는 것)

: 두건이 다 만들어지지 않은거 계난 왜냐 하면. 사람이 죽으면 매장 이전에 급하니까 쓰는 것. 통두건 할때는 두루마기도 한착은 입고 다른 한착은 입지 안헤그네 누가 돌아 가니까 바빠 가지고서 옷 입을 정신도 없어서 한쪽만 뺀단 말이다. 두건도 다맨들지 않은걸 쓴다고. (맨들정신 어성~)

(4) 직냥

: 또시 남자 상제 직냥이라고 허영그네 우엔건 직냥입곡 시민 말곡, 우일 두갠입어. 옛날엔 겐디 이젠 어서 (거고 맘상제는 흐끔 틀린 거 입습니께)어머 달령 입엿주게 그거까 상제옷. 남자상제 입는거 그 참저 여자는 사위는 저 뒤에 아이도령 입히곡 아덜만. 그 제라한 상제난.

(5) 상제옷

(6) 도폭

3) 신발

(1) 초신

(2) 상제신

4) 기타

(1) 사람 죽으면 입히는 옷

① 장옷 - 여자

② 도복 - 남자

1.4 제례복

1) 옷

(1) 도복/ 도폭

: 도복 입영 제사 지넷주게.

1.5 바느질 도구, 법

(1) 실패

(2) ㄱ새

(3) 골미

: 영 손에 해영 옛날에 영 이디 꼬여부카부덴

(4) 바놓

: 맹지웃 허는 바놓, 큰바놓 도라

(5) 베틀

(짜는 건 뭐렌 험니까?) 민영짜는거렌 허고 베틀, 민영 썰 짓는건 무르레, 또시 그기에 가레기 꺾여그네

(6) 무르레

: (실만드는거 거 뭐렌 험니까?) 무르레, 무르레, 실빠는 것이 무르레

(7) 가레기

: 실을 영 헤그네 그디 영 무시거 영 꿰영 영영영 짓으민 이걸 영 드령 영 감아사 그디 이제 실 헐꺼야니가 감앙 그레 감아사 영 좇앙 허는거 귀마리 민영차는거 뒤에 감는거 가레기는 도꾸마리에서 실 풀어지멍 짜는거.

(8) 멘네 : 솜

(9) 바느질법

: 크게허는건 영 송글송글 허게 쥐가는건 바놓 큰걸로 허영 영영 자게 영영영영 쥐가고

① 땡침

: 땡침이렌 허는 건 이제 영영 크리는거 고치 뒷바느질 허멍 미상
허는 것 ㄹ치 크게 술렁술렁 허는 것

② 시끔 땡침박는거

: 잠질잠질허게 허는거

③ 송굴송굴 호우는거

: 바늘이 큼직허영 이만씩 크게크게 호우는거

④ 감치는거

1.6 빨래

(1) 서답마께

(빨래할 때 두드리는 거 그런거 뭘헐 굴아마썸?) 영영 두드리는게
서답마께. (서답마께 두드리는 건 무사 두드리는 것과?) 풀 헤여그녕
혼저 잘두드리젠 게. 흥지때에 감앙

(2) 물마께

물마께 침. 물마께가 빨래 물에 뽀는거. 서답마께 영영 두드리는 녀
작헌건 물마께.

(3) 돌안반

: (두드리민 밑에 영 돌멩이 같은거 잇지 안헤 마썸?) 안반 옛날 돌
안반에 헛주게. 그땐 (흥지땐 어떤거 마썸?) 서답을 영영 감앙
감아그녕 혼착 손으로 영 행 심어듬서 영영 두들기게.

(4) 서답구덕(-바구리)

: (서답 갖고 갈 때 어디에 담앙 갖고 가놔수꽈?) 서답 지아정게.
서답 바구리에 담앙 지영 서답 담는거 호끔 큰 바구리, 서답 바구
리.

(5) 쟁키구덕

: 등집지영 조그만이 쟁키헤영 땡기는건 죽은 바구리 그건 쟁키 구
덕. 쟁키는 영 싣으레 가는 건 쟁키구덕

(6) 안반

- : 서담 헐 때 밑에 놓는 거
- (7) 흘깃대
- : 서담 감는 거

2. 식생활

2.1 일상음식

1) 밥, 국, 죽

(1) 밥

- ① 보리쌀밥
- ② 조밥
- ③ 보리밥 / 보리팝
- ④ 피밥

: 혼번 넘어가는 사람이 집 빌리렌 헤네 집 빌려나네 오라네 피밥
헨 흐끔 주난 먹어보난 헤~양 하고 영 풀 아이 붙언 헤양 헝

(2) 국

- ① 양에국
- ② 비눔국
- ③ 늬뻬국 / 늬뻬국

: (어떤걸로 국 헝 먹어나수짜?) 옛날엔 마찬가지 이제는 무수영 무
슨 배추영 헤도 그뻬 픈는 것도 없고 어디 장시가 윈 어시니까 어
디가그네 혼 무지 밥 한 무지들 상 매영그네 올로 저만씩헤그네
또 짐치몰만 갈아놔두민 버랭이만 뜯어먹고 때작때작 헤여도 그
거세 그 문때가그네 어디 넷물에 강 시쳐당 짐치헤도 경 맛이 좋
안. 이젠 무수헤도 늬뻬, 호박국. 배추 드룻느몰도 캐당도 먹어보
고. 드르에 나는 느몰. 평마농 캐당 먹어보고. 국에 낱 먹엇주게.

- ④ 호박국

⑤ 툇냉국

: (여름에 막 시원하게 행 먹어난거 이수파?) 물웨도 그땐 툇도 일본에 수출안허난 바당에 강 비어오난 툇 비어당 툇 끓이곡 질 많이 툇냉국, 이젠 정 어려와도, 그거 주로 여름엔 먹고 메역도 돈 쥘 살겨낭 거또 어려완. 경헤난 해변 사람들은 헤당 먹어도 우리 웃들 사람들은 허지 못헤난 그 메역냉국도 좀 어려완. 툇을 강 그져 곤똥로 정강 비어당 국 행 먹어 봤주.

⑥ 갈치국

⑦ 된장국

⑧ 느물국

(3) 죽

① 콩죽

② 팥죽

③ 흰죽

: 흰죽은 아프거나 허민 흰죽이렌 허는거는 쌀낭 쑤는거 그것도 하도 예려 운겨라 쌀이 어디입니까? 곤쌀이 어디 입니까?

2) 반찬

(1) 반추

: 옛날엔 반찬이렌 현거이 조 반추(바나나 나는거로) 반추 헤여그네 소금 헤여그네 지담으면 것도 먹어보민 맛 좋아라. / 바나나 여는 거 영 큰거 영 끈쳐다그네 지 담앙 먹곡

(2) 느물

: 느물도 무청먹고 (어떤 느물 무청 먹어 뇌수파?) 게 가그네게 냉이도 캐왕 오민게 것도 무치고 꿩마농. 것토리마농도 캐영게 무치른 그냥 야! 벨다른 양념 아이 무치곡 장 농곡 꿩꼬름이나 호썰 놓고 소금이나 흑곰 놓는거.

(3) 집치

: (집치도 막 많이 잇지 안헤파?) 집치도 그 때엔 우리도 살젠허나 일곱말 들이 탕으로 하나씩 담아 낫져 저 장도 여덱 허덕씩 담고

(4) 마농

- ① 마농지이
- ② 마농적
- ③ 마농젓

(5) 물룣 - 무룣

(6) 젓갈류

① 자리젓

: (자리 사당 자리 어떻게 먹어수파?) 소금담양 혼번에 하영 먹어 지느냐 자리젓 허민 저 들러당 먹을 꺼 아니? 출 밧에 가젠 하민 자리젓 헤영 혼단지 담야냥 출밧이 아저당 그디강 머청 뇌똥 사 먹고

② 갈치젓

: 소금헤그네 갈치젓도 저리고 그 맨 어려우난 영 도막 도막 잘라 그네 배 카그네 몰려 그네 제사때도 씻주게.

③ 고등에젓

④ 멜젓

(7) 볶음

: 볼락 또 각제기영 볼락사다그네 풀민 그자 그것도 상 콩에 볶아 먹어 불민 경 맛이좋아 또시 고등에, 각제기 허곡 고도리영 고등에 새끼, 자린 어려완.

3) 기타

(1) 범벅

: ㄱ레에 보리고랑 범벅 배수기로 짓엉 ㅁ물로 허른 ㅁ밀 범벅

- ① 보리범벅
- ② 모물범벅
- ③ 조범벅

(2) 맨

: (국수를 뭐렌 고라뇌수파?) 맨 뻥덴 헤라. 맨-맨.

(3) 즈배기 / 좌배기

- : 믫밀꺏루나 밀꺏루 같은 거 막 주물락 헤그넝 물에 떼영 놓는 건
 뤼렌 험니까?) 즈배기 (그건 뭘로 만들어 마썸?) 밀카루영 믫밀꺏
 루로 메역도 놓고 행 먹주게.
- (4) 보리가루(미숫가루)
 : 보리 헤그네 이젠 푸는 체로 파다파다 푸영 이젠 꺏레에 낱 곶아
 그네 그거 손으로도 쥐어 먹고, 물도 캥 먹고, 밥도 부비영 먹고
 그렇게 했어.
- (5) 믫밀국수
- (6) 감주
 : 솔허여그네 흥끔 식혀그네
- (7) 가역
- (8) 신다래 / 신다리
 : 신다래이 밥허당 쉼거게이 밧이 가그네 점심 헤 먹당 집이 오민 쉬
 어게이 경 허민 이제 거 놔그네 보리 곶아그네 영 놓고 요만썸 맨
 드랑 키워놧당 그 누룩을 이만썸 놔그네 신다리 헤여 밧갈젠 허민
 하르방 신다래 헤영 혼사받게.
- (9) 감자 빼때기
 : (옛날엔 과자 같은 거 어서나신디 뭐 먹어 놔수꽈?) 뭐 먹지 안헤
 영 그냥 내부러놧져 옛날여 감자 빼때기 그 옛날에 감저 썰어그
 네 물리는건가 그거나 땡기당 흥나썰, 아이들 앗잉덜 질레 널영
 이시멘들 먹언.
- (10) 밀떡, 밀빵떡
- (11) 주억
 : 빵떡을 만들면은 그 나머지 그 저 밀체 걸 밀체를 주억이라고 하
 거든. 주억이라고 하는 것은 끝떡을 이제 빵떡 모양으로 만들어
 가지고 고치 가족간에 제사를 지내기 전에 서로 나눠먹꼭
- (12) 주에기떡
 : 대부분 그 이 밀가루를 만들면은 쳇자 이 제일 좋은 가루는 놔두
 고 나머지 그 두 번째 가루로 해서 주에기를 만들어, 걸 보고 주에
 기떡이라 이렇게 하지.

(13) 감자썬거

: 감자라고 하는 것이 요지금 고구마라고 하는데 고구마를 절간을 헤가지고 그걸 굳것질이라고 좀 어린아이들 잇은 디는 사탕 비스름히 준 예가 잇지. 어린 아이들 고구마를 썰면은 기계로 썰어. 썰 어가지고 건조해서 그놈을 찌어주면은 여기서 어린아이들 과자 비스름히 이제 굳것질을 해주. 이제 (것 고랑 무신거렌 고라수광?) 아 그거 감자 썬거. 중간 우리가 전분빵 잇은 덴 절간이라고 그러 지. 절간 고구마라고 걸 알고 또 다시 지금 현재 얘기하는데 굳것 질이라고 하는 것은 저을에는 이제 감자를 묻었다가 감자를 저장 한다는 말이지. 묻었다가 이제 그것을 찌어서 이제 먹고, 요지금 감자라고 하면은 여기 지슬이거든. 여기 지방에서는 지슬을 재배 안하지. 남부쪽으로는 지슬을 많이 재배하고 하니까 하는데 부잣 집이 거들이면은 남자분들을 겨울에 거들리면은 막걸리나 술. 술 이나 담았다가 남편에게 드리는 정보해서 그것이 굳것이 되고

(14) 막걸리

: 겨울에 조막걸리 담았다가 먹는 것은 이제 막걸리. "막걸리 혼사발 가정오라" 영 남편이

(15) 술

(16) 소주

: 소주라고 한 것은 막걸리를 만들어 가지고 소주를 뺀거지. (옛날 부터 소주랑 담안마씨?) 소주를 뺀 것을 고소리라고 하여. 고소리 에서 소주를 빼가지고 이제 남편을 드리고 이웃사람을 드리고.

2.2 제사·명절 음식

1) 떡

(1) 속떡

: (떡도 행 먹어 냈지예?) 그땐 떡 행 먹지 안했져 저 봄 나그네 속 나왕 거 파민 그것도 어려와 속나그네 한 떡은 속떡이주. / 속떡다 가 ㄱ레에 ㄱ올앙. 밀ㄱ루 보릿ㄱ루 ㄱ올아냥 그거에 떡 찌서 청 먹고.

경허민 칼갈써.

(2) 굴떡

(3) 고장떡

(4) 세미떡 / 세마떡

: 동그랑하고 쉼놓고

(5) 침떡 : 설기, 곤떡 호끔 영 섞엉

(6) 지름떡

: 동그랑하고 / 지름에 지젓댄 허여 게 옛날엔 칠펜이영 허영 이서
나서. 시계때 칠펜 맹드랑 올리곡 헤나신디 쨌끔떡이영 일곱까지
에 부작하니간 지름떡 쨌끔씩헤영 뇌난거 게.

(7) 빙떡 - 무우 놓은 거 / 막밀코루로 빙떡

(8) 인절미/ 은절미 / 존편

: 존편이라 하며는 요지금 말로 곤떡, 사미떡, 사미 이렇게 헤.

(9) 절벤

: 곤떡이렌 헛거 동그랑허난

(10) 솔벤

: 돌모양이 반달모양한거.

(11) 저펜

: 쫄살로 만든 것

(12) 진부찌

: 재산이 풍부한 집안에서는 진부찌라고 하는 것은 쫄살로 만드는
두기가 요두켄 되면서 이어가지고 곤살로 가루를 해서 여가 쫄 부
찐 거. 진부찌 두빋을 놓고 그 우트레 존편.

(13) 빵떡

: (기주떡) 기주 위에 낳

(14) 제펜

(15) 쫄제펜

2) 곤밥

- 쌀밥

3) 갯 - 국

4) 적

(1) 도야지고기적 / 돛케기적/ 돼지고기적

: 돼지레기 적에 꿩.

(2) 쇠고기적 - 쇠고기적

5) 콩즙

- 콩나물

6) 통비

- 두부

7) 헤어

- 바닥고기를 말하는 건디 부분별로 달라. 보편적으로 우리 바다에서 나는 거.

8) 생선

- 제주도에서는 특히 옥돔

9) 도야지고기, 도새기 고기 올린다 허영.

10) 전지

: 모밀고루를 지저근네 계란 영 동그라미 허영 그거 쟁반에 고기 석점 올려놓고 잔치하시네.

2.3 부역용구

- (1) 낭푼이
- (2) 도구리(낭푼이)
- (3) 박세기
- (4) 사발
- (5) 대접
: 국 놓는 사발
- (6) 통사발
: 밥 놓는 사발
- (7) 쟈시
: 반찬 놓는 것
- (8) 보시
: 조그마한 쟈시
- (9) 종지
: 장 놓는 것
- (10) 물박
: 물 푸는 것
- (11) 조분 - 젓가락
- (12) 쟈통
: 숟가락 놓는 것
- (13) 남자 - 국자 (나무로 뒹)
- (14) 울금 / 우금 - 밥주걱
- (15) 국저
: 국 뜨는 것
- (16) 배수기
: 밥 젓는 것
- (17) 살레
: 사발놓는 것

(18) 솟

- ① 서패뜨기 : 죽은 거
- ② 다패뜨기 : 국 끓이는 거
- ③ 말치 : 밥 할때 범말치... 중간꺼
- ④ 말가우뜨기, 두말뜨기 : 큰거. 콩이나 메주 삶을 때 쨌로 큰거

(19) 줍팍 : 곡식해당 불리는 것

(20) 뒹악세기 : 쓸 거리는 것

(21) 밥상 : 밥 찰러 놓는 것

※ 웨상 : 혼자 먹는 상

(22) 떡구덕 : 떡 하영 놓을때.

(23) 차룽

: 떡 행 담아 놓는 것

(24) 수등

: 똥불씨

(25) 부쉐 - 부시(火刀)

(26) ㄱ레 - 맏들

(27) 허벅

(28) 대구덕

(29) 채양

: 수등(똥불씨)을 살령

(30) 돌방에

(31) 시리 - 시루

(32) 상삐 -행주

(33) 체

- ① 얼멍이
- ② 대체
- ③ 대거름체
- ④ 거름체
- ⑤ ㄱ는체 : 제일 줍질게.

(34) 뒹

(35) 술각 - 관:술.

송진이 많이 박힌 소나무의 옹이나 또는 어느 부분

(36) 자박지 / 좌박지

: 흙으로 맨드랑 나온거 잊저게 짐치 거리젠 허민 그것에서 조그만한 짐치 저령먹곡

(37) 독사발

: 국 끊여 먹젠 허난 요만한 검정헌 독사발 이서낫주 것에도 영 국 끊여먹곡

(38) 부지땡이 - 부지깽이

3. 주생활

3.1 집전체구조 (초가집)

1) 내부구조

(1) 정지 - 부엌

① 솥덕 : 솥에 낭 불피웁 밥해 먹는 것.

(2) 지방

① 웃지방

② 알지방

(3) 구들 - 방

① 작은 구들

② 큰 구들

(4) 꿩팡

: 창고(곡식 놓는다)

(5) 상방 - 마루

2) 외부구조

- (1) 이잇들
: 신 벗는 디
- (2) 난간마루
- (3) 텃지
: 이디 세워야지게 포 지들러야. 이거 하나로 이기 요 집이 발아진 거주.
- (4) 포
- (5) 도리
: 이 집을 얽매젠 허난 허민 포가 있고, 그 포를 얽매는 거주.
- (6) 서리
: 서리는 뽕 허게 돌아가명 서리를 다 박아야만 우에다가 이제 그 저 새로 이런 나뭇가지 얽어그네 그레 새를 덮으게 된 거주게.
- (7) 서슬
: 저 우이 뭐 덮으려고 허민 이런 빠지지 안 허게 허젠.
- (8) 정짓문
- (9) 주초
: 텃지 밑에 기초 되는 돌이주게.
- (10) 대문
: 상방에 붙은 거
- (11) 편방
: 대문 달첸 곁에 붙힌 낭
- (12) 지들이
① 돌칠귀 : 문 잠그는 거
- (13) 걸췌
: 안으로 문 잠그는 거
- (14) 축
: 벽에 흙으로 된 거
- (15) 축담 - 집채의 둘레에 돌로 쌓은 담
- (16) 나무뭇

: 옛날엔 못도 없고 허난 이 나무로 공기 뚫은 절로 가그네 또 나무
못 행 길 행 문 다는거. 고정시키젠.

(17) 밀창

: 미는 문.

(18) 굴목

: 온돌방 절로 불 때는 디

(19) 벤방

(20) 족은 뒷문

(21) 큰 뒷문

(22) 지붕

: 새(띠)를 비 안 새게 잘 헤그네. 올려.

(23) 줄

: 새를 짜그네 만든 거

(24) 새

: 위에 덮는 거

(25) 올레

(26) 창문

(27) 지계문

(28) 뒷문

(29) 무똥

: 신 벗는 디

(30) 정낭

: 마당 바깥 디. 먼 올래 들어오는 디 나무 두 개 걸쳐진 거

4. 농업

4.1 농작물 (계절)

1) 곡물류

(1) 보리

① 겉보리

: 보리도 옛날에는 겉보리가 잇었고, 팡질루리, 겉보리, 아주 옛날 철에 난 거지. 요 중간에 나온 것이 쌀보리라고 해서 살노리, 중간에 맥주보리라고 해서 맥주맥.

② 팡질루리 / 팡질노리

③ 살노리

④ 맥주맥

⑤ 털노리

⑥ 먹보리

(2) 조

① 모살시리

: 몬 고찌 못헤. 종류가 하주 것도. 게나네 그 종류가 조은 밧디 재배할 수 잇은 조가 잇고, 나쁜 밧디 재배할 수 잇은 조가 잇주. 모살시리 굿은 거 굿으면 조금 나쁜 밧디 해도 되고 감돌나리나 개발시리 이것들은 조금 나은 밧디 해야 되고, 그래서 그 또시 옛날 그 저 또시 좋은 밧디 재배행 맛좋은 조 육지조.

② 감돌나리 / 강돌나리

③ 개발시리

④ 청돌나리 / 청돌나리

⑤ 육지조

⑥ 흐린조

⑦ 육짓흐릿조

⑧ 쉼머리조

⑨ 맛시리

(3) 산뒤

① 강나룩

: 강나룻도 잇고, 강나유룩이란 것은 흐끔 고지가 높은 디서 재배하는 것이고, 강나룩이라고 한 것은 한 200고지 이상가민 잘 되

고.

② 원산뒤

: 원산뒤라고 하는 것이 있고, 원산뒤는 이 지역에 잘되고.

③ 보리끄룻 산뒤

: 산뒤도 보리끄룻 산뒤라고 해서 구수하고 냄새만 좋은 산뒤가 이
서. 보리끄룻 산뒤이. 보릿끄룻 산뒤라고 한 것은 여기서 이제 쌀
만 회고 냄새는 워낙 구수하는데 그렇게 영양가 잇은 맛있는 농
사가 아니라.

(4) 콩

① 청돼콩

② 팔월콩

③ 검은콩. 약콩

: 약콩이라고 해서 이제 잔잔한 콩 이서.

④ 강낭콩

: 콩종류가 또시 잇은 데 그 농사짓는 밭디 이제 우리 제주는 담장
에 담 췌어메는 거 강낭콩.

⑤ 돔비

: 담장 위에 올리는거이. 그런콩이 있고.

⑥ 녹뒸

: 여긴 녹두라고 하는데 그 뭐 콩두재를 써서 녹뒸라고 하는데 우
리 제주도 말로 녹뒸.

(5) 풋

① 봄풋

: 봄풋이라고 하는 것은 이르게 가는 것이고.

② 붉은풋

: 붉은풋은 늦어서 가는 것이고.

(6) 껌 - 깨

① 검은깨

② 신포

③ 노랑깨

(7) 피

: 피농사렌 한 건 이제 그 화전에 아주 혼 300고지 이상 올라간 디서 재배한 거주게.

(8) 사당대죽

: 우영에 올타리 곁에 가는 것을 대부분 이제 어린아이들 달래기 위해서 이제 사당대죽, 사당대죽을 갈고. (사당대죽이 뭐파?) 그 저 설탕 무슨 탕수되는 거지. 질게 나오라서 이제 열아이들 키우는 집에 걸 우선 잘 질리고.

(9) 모뭇

: 메밀이라고 하는디 그건 모뭇. 어. 겨울에 이제 시간이시몬 할머니들이 이제 다 국수 만들어주고. 맷돌보고 이제 여기는 ㄱ레라고 하거든. 그것을 다 갈아가지고 가루로 만들고.

(10) 지슬 - 감자

(11) 밀

: (게민 보리, 조, 산뒤 마씨?) 표준어민 옥두, 이렇게 해서 육배. 게난이 산두이. 일제 때에 옷을 지어입는 거 맨네 면화보고이. 할머니들이 얘기하는거. 대부분 농사가 저을하민 아까고찌 보리농사에 밀, 소맥이라고 하는 밀. (밀이 소맥마씨?) 어.

(12) 감자 - 고구마

2) 채소류 (과일 포함)

(1) 배추

(2) 늬뻬

: 무 그건 그 채소를 심어서 여름웨믄 고추, 요지금은 뭐 여러 가지도 나오는데 대부분은 옛날에 심어서.

(3) 콤대사니 / 대사니 - 마늘

(4) 부루

: 향초라는 하는 거 여름때, 봄 때 먹는 것이 그 이제 저 부루. 향초보고 부루.

(5) 패마농 - 파

(6) 썩마농

(7) 유지 - 유자

(8) 변굴

: 변굴, 아주 잔잔한 거. 변굴이란 거 있고, 그것을 대부분 옛 어른들은 심어서 나무로 이제 수확해서 겨울에 이제 마루방 밑에다가 저장해 뒀다가 제사 때 꺼냄에 쓰고 했지.

(9) 콩나물 / 콩노물

(10) 고사리

(11) 난지 - 냉이

(12) 드르늑물

: 드르에 강, 배추만이 맛이 어서. 배추보다 맛이 어서 / 드르에 나는 늑물.

4.2 농기구

(1) 잠대

: 농우가 이시른 농우에 부속된 기구가 이제 잠대.

① 멩에

: 밧가는 것이 소에 씌우는 것을 멩에 이것이 낫져야. / 쉼에 이제 끼우는 거.

② 양주머리

: 사람이 영 잡양가는 거.

③ 보섭

: 땅 파는 거 / 밧을 가는 부분

④ 벳

: 보섭이 땅 파젠 허민 즈동적으로 올라와라그네 그 벳으로 그 밧 일어놓는 거 / 벳과 보섭 부분만 쉼부치고 나머지는 다 나무.

⑤ 목클

⑥ 성해

: 소가 크기 때문에 높아서 깊이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깊이 갈거나 얇게 갈도록 조정.

⑦ 설치

⑧ 설치세역

⑨ 돌벙이빨

⑩ 오리목

⑪ 솜비줄

⑫ 좁개 - 뒷덜미 목에 끼우는 것

⑬ 부림패

: 사람이랑 밧줄로 연결. 사람이 가린석 부림패를 잡고 밧을 간다. 소의 방향을 잡아주고 일하기 싫어할 때 때려주는 등의 역할을 함. 한쪽 뿔에는 부림패, 다른 한쪽 뿔에는 가린석.

⑭ 가린석

(2) ㄱ레

: 갈아먹젠 허는거. 사람이.

① ㄱ레즈룩

: (손에 영 잡아 돌리는거 뭐렌헨 마썸?) ㄱ레즈룩

(3) 호미

: 농사를 지어서 거둬들이는 것은 이제 육지에선 낫이라고 하지마는 여기선 호미.

(4) 굴갱이 / 골갱이

: 육지부에서 호미라고 하는 것은 여기말로 굴갱이라고 하거든. 호미로 이제 많이 거둬 들이고 농사를 지으면은 굴갱이 김매는 것을 김질맨다고, 김질 맨다고 하면은 이제 굴갱이 가져강 김질매고.

(5) 방아

: 방아, 남방아, 쌀을 막 지어만들고이. 저것(남방아)은 집에서 허는거고.

(6) 돌방아 / 돌방에

- : 돌방아가 잇주게. 돌방아는 큰 둥고롱한 돌로 영 둥그리는 거. 소
나 말이나 매영 둥그리거든.
- (7) 도깨
: (다 익영 행오른 떨어뜨려야 될 거 아니꽈?) 걸보고 이제 육지에
선 도리깨라고 하는데여기선 도깨.
- (8) 맥다리
: (튀비날른 거 기구도 이수꽈?) 맥다리께. 맥다리. 겨울에는 가장
이 다 짜가지고 만들어 두지.
- (9) 연자방아
: 연자방아에 낚서 두들려서 곡식을 털어내주.
- ① 틀목
: 방애에 돌 움직이지 못하게 대구리 딱허게 영행싸그네 영 드물리
는 거 곶아 틀목
- ② 방엿돌 - 우착 - 윗돌
- 알착 - 아랫돌
- (10) 멍석(덕석)
: 도깨할 때 꼬는 거.
- (11) 남방애
① 방애께 : 두드리는 거
② 방애톡 : 돌을 가운데 둥글락허게 놓는거
- (12) 보리클개
: 말제에 영 홀트멍 험맨 보리클개. 이레영 보리헤당 탁 허른 고구
린 저레 나가고 나오른 우리가 영 행 영 데껴불곡.
- (13) 샅
: 갈레죽 (-나무로 맨튼) 에서 발달 된것이 수검푸에서 이제는 샅.
- (14) 벤줄레
: 낭으로 불랑 돌 일르는 것. 외가달로 하는 것. 밧가는 것. 암석을
들르는 것.
- (15) 따비
: 땅을 일구는 것. 장기로 못하는 것. 새밭을 가는 것

(16) 못괭이 / 못괭이

: 둘러맹 파는 것. 돌도 파네고. 땅 파는 거.

(17) 삼태

: 네개 반듯행. 돌 들르는거.

(18) 걸채(=삼채) / 굴채

: 곡식 푸끄는 형식. 보리 같은거 운반하는거. 작지 주성 네 치는 것. 여러가지로 쓴다. / 담양 땡기고 걸름도 담고 작지도 담양 운반.

① 졸걸채 / 졸걸채

: 졸(- 산에서 나는 넝쿨잎)로 엮은거.

② 대걸채

: 대나무로 만든 걸채

(19) 또꺾(방아꺾)

: 마당질 허는 것

(20) 작데기

: 저스는 것. 박박긋는데 쓰는 것. 마당 가달 두개 돌은 나무로 맨든 거. 위로 두드렁 확대쓰는 거.

(21) 보리틀

(22) 제자리 - 나무 깎는 도끼

(23) 푸는체

(24) 설레

(25) 맥

: 옛날 전부 집에선 맥. 손으로 엮어그넝 집집마다 그런게 해주기 그 즈비는 이녀냥으로 맨드는 거 즈비 요즘보면은 푸데 달몬거 푸데주. 맥이엔 헌건 영 동시렁 허게 허영 우는 이렌 터지고 이 알론 영 돌아가명 영 막아지곡 행 일로 영 동시랑 일로 짓고 일로 영 돌아가명 막아지곡. 이거 곶아 맥, 보리도 담고, 조도 담고 오곡을 다 담주게. 맥에도 담고 마구리에도 담고.

(26) 마구리

(27) 질메

: 소우에 석왕 소에 낳 실렁 땡겨주. 소 등때기에 낳 실르고.

(28) 진패

: 사람들은 째엿. 배 보짱 다녔주 베로헿. 질다고 진패라고.

(29) 두지

: 낭으로짱 하엿 것들이 잇어 대부분 거기서 돈잇은 사람은 거기서 대부분 보관헿지.

(30) 항

: 조금만 담을 땐 우리 할머니 항이 셋거든 항골은 곳에 담앗고 또 맥에랑.

(31) 멩텅이 - 떡둥구미. 망테기.

(32) 걸름착

5. 축산업

5.1 가축

1) 돼-소

우리 제주도에서 원래 기르는 소는 색깔만 모색만 각각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빨도 잇고 다 몸체가 비슷해.

(1) 종류

① 검은돼

: 또시 검은돼는 검은 것이 또시 흰 그뭇이 그서지는 거.

② 노랑돼

③ 어럭돼

: 어럭돼라고 하는 것은 검은어럭, 노랑어럭하믄, 그 노란 발간 색깔에 흰 그림이 그려지는 거.

④ 속돼

: 검은털광 노란털을 섞어서 색깔이 나오는 것은 속새.

(2) 나이 세는 법

① 금송

: 어떤 송아지보고는 송아지 새끼렌 허고 1년생 송아지면은 그 금송. 금송아지 목장에 우리가 공동목장에 밧 놔뵤 올라면은 여름 때에다가 풀잎아예 더워서 송아지가 숨어잇거든. 큰냥. 근데 가면은 찾지를 못하거든. 그럴 때에 그 소를 관리하는 목간보고 "우리 금송아지 봐집데강?" 1년생 허는 것은 금송.

② 다간 - 2년생

③ 사릅 - 3년생

④ 사릅 버금부터는 나릅, 그 우에부터는 나릅, 다습, 9습(·2개.)

(3) 성

① 금송암송아지, 금송부릉이.

② 다간암송아지, 다간부릉이.

③ 사릅암송아지, 사릅부릉이.

2) 물-말

(1) 종류

① 적다말

: 적다라고 하는 것은 붉은 물.

② 백물

: 백마라고 하는 것은 흰 물.

③ 청충이

: 청충이라고 하는 것은 검은거와 흰 털을 섞어진 걸 청충이.

④ 월나물

: 월나물은 노란털에다가 흰 털이 베기는 거.

⑤ 가라물, 검은물

(2) 나이 세는 법

① 금송몽아지 - 1년생

② 이수 몽아지 - 2년생

③ 삼수 몽아지 - 3년생

④ 옥(·2개)아가면은 사수, 으(·2개)수. 그렇게 허지.

⑤ 수라고 하는 것은 물이면은 수라면은 옥수매, 칠수매 이렇게 헤여.

(3) 성

① 즈매

: 물은 즈매라고 허는 것은 암놈을 말하는 거고 우매라고 하는 것은 숫놈을 말해.

② 우매

3) 돼야지

(1) 종류

① 어럭돼야지

: 도야지도 어럭돼야지 하면은 흰 것에 이제 검은 털이 붙은 것이 어럭돼야지.

② 검은돼야지

4) 개

5) 닭

5.2 축산업 관련 기타

(1) 출

: 말이나 소를 맥일 수 잇은 것은 공통적으로 출이라고 허여. (다른 풀갈양은 출이렌 안헤마씨?) 아니. 일체적으로 말이나 소를 맥이 자고 뜻어온 것은 출이라고 헤. 출에는 겨울에 월동시기전 겨울에 메길 출은 목장에 가서 허는디 제일 좋은 출이 지름소쇄. 조금 강한 풀이 이제 대죽소쇄. 그런 그 두가지가 잇지. 다 잡풀이 잡풀이 설어지지. 다른 출로만 해당 먹엇주. 건초로만.

(2) 목장

: (소영 말이영 어디서 키워마씨?) 목장.

(3) 솔

: 소 굶어줘서 진드기 구제를 중점으로 해서 진득, 밀거지, 진드기, 그것을 이제 톱니바꾸 닦은 걸로 이렇게 굶어주거든. 그것줄아 솔.

(4) 췌석

: (소 관리하는 거 딱 거 어서수파?) 소 어디 들에서라고 잡을 수 잇은 그 저 베, 밧줄이. 그런 거 필요한거고 췌석 (췌석은 또 뭐 파?) 췌석이라고 하는 것은 췌 메는 뿔에 영 묶어진 거. 영 산에 갈 때에는 그 하시 필요성이 이실 때가 잇주게. 소가 어디 아프든 가 어떨 때는 잡아오라 하거든. 그럴 때는 밧줄보고는 알가미, 알 감.

(5) 안장

(6) 통시

: 돼지는 어디서 질르는고 하나까 통시.

6. 기타

6.1 신체부위

(1) 상머리

: 머리. 이 상처를 보면은 이제 가마잇은 디를 허면은 상머리라고 허고.

(2) 임덩이 / 이멩이

: 이마보고 임덩이.

(3) 목배

: (목을 가리키며) 여기 이거 목, 목배.

(4) 풀고비 / 풀꾸비 - 팔꿈치

(5) 귀마리 - 복숭아뼈

- (6) 허벅다리 - 허벅지
- (7) 종에 / 종애 - 종아리
- (8) 독머리
: 무릎팍보고는 독머리.
- (9) 뒷북배 - 뒷목
- (10) 뒷대가지 - 뒷머리
- (11) 더멩이 - 머리
- (12) 빼얌 - 뺨
- (13) 불기
- (14) 턱아리 - 턱
- (15) 모가지 (앞, 뒤) - 목
- (16) 독지 - 어깨
- (17) 팔 - 팔
- (18) 등멩이 - 등
- (19) 영치 - 골반
- (20) 준등 - 허리
- (21) 발뒤척 - 발꿈치
- (22) 귀마리 - 발뒤축
- (23) 영둥이 - 엉덩이
- (24) 세 - 허
- (25) 가슴짱 - 흉골
- (26) 독무릎 - 무릎
- (27) 쇠름목/ 괴름목 - 손목
- (28) 좃쟁이 - 겨드랑이
- (30) 손등멩끼 - 손등
- (31) 손콍이 - 손뚱
- (32) 발콍 - 발뚱
- (33) 발등멩이 - 발등
- (34) 오무승이 - 오목가슴

- (35) 귀통이 - 귀밀
- (36) 눈두께 - 눈꺼풀
- (37) 꼴뚝
- (38) 꺾봉 - 꺾볼
- (39) 포리짐 - 주근깨
- (40) 녀싸움 - 여드름
- (41) 초기 - 검버섯

6.2 친족호칭

(1) 당조할머님

: 당조할머님은 당은, 당조라는 건 당헌거. 예를 들어서 나여의 아버지의 아버지가 이제 당조가 되고 나 아버지의 할아버지는 또시 나의 징조가 되고 그 옷대로부터는 댓수로 제4대, 5대, 6대 이렇게 이서, 건 생존해 계실 수가 없거든. 고고조 꼬장 제사를 봉헌고 다음에는 지제를 해서 이제 참배, 시제를 바꾼다.

(2) 하르방, 할망

① 어린아이

: 하르방, 할망, 아방, 어멍

② 어른 : 큰할아버님 - 셋할아버님 - 작은할아버님

: 우리 성장한 사람들이 말을 할 때는 절대 님을 붙이고.

③ 학생 : 큰 하르방 - 셋하르방 - 죽은하르방 - 말젓하르방(4) - 죽은말젓하르방(5) - 죽은하르방(6)

(3) 아버님, 어머니

: 아버지는 그 때는 아버님, 어머니는 어머니. 그거는 아주 정확한 표준어.

(4) 아방

: 부른 것이 부부간에는 남편보고는 누계아방이엔 하거나 게 아님 보통적으로는 또시 아방.

(5) 큰놈(-년) - 셋놈(-년) - 작은놈(-년)

(6) 큰형 - 셋아시 - 작은아시

(7) 가시아방, 가시어명

: 내가 처가댁에 가서 이제 그 요지금 표준어기 장인인데 우리가 지금 가가지고 처음 제주도 사람들이 불렀을 때는 가시아방, 가시어명 뭐 이런 식으로.

(8) 처남

: 부인네 오빠는 처남 건 마찬가지로. 처아지망 마누라의 동생이나 웃동생이나 허믄 우리 큰 처아지망 밑에 허민 작은처아지망 이런 식으로.

(9) 조캐

: (할아버님네 형님네 자식들 곱앙 뭐렌헨 마썸?) 건 조카라고 허지. 조카라고 허는 것이 다 보통적으로 조캐, 조캐 허여.

(10) 여편웨삼춘

: 외삼춘의 부인

(11) 소나이웨삼춘

: 외삼춘

(12) 고모부

(13) 큰메누리(큰사우) - 셋메누리(셋사우) - 작은사우

(14) 이모, 이모부

6.3 수량단위

1) 양

(1) 근

: 양재는 건 짐작으로 옛 사람들은 그 저울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도야지를 잡아서 그 고기를 나눠 먹는 것은 보고 추렴이라 허거든. 추렴, 그럼 돼지를 딱 잡아다 요건 하나 딱 들르믄 손에서 감이 딱 요건 멧근, 멧냥 될로고 이렇게 요지금은 키로로 나오는

데 보리는 뗏박으로, 싹 쓸어서 허지게. (뗏박은 다 똑고튼 크기 파?) 응 게나네 뗏가 옥쨤기가 잇거든. 집에서 밥 지을 때에 쌀 거려놓는 옥쨤기, 요만한 것이 잇는데 네 대가 혼말, 그러면은 네 대가 혼말이면 요건 옥쨤기로 열이 되거든. 그래서 혼말. 고구마는 가마시로, 가마니로, 가마니나 걸름착해서 거 뺨비날르는 거. 맥다리, 그런걸로 가늠해서 이견 얼마. (뺨비날른 거 기구도 이수 파?) 맥다리계. 맥다리. 겨울에는 가장이 다 짜가지고 만들어 두지. (가마니는 어느 만큼 들어가마썸?) 키로수로 혼가마니 혼 50Kg 나갈꺼라.

- (2) 냥
- (3) 뒤 - 되
- (4) 말
- (5) 가마니
- (6) 맥다리

2) 물건을 셀 때

- (1) 흐나
- (2) 들
- (3) 셋
- (4) 넷
- (5) 다섯
- (6) ㄹ(·2개)섯

3) 날짜

- (1) 흐르
- (2) 이틀
- (3) 사흘
- (4) 나흘
- (5) 닷새

(6) 옷(·2개)세…….

6.4 날씨관련어휘

1) 바람

봄바람에는 이제 동풍이나 이렇게 불면은 비가 온다고 허고이, 가을바람은 남풍, 남풍을 불면은 당일 비온다고 허. 천기를 보는 것을 구름을 내다보면서 날씨가 이것이 무슨 바람이고, 바람일고 허는게 아니라 바람, 셋바람이여, 마바람이여, 늑바람이 허주.

- (1) 셋바람 - 동풍
- (2) 마바람 - 남풍
- (3) 늑바람 - 동북풍
- (4) 하니바람 - 북풍
- (5) 셋바람 - 서풍

2) 비

- (1) ㄱ랑비
: 비가 너슬너슬 오는 걸 보고 ㄱ랑비라고 허주. ㄱ랑비가 온다.
- (2) 큰 비
: 많이 올때는 큰 비. 오늘 큰 비오라서 경허여.

6.5 지명 관련어휘

- (1) 벳빳
- (2) 골계미 - 토성, 장수물
- (3) 능선이
- (4) 동시굴
- (5) 갈치동산 (까치동산)

- (6) 도르묵
- (7) 셋동네
- (8) 자구나미동네
- (9) 가시물
- (10) 덩태동산
- (11) 버드낭밭
- (12) 말왓
- (13) 포젯단
- (14) 소지동산
- (15) 번데왓
- (16) 종나미굴
- (17) 용돌밭(용틀밭)
- (18) 염소믈
- (19) 독고믈
- (20) 종내미를
- (21) 서툼밭
- (22) 셋우영
- (23) 앞밭물통
- (24) 건낫물
- (25) 가마귀드루

민 요

〈 목 차 〉

- | | |
|-------------------|--------------|
| 1. 검질매는 소리 | 2. ㄱ레ㄴ는 소리 |
| 3. 마당질 소리 | 4. 밧볼리는 소리 |
| 5. 남방에 소리 | 6. 진토긋 파는 소리 |
| 7. 낭쁜는 소리(달구질 소리) | 8. 행상 소리 |
| 9. 자장가 | 10. 동요 |

1. 검질매는 소리

- ① 조사일자: 2002년 7월 27일
제 보 자: 고승렬 할머니(82세)
조사장소: 장전마을 노인회관

아하에헤야~~어허야~~ 허영어허야
허어어~ 어허어허~ 허어어
어이 도래랑
사데로고낭 얼싸
금자동아 옥자동아 모시맹지 비단동아
천지건곤 일월동아 학도뜨고 봉도뜨고
광주남산 줄불르는
소리로구나 얼싸
아하에헤야~~어허야~~ 허영어허야
허어어~ 어허어허~ 허어어
어이 도래랑
사데로고낭 얼싸

이나무 저나무 아진배기
 진달래꽃 양재목 서나무타고
 이산구경 홍글망글, 홍글망글
 들어오는 소리로구나 얼싸
 아하에해야~~어허야~~ 허영어허야
 허어어~ 어허어허~ 허어어
 어이 도래랑
 사데로고냥 얼싸
 주똥똥 배아피는 완방진방
 들어오고 비옥간장 썩은물은
 골골마다 느리는 소리로구나 얼싸

② 조사일자: 2002년 7월27일
 제 보 자: 양춘화 할머니(70세)
 조사장소: 잠전마을 노인회관

㉠ 어~길 허~라 어~어라 사데⁵⁾로구나
 어~일 ~허~라 성 사데
 앞명⁶⁾에랑 들어나오라
 뒷명⁶⁾에기랑 나고나 가라
 검질 짓꼭⁸⁾ 굴 너진 밧딤⁹⁾
 허진 술엔 물 좇아간다
 허~일~허라 ~성 사데
 언제나면은 요검질 다매코
 손은 개도라 눈은 와이마
 어~일 ~허~라 성 사데
 검질 짓꼭 굴너진 밧딤
 어느제나~면 다 매어간다마

-
- 5) 검질 매는 소리, 사디소리라고도 함
 6) 눈 앞에 보이는 발머리
 7) 발 매는 이의 자세로 보아 등뒤에 놓인 발머리
 8) 검이 많고
 9) 꼴이 넓은 밧에

요 발 검질도
오닐날은 굽은 갈라간다

㉔ 에~헤야 어허어허어~ 어호어~ 어호호야아~
에 에헤이헤이헤~ 어~어호~허~에헤~하아
어허어허~허허~도래 헤이어 호랑
사데~로~넘어간다
어~길 혀~라 어~어라 사데로구나
열남난 과부가 스물 남난 과부를
찾으레 가나도
금강산으로 찾아가는 소리여
얼싸~넘어간다
에~헤야 어허어허어~ 어호어~ 어호호야아~
에 에헤이헤이헤~ 어~어호~허~에헤~하아
어허어허~허허~도래 에헤이어 호랑~
사데~로~넘어간다
에~헤야 아 성사데
파라파라 깊이 파면 물이나고
얇이 파면 (청취불능)이 난다
매역국¹⁰⁾을 먹었는가 민질민질
ㄱ시락¹¹⁾을 먹었는가 꺼끌꺼끌
얼싸~넘어간다
이 굴락 저 굴락 야산 밤중에
호랭이 저 소리에 제여편이 (청취불능)

2. ㄱ래 ㄱ는 소리

① 조사 일자: 2002년 7월 27일

10) 미역국

11) ㄱ스락, 까끄라기

제 보 자: 고승렬 할머니(82세)

조사장소: 장전마을 노인회관

이여~이연~ 이여도 허랑
 ㄱ래 나는 지남석 ㄱ래
 지남석도 모다나 들면
 개별나는구나¹²⁾
 강남닥은¹³⁾ 소리로 좋더라
 나 소리를 산 넘어 가라¹⁴⁾
 이연 이연~이여도 허랑
 나 소리를 물 넘어 가라
 집인 들면 정ㄱ래 소리
 물엔 들면 숨비질 소리
 꽃인 가면 우김새 소리
 이연~이연~이여도 허랑
 간간 놀젠 늬의 첩들영
 소나무 바람은 소린 나도
 살을매 없구나¹⁵⁾
 서른 넘어 무슨 날에 날 나건
 나 전심이 나를 울려
 고치장 단지가 맵다흔들
 시집살이 보다 더 매우라
 이연~이연~이여도 ㄱ래
 장독 ㄱ튼 시아방넘에
 암톡 ㄱ튼 시어멍넘에
 이연~이연~ 이여도 허랑
 물꾸럭 ㄱ튼 서방넘에
 살자흔니 고생이 말 못 호고

12) 개별구나

13) 강남닥은

14) 내 노래야 산을 넘어가라

15) 살 도리가 없다

죽자하니 청춘이여
날랑 죽건 옥산에 묻고
임이랑 죽건 청산에 묻영
청산옥산 흐르실 망정
우리 둘 므음이랑 변치나 말고
잘 살아 보자
잘 살아 보자

- ② 조사일자: 2002년 7월 27일
제 보 자: 강춘호 할머니(81세)
조사장소: 장전마을 노인회관

이~여 이~여 이~어~도 허랑
ㄱ래 보난 지남석이여
이~여 이~여 이~어~도 허랑
질긔 밧딕 도실¹⁶⁾랑 심경
가는 사람 오는 사람
익어시나 하나 설어시나 하나
맛 뵈시난 빈 냥¹⁷⁾만 남아십디다
이~여 이~여 이~어~도 허랑
설운 나 애기 울지마랑 놀암시라
요 ㄱ래 ㄱ랑 죽썩 주마
이~여 이~여 이~어~도 허랑
나 ㄱ래 놀래랑
산 넘영 가고 물 넘영 가라
이~여 이~여 이~어~도 허랑
저런 어머니 나를 무사 낳앙
요 ㄱ래 꼴렌 시집 보넵디가
이~여 이~여 이~어~도 허랑

- ③ 조사일자: 2002년 7월 27일

16) 복숭아나무
17) 나무

제 보 자: 이수녀 할머니(74세)

조사장소: 장전마을 노인회관

이연~이연~이여도~호랑
그레 나니~지남석 그레
요 그레야~어~질긴 척 말라
녹악 그튼~나 어깁 어정
(칭취불능) 치더라

3. 마당질 소리

① 조사일자: 2002년 7월27일

제 보 자: 강춘호 할머니(82세)

조사장소: 장전마을 노인회관

어허 흥아 허허~
조차 드령 흥 따려보자
어허 흥아 허허~
요것도 따릴 거 저것도 따릴 거
조차 드령 따려 보자
어허 흥아 허허~

② 조사일자: 2002년 7월27일

제 보 자: 고승렬 할머니(81세)

조사장소: 장전마을 노인회관

어허 흥아~~어허도 흥아
요것 들이 생겨경 조차 돌명 따려보자
어허 흥아~~어허도 흥아
물러사명 따려보자

어허 흥아~~어허도 흥아
올라사명 뜨려보자

어야~~흥아 에에 흥아
요거여 저거여 애리고 때리자
어야~~흥아 에에 흥아
요것도 생곡¹⁸⁾이여 저것도 생곡이여
어야~~흥아 에에 흥아
앞뜰에 물러사명 때리고 때리자
어야~~흥아 에에 흥아
요거야 저거야 므큰므큰 때려보자

4. 밧 불리는 소리

- ① 조사일자: 2002년 7월28일
제 보 자: 강춘호 할머니(82세)
조사장소: 장전마을 노인회관

어러러러~~~~어러러럴
요 몰더라 불라란 디 붉지 말앙 즈근즈근 불라도라
어러러러~~~~어러러럴
요 몰 저 몰 혼저 걸으라. 일랑 초장에 해지기 전에 혼저 불령 가계
어러러러~~~~어러러럴

- ② 조사일자: 2002년 7월28일
제 보 자: 고승렬 할머니(81세)
조사장소: 장전마을 노인회관

어러러러 어러러러 어러~어러~러러~~어러러러~~~ 해~~해~~~ㅎ

18) 덜 타작된 이삭

량하라

요 산중에 놀던 므시덜 달랑 달랑 걸어드라 잠깐 전 쉬왔져
어러러러 어러러러 어러~어러~러러~~어러러러~~~ 해~~해~~~ㅎ

량하라

노픈 디랑 핑지¹⁹⁾똥게 불라드라
어러러러~에~아~허~랑~하랑
요몰 조몰 요몰더라 혼저 걸으라
어러러러~에~아~허~랑~하랑 어러러~~~롤롤롤
서북맹이가 점어 감쳐
물 막아지구나
어러러러~에~아~허~랑~하랑 어러러~~~롤롤롤

③ 조사일자: 2002년 7월28일

제 보 자: 양춘화 할머니(70세)

조사장소: 장전마을 노인회관

요 밧이더랑 노픈 동산만 불라도라
오허허~~허랑~~하랑
요 므시돌아 이래저래 가지 말곡
노픈 동산 불으멍 어러러 돌돌

5. 남방에 소리

① 조사일자: 2002년 7월27일

제 보 자: 고승렬 할머니(81세)

조사장소: 장전마을 노인회관

이어도 허랑~~이어도 허랑
가시오름²⁰⁾ 강당장²¹⁾ 집이 식콜방애²²⁾ 새글럼서라²³⁾

19) 핑지

이어도 허랑~~이어도 허랑
전생 곳인 이 내 몸 가난 니콜방애²⁴⁾ 새맞아 간다

6. 진토곳 파는 소리

- ② 조사일자: 2002년 7월28일
제 보 자: 진성호 할아버지(82세)
조사장소: 장전마을 노인회관

이야호~~어허어허~ 어허허~~어~야
이야호~~어허어허~ 어허허~~어~야
술기로구나 이야호호~~
산천초목 젊어가고
인간칭춘은 늙으면 간다
언젠가는 우리도 가면 이모양이군
젊어 질 적에 실컷 놀곡 실컷 먹자
노래 좋은 노래에다
은방맹이 금방맹이
노래랑 좋은건 노래 부르자

7. 낭끈치는 소리(달구질 소리)

- ① 조사일자: 2002년 7월28일

-
- 20) 지명, 표선면 가시리 소재
21) 강당장은 가시리의 제일가는 부자였는데 너무 인색했기 때문에 갑자기 망했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22) 제주도 특유의 남방애를 세 사람이 짊을 경우
23) 두 사람이 남방애를 짊을 경우, 그 사이가 어긋나서 어울리지 못하고 있더라
24) 넷이 짊는 남방애

제 보 자: 고남노 할아버지(92세)

조사장소: 장전마을 노인회관

요 산중에 놀던 냥아
냥겨나니 물둠비여
주적새랑 놀고가라
이 나무 벌러보다가
우리집에 들판으로
우렁우렁 끄서다가
대들보를 만들겠다
영~~얼화로다

② 조사일자: 2002년 7월27일

제 보 자: 고승렬 할머니(82세)

조사장소: 장전마을 노인회관

써두리로 덜어마
냥 끈나니 물둠비나
어어두리 덜어마
잘도나 깨어진다
잘도나 깨어진다
써두리로 덜어마
산물상이 나 소리에 벌러지어 간다
써두리로 덜어마

8. 행상소리

① 조사일자: 2002년 7월28일

제 보 자: 진성효(82세), 안태영(76세), 고남균(70세), 고남노(92세),
강량표(75세)

조사장소: 장전마을 노인회관

- | | |
|--------------|-----------------|
| A) 영허야~~얼화로다 | B) 간다간다 나는 간다 |
| A) 영허야~~얼화로다 | B) 저 세상으로 나는 간다 |
| A) 영허야~~얼화로다 | B) 자자 손손 다 버리고 |
| A) 영허야~~얼화로다 | B) 이웃 스촌 다 버리고 |
| A) 영허야~~얼화로다 | B) 펜안훙게 잘 살으소서 |
| A) 영허야~~얼화로다 | B) 일가방상 마을 어른 |
| A) 영허야~~얼화로다 | B) 펜안훙게 잘 지내소서 |
| A) 영허야~~얼화로다 | B) 남한일대 최고봉인 |
| A) 영허야~~얼화로다 | B) 사시사철 변함없이 |
| A) 영허야~~얼화로다 | B) 봄이 되면 파란옷을 |
| A) 영허야~~얼화로다 | B) 아름답게 차려 입고 |
| A) 영허야~~얼화로다 | B) 여름이면 백록담에 |
| A) 영허야~~얼화로다 | B) 뭉게구름 꽃구름이 |
| A) 영허야~~얼화로다 | B) 등실등실 떠오르고 |
| A) 영허야~~얼화로다 | B) 가을되면 단풍잎이 |
| A) 영허야~~얼화로다 | B) 빨간 옷을 아름답게 |
| A) 영허야~~얼화로다 | B) 곱게곱게 차려입고 |
| A) 영허야~~얼화로다 | B) 겨울들면 우리나라 |
| A) 영허야~~얼화로다 | B) 백의민족 한~라산에 |
| A) 영허야~~얼화로다 | B) 하얀옷을 곱게곱게 |
| A) 영허야~~얼화로다 | B) 아름답게 차려입고 |
| A) 영허야~~얼화로다 | B) 한라산도 영원토록 |
| A) 영허야~~얼화로다 | B) 누누만년 잘 지키소서 |
| A) 영허야~~얼화로다 | B) 영주십경 지은 선생 |
| A) 영허야~~얼화로다 | B) 성산일출 사봉낙조 |
| A) 영허야~~얼화로다 | B) 영실기암 녹담만설 |
| A) 영허야~~얼화로다 | B) 산방굴사 정방폭포 |
| A) 영허야~~얼화로다 | B) 굴림추색 고수목마 |
| A) 영허야~~얼화로다 | B) 산포조어 영구춘화 |
| A) 영허야~~얼화로다 | B) 누누만년 지키소서 |

9. 자장가

- ① 조사일자: 2002년 7월27일
제 보 자: 고승렬 할머니(82세)
조사장소: 장전마을 노인회관

왕이 자랑 왕이자랑
우리 아기 재와도라
느네 아기 재와주마
아니 재워 주민
총베로 걸렁허영
천지솥에 들이도령 내리 도령
왕이 자랑 왕이 자랑
자랑자랑 왕이 자랑
가정에 화목한 자손이
나라에 효도할 자손이구나
우리 아기 잘도잔다
싱글싱글 잘도잔다
왕이 자랑 왕이자랑
돈물멕영 키와줍써
돈밥멕영 키와줍써
넋신 할마니 넋 들이멍 키와줍써
구덕 할마니 무럭무럭 키와줍써

- ② 조사일자: 2002년 7월 27일
제 보 자: 이수녀 할머니(74세)
조사장소: 장전마을 노인회관

자랑 자랑 왕이 자랑 왕이 자랑
어진 할망 손지 어서 자라 어서 자라
할마님이 이 얘기를 잘 재와줍써 잘 키와줍써
넋이 날망 넋 들이고 혼시 날망 혼 들이멍

물웨 크듯 참웨 크듯 딸뭇딸뭇 크게 흐여줍써
부모에도 효도하고 일가 방상 화목흐실 아기로구나
자랑 자랑 뵘이 자랑 뵘이 자랑
우리 아기 재와드라 느네 아기 재와주마
아니 재와 주민 설진설진 총배로 야?매기 걸려매영
지폰지폰 천지술에 들이쳤당 내쳤당 흐키여

10. 동요

- ① 조사일자: 2002년 7월27일
제 보 자: 고승렬 할머니(82세)
조사장소: 장전마을 노인회관

까마귀야 까마귀야
말 잘하는 검은색이
춤 잘 추는 행도래기
너희집은 어디러나
산도 좋고 물도 좋은
경치 존곳 살았노라
나각쟁이랑 하달말고
너네 잘 살아라
까마귀 까약 생이 좇아
행경아긴 친떡훈 빗 또라
늑먹져 늑먹져 갈아먹져

- ② 조사일자: 2002년 7월28일
제 보 자: 진성효 할아버지(82세)
조사장소: 장전마을 노인회관

옛날 뒷날

환상보리²⁵⁾ 한 뿔 타단
 양작고래²⁶⁾에
 별작²⁷⁾노래에
 달음 달는²⁸⁾ 족박에
 밭²⁹⁾보는 집에
 멍덕 갈안
 밥은 한남³⁰⁾ 조그만
 아방 한 적³¹⁾
 어멍 한 적
 아덜 한 적
 메누리 한 적
 아방은 적으³²⁾
 어멍을 따리³³⁾
 어멍은 용심 나³⁴⁾
 아덜을 따리³³⁾
 아덜은 용심 나³⁴⁾
 지 각³⁵⁾ 따리³³⁾
 지 각³⁵⁾ 용심 나³⁴⁾
 개³⁶⁾ 따리³³⁾
 개 용심 나³⁴⁾
 고양이³⁷⁾ 무³⁷⁾

-
- 25) 빌려다 먹고 농사지어 되잖는 보리
 26) '양작'은 어린애가 울부짖는 모양. 곡식이 없어 빈 뿔들이 돌아가느라 요란한 소리가 나는 것을 비유함
 27) '별작'은 몸부림. 노래소리를 몸부림으로 비유함
 28) 달음질 치는
 29) 별
 30) 밥을 하니
 31) 아버지 한 순갈
 32) 적으니
 33) 때리니
 34) 화가나서
 35) 자기 아내를
 36) 개를
 37) 고양이를 무니

고냥인 용심 나난
중일 무난³⁸⁾
중인 용심 나난
조쿠덕을 쏟아부난³⁹⁾
닭배 소구베⁴⁰⁾ 닭배 소구베
경 허드라⁴¹⁾ 험니다

11. 창부 타령

① 시집살이 노래

조사일자: 2002년 7월 28일
제 보 자: 이수녀 할머니(74세)
조사장소: 장전마을 노인회관

성님 성님 사춘 성님 시집살이가 어뭇데가
아이고 애야 말도나 말라
고치장 단지가 맵다흔들 내 시집보단사 더 매우라
암탁 ㄱ튼 시어명에
장탁 ㄱ튼 시아방에
물구럭 ㄱ튼 소나이에
줄락 ㄱ튼 시아주방눔에
모지리 ㄱ튼 시누이년에
살자고 하니 속이 탄다
얼씨구나 좋다 지화자 좋다 아니 놀지는 못 흐리다
살자하니 고생이고 죽자하니 청춘이요
얼씨구나 절씨구 지화자 좋다구나 아니놀지는 못 흐리다

38) 쥐를 무니

39) 좁쌀 구덕을 쏟아버리니

40) '소구베'는 '숙에'. 닭이 쏟아진 좁쌀을 다 쪼아먹어버렸다는 뜻

41) 그리 하더라

② 청춘가

조사일자: 2002년 7월 28일

제 보 자: 강춘향 할머니(75세)

조사장소: 장전마을 노인회관

청춘하늘에 천길도 많고요
우리 이 가슴엔 잔 수심도 많구나
아하~~날 데려 가세요
날 모시고나 가세요
돈 좋구나 맘 좋은 님 좋다
날 데령 가져라
데리고 가자니 (청취불능)
두고서 가자하니 좋다 차마 내사랑

③ 참부 타령

조사일자: 2002년 7월 28일

제 보 자: 박연옥 할머니(72세)

조사장소: 장전마을 노인회관

노세 놀아 젊아 놀아 늙어나 지면 못 노나니
화무는 십일홍이여 달도 차면 기우는다
얼씨구나 좋다 절씨구나 아니 놀지는 못 흐리다
저 산 앞이나 푸습새는 해년마다 풀잎 따러
우리네 인생은 한번 가면 만수정님의 원무로다
얼씨구나 좋다 절씨구나 아니 놀지는 못 흐리다

④ 뽕타령

조사일자: 2002년 7월 28일

제 보 자: 진성효 할아버지(82세)

조사장소: 장전마을 노인회관

뽕 뽕 장서방 뽕을 먹고 사느니

아로롱이 바지에 아로롱이 저고리에
 백맹지로 동전달고 쯤지맹지 곶에 차고
 활짝 곧은 긴장위에 꺾꺾 좃어먹자 꺾꺾 좃어먹자
 삼년 묵은 풋그루에 오년 묵은
 콩그루에 등실등실 좃어먹었더니
 난디없는 박포수가 나타나서
 훈착 귀랑 자올리곡 훈착 눈을 지슬리곡
 우당탕 흐는 소리가 나던데 마는 그만 오꽃
 첫째 서방은 쏘아가 불더라
 둘째 서방을 얻어난 산장이는 사냥개 달고 오난
 그만 사냥개 입에 물려가불더구나
 셋째 서방을 얻어난 살통에 기여들언 죽더구나
 아이고지고 내 팔자야 내 스자야
 아이고 이젠 심심 산중에 올라간
 나 혼자 그럭저럭 혼 세상 살당 죽건 말젠
 심심산중에 올라간 그럭저럭 주워먹고 살았더니
 하루는 소루기눔이 오난
 느 혼자만 살지마랑 오라 나영이나 살아보게 혼난
 너는 털복숭이라서 너하고는 못 살겠다
 다음은 가마귀눔이 오란 오라 나영이나 살아보게 혼난
 너는 몸뎡이가 검서방이라서 너하고도 못 살겠다
 다음에는 춤매눔이 오란 오라 나영이나 살아보게 혼난
 너는 매하고 비들기하고 포수질 혼영 잡아먹는 놈하고도 안 살겠다
 다음엔 그럭저럭 살았더니 하루는 난디없는 귀에 익은
 소리가 짹짹 흐는 소리가 난
 아이고 옛날 우리 남편이나 살아오라싱가 혼연
 담위에 올라산 짹짹 신호를 혼여 주었더니
 그 남편이 온걸 보난 옛날 우리 남편보다
 얼굴도 더 잘 생기고 의복도 잘 츠려입고
 그런 남편을 맞아가지고 혼생전 잘 살았다합니다.

설화

目次

* 調査經緯

1. 박장군 이야기 1
2. 박장군 이야기 2
3. 장전리의 유래 1
4. 장전리의 유래 2
5. 마구수(馬口水) / 마고수(馬古水)의 유래
6. 도채비 이야기 1
7. 도채비 이야기 2
8. 도채비 이야기 3
9. 도채비 이야기 4
10. 소죽이 못(牛死池) 이야기
11. 장수물 이야기
12. 김통정 장군 이야기 1
13. 김통정 장군 이야기 2
14. 거역목 밭에 묘자리 쓴 이야기
15. 열녀 이야기 1
16. 열녀 이야기 2
17. 영천이 목사와 김녕뱀 1
18. 영천이 목사와 김녕뱀 2
19. 혼인 못한 여자가 복수한 이야기
20. 귀신 태운 운전수
21. 손자를 감주술에 빠뜨린 할아버지
22. 가사장삼에 달과 별이 그려진 유래
23. 콩이 얘기, 풀이 얘기
24. 할망당 이야기
25. 저승에서 살아온 이야기
26. 거짓말쟁이 이야기1(참새 이야기)
27. 거짓말쟁이 이야기2(소 이야기)
28. 기러기 타고 세계일주 한 이야기
29. 소똥장이 1
30. 소똥장이 2
31. 변찰방 이야기 1
32. 변찰방 이야기 2
33. 키 작은 사람이 키 큰 사람 흉내내는 이야기
34. 닳되짜리 거짓말쟁이에게 당한 한말 짜리 거짓말쟁이

調查經緯

⋮

● 제1일(7월 26일)

조사 첫날, 악천우 속에서 제보자 집을 찾아다니느라 고생했다. 할아버지, 할머니의 따뜻한 환영을 받으며 집 안에 들어갔을 때, 거실 벽을 가득 메운 갖가지 특이한 모양의 돌들과 거실 창 밖으로 보이는 배란대에 웅기종기 모여 앉은 난들에서 할아버지, 할머니의 아늑하고, 따뜻한 삶을 엿볼 수 있었다.

강태균 할아버지는 강씨 조상에 대한 이야기와 박 장군에 대한 이야기 등을 해주셨고, 열녀 이야기 등은 비문이나 다른 문서를 위주로 근거를 들어가며 말씀해 주셨다. 또 장전리 지도를 만들 때 참여하신 자료로 마을 연역을 보여주기도 하셨다.

할머니는 할아버지와는 재혼을 하셨고 할머니에게서도 이야기를 듣고자 했으나 한사코 이야기하기를 꺼리셨다.

● 제2일(7월 28일)

다음 날 많은 비가 많이 와서 마을 회관에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나오시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 제보자의 집으로 전화를 해서 연락이 되면 집으로 찾아가 이야기를 들을 계획을 했다. 그러나 날씨도 안 좋고, 제보자 분들이 다음날이 좋겠다고 하셔서 2차 조사를 나가지 못할 것으로 예상했다. 학교로 돌아와서, 저녁 때 돌아오신다는 고이언 할아버지 덕에 전화를 드렸더니 할아버지께서 흔쾌히 몸소 학교까지 오시겠다고 해주셨다.

학교에 오시고 나서 2층 설화반원들이 있는 곳으로 모시고 가다가 교수님과 인사를 나누게 되어 교수님, 선배들이 함께한 자리에서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게 되었다. 현승환 교수님 덕분에 장전리의 지명유래에서부터 김통정장군의 이야기, 장수물의 유래 등 많은 이야기를 들었다.

1. 박 장군 이야기 1

제 보 자: 강태균(남·73세)

조사일자: 2002년 7월 26일

조사장소: 제보자 자택

- 요약: 박장군이 광지리에서 담배 팔러 갔다가 뽕나무 아래에 앉아서 쉬었다. 그런데 그 곳에는 뚝들이 있는 곳으로 그 곳에 앉는 것은 큰 실례가 되는 것이었다. 그곳 한 청년이 박장군을 나무라면서 그 뚝들을 들으라고 한다. 박장군은 그 뚝들을 번쩍 들어올리는데, 이로 인해 광지리에 박장군에 관한 소문이 퍼지게 된다.

<조사자: 할아버지. 그 때 말씀해 주시던 거 중에 예. 그 박장군 얘기 한번 더 해주세요.>

그 양반이 아마 힘이 원래가 힘이 장했던 모양이라. 힘이 씨여. 근디 옛날은 우리 애월읍 관내에 광지리 담배장서 담배를 팔았거든. 그 양반이 광지리에 담배 장사를 갔다가 쉬젠(쉬려고) 뽕나무 밑에 드러누웠거든. 근디 그 뽕나무 밑에 큰 팡들이 있어서.

<조사자: 예.>

팡들이 있는데. 광지리에서는 거기서는, 그 팡들 위에서는 노는 사람이 없어. 그것이 바로 뚝들이주게. 옛날에 힘을 겨루기 위해서 쓰는 큰 뚝들.

<조사자 : 예. 뚝들.>

어, 그래. 뚝들이 있는데, 뚝들 위에 앉아버렸단 말이야. 그건 큰 실례거든. 게니 딱 지나가다가 그 부락 사름이 보니까 뚝들 위에 앉았거든. “너 왜 거기 안지나” 영 허니까, 아 할 수 없이 7만이 샷지게(섰다). 그 “남의 부락에 왔으니까. 그 뚝들을 들라”고. 이젠 담배 진 짐을 부려두고 뚝들을 들러서 허리를 패왔던 모양이라. 게나네, 광지리에서는 뚝들을 들르는 사름이 없는 뚝들인데.

<조사자: 박장군이 들러부렸구나 예.>

응. 박장군이 다 들으니. 아, 이제 “너무 장헌 사람이다”고. “그 땀들을 들어서 걸을 수가 있느냐?” 허니까. “걷기는 들짜치고, 던지기 꼬장 허 겠다”고 해서. 게나네. 아마 그 길은 높여 있고, 발은 얇인 발이었던 모양 이라. 발디 나간 집어 던져부렸거든. 집어 던져 버리니 그 마을 사람들은 그 땀들을 올려 올 수가 없어. 요지금 곧으면 뭘 증운기(거중기)도 많이 있으니까 올릴 수 있지마는. 올려 올 수가 없으니까 그 얘기 훈 사람이 사과 를 했어. 스정을 했어. 워낙 힘이 장헌 분이니까 이젠 뭘, 엎드려 받기 헤 야주게. 이제 사과를 해가지고 그 땀들을 원대로 올려 달라고 허니, 발에 던져 버린 그 땀들을 다시 그 발에서 아산 동산드레 던져버렸거든. 던져 버리니까, “당신 어디 사느냐?”, “장전, 박 무시로라” 영 허니, “아, 장전 은, 이제 장군났구나! 박장군났구나!” 그래서 담배도 이웃사람한테, 그 부 락 사람한테 다 풀어주고 행. 이득을 많이 방 왓젠하는 말이 전허여. 허 허.

2. 박장군 이야기 2

제 보 자: 강태균(남·73세)

조사일자: 2002년 7월 26일

조사장소: 제보자 자택

- 요약. 옛날 박장군이라는 사람이 남의 묘자리 밑에 묘를 썼다가 선주에 게 들켜 나무에 말총으로 묶이게 되었다.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이 ‘힘 자 랑도 한번 못하냐’고 놀리자 힘을 써서 단번에 말총을 끊어버렸다.

옛날은 조상이 돌아가셔서 묘를 쓸라고 할 거 같으면, 부사(묘자리를 보는 일인듯)를 허거든.

<조사자: 예>

부사를 허는데, 좋은 명당 자리를 보면 그 기운이 자손더래 계속 이어지는 거지. 묘지법이 달라져도 묘지금도 개별적으로 많이 할거라. 그 때는 특히나 더 해주. 박장군도 좋은 묘자리를 구하젠, 남의 선묘 밑에 가가지고서 묘를 쓰니까, 묘주가 잡아다가 말총으로 박장군을 나무에 꼭 묶어 놓았어.

<조사자: 예.>

묘주가 말총으로 이렇게 쓱쓱 감아 묶었는데, 이웃 사람이 지나가다가 뭘 말을 허는고 하니, “너는 힘은 낫당 어디 쓰겠느냐. 그럴 때 혼 번 써보지.” 그런 말을 하고 놀리거든. 정호난 박장군이 2만히 앉았다가 ‘음!’ 허니까 그 베가 다 찢라져 나가 부러어. 워낙 힘이 썩니까. 이렇게 탄탄 묶었지만은 ‘음!’ 허나네 찢라져 나가서, 켜 묘주도 겁이 나가지고 그 해결 방안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허허. 그렇게 힘이 썩여서.

3. 장전리의 유래 1

제 보 자: 강태균(남·73세)
조사일자: 2002년 7월 26일
조사장소: 제보자 자택

- 요약: ‘장전’이라는 지명 유래에 관한 이야기로서, 옛날 활을 쏘는 훈련장인 ‘사장밭’이 있었다고 해서 ‘장전’이라고 불리게 되었다.

<조사자: 그 때 말씀 해 주신 것 중에서 장전리가 어떻 행으네 장전리란 이름이 붙어신고 하는 얘기해 주셨잖아예.>

그 때 리 명은 원래는 웃어른들이 말허기를 동정리라고 했거든.

<조사자: 동정리 마씨?>

예. 동정리. 동정리라고 해서 리 명을 지을 때는 그 때는 ‘소길’하고 우리 ‘장전’하고 합리라.

<조사자 : 아~>

합리가 됐다. 예 내중에는 이제 분리하면서 '소길리'가 나오고 '장전리'가 나왔는데 장전리 형국을 우리가 모른다 말이야.

그 장전이라고 해서 리 명을 지은 것은 이곳에 사장(射場: 활쏘는 훈련장)이란 밭이 있어주(있었다). 저디.

<조사자: 아, 예, 사장팻.>

학교가 바로 저 밑으레 내려가면은 지금 감굴 선과장, 선과장이 있는데 꼬장 그 밭이 길거든. 그리 사장이라고 할 것 같으면, 육지에든 우리 제주도든 마찬가지로. 사장은 군사 훈련기지가 분명히 맞아.

<조사자: 활 쏘는디 마씨?>

예. 어쨌든가 훈련 기지라고 볼 수 있지. 그래서 각 리 별로 영 보면은 조금 거시기헌 부락에는 사장이 이서. 거 사장이란 지목을 가진 땅이 이서. 게서 우리 부락에는 저디 고성리의 김통정이 그 난시에 들어온 걸로 봐서 군사 기지가 조금 컷다 볼 수 있지. 즉 사장이 컷다는 말이주. 이렇게 해서 '긴장(長) 재(宰)를 놔가지고서, 또시 '전'은 '밭전(田)'이라고 허지 만은 '바닥전'이라고도 할 수가 이서. 그래서 이 '훈련장이다' 허는 뜻을 가진 것이 '장전'이다. 이렇게 해서 ㄱ따 부찌가지고 리명(里名)이 나오질 않 여신가 햐쥬.

4. 장전리의 유래 2

제 보 자: 강태복(남·61세)

조사일자: 2002년 7월 27일

조사장소: 장전리 마을회관

- 요약. 장전리가 원래 '마위전'이었다. 마위전은 '높은 사람이 떠는 말을 기르던 곳'이란 뜻이다.

<조사자: 여기 마을 이름이 장전인데 어떻게 해서 장전이래 이름 붙여져신가 혹시 어렸을 때, 들은적 이서 마썸?>

'장전'은 장자가 '어른장(長)'자에 '밭전(田)'자인데, 이게 원래는 '마위전(馬位田)'이주. 마위전. 이 장전이래 의미가 어디서 나오나하면, 몰마(馬)자 자리위(位)자, 높은 사람 몰만 맥여난 곳.

옛날은 김통정이가 고성에 와 가지고 주둔 해가지고 할 때, 여기서 말을 맥이고 가르치고 해서, 또 그 유사시에 적으로부터 어떤 문제가 나타나면 수시로 적을 방어할 수 있는 위치라. 마위전이엔 현 계, 여기서는 '높은 사람 몰만, 항시 전투할 수 있는 몰만 기르는 곳'이다. 즉 '유사시에 전투할 수 있는 자세를 갖추는 곳' 이렇게 해석이 되지. 건 어디서 자료를 얻느냐하면 요 쪽에 올라가면 '마구리수'엔 혈 물이 있지. 몰마(馬)자 메아지구(駒)자. 마구리수. 마구리수엔 현 곳이 옛날 몰 물먹여난 곳, 옛고자 썸 마고(馬古)엔도 허고.

<조사자: 아, 옛고자도 쓰고?>

응. 옛날 몰 물먹여난 곳.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메아지들이 물먹여난 곳이라고 혈 수도 있지.

<조사자: 메아지가 뭐고예?>

어미몰허고 어미몰 밑에 새끼들을 메아지라고 허거든. 메아지.

<조사자: 아, 그럼 여기서 김통정 장군이 말들을 키우멍으네 물 먹여 낫덴 마썸?>

선조님들한테 들은 말허곡 허영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흐는 거지.

5. 마구수(馬口水)/ 마고수(馬古水)의 유래

제 보 자: 강태균(남·73세)

조사일자: 2002년 7월 26일

조사장소: 제보자 자택

● 요약: '마구수'라는 샘의 유래에 관한 이야기이다.

김통정 장군이 물을 맥여난 물이다. 이렇게 해서 그 '마구수'다 혼 말이 이서. 마구수라고 한 것이 몰 마 재에 입 구 재를 쓴다. 이렇게 혼디. 거, 뭐, 어느 재를 쓰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혼련장이 있고 이렇게 하니, 몰(馬)도 맥이고(먹이고) 사름도 먹엇을 것이다. 그제 원래가 큰 물은 아니거든. 그래도 우리 부락이 설립된 이래 마을에서 포제, 마을의 숙원을 드리자고 헐 것 같으면은, 그 물을 가졌다가 봉양을 해서 제숫물을 써냈꼬렌. 그래서 요지금은 것도 그 바른대로 길(路)나 부니까 조그만하게 시리 혼적 밧에 없어.

<조사자: 아까 이장님도 그 마구수 얘기 좀 하시던데 마씨. 말 마 자 해난 다음에 입 구 자인지, 옛 고 자 인지 써가지고 말씀해 주시던데 마 씨.>

게나네. '옛고(古)' 재인지 뭇 재인지 그제 우리가 얼투 생각허는 말이 지. 사장이 잇엇으니, 아년게 아니라 옛날은 사람의 혼련도 잇지만 몰 혼련도 잇거든. 뭐 기마 혼련도 잇고 이러니까 그걸 봐서 그 물에서 물을 맥여실 것이다허는 거주. 게난 '몰마(馬)' 재에 '입구(口)'를 써서 '마구수(馬口水)'라고 헐 수가 잇고. 이제 뭐 아주 특별허게 그 높은 사람만 먹을 수 잇은 물이어서, 요새 ㄱ뜨면은(같으면) 그 대장급. 그래서 '옛고(古)' 재를 쓴다는 얘기도 잇고. 물이 크질 았으니까. 그 뭇, 확실하지는 았고.

6. 도채비 이야기 1

제 보 자: 고태인(여·78세)

조사일자: 2002년 7월 27일

조사장소: 장전리 마을회관

● 요약: 비가 많이 온날 건우물에 물 길러갔다가 어귀동산에서 도채비를

본 이야기이다. 그때 강아지가 귀신을 쫓아 주어서 무사히 집에 올 수 있었다.

<조사자: 여기서 지내실 때 혹시 도채비 얘기 들어난적 어서마씨?>

도채비? 옛날엔 마을에 물이 부족해. 게난 우린 건우물에 강 물을 지러당 먹고 헤신디. 비가 왕 물이 불민 물이 만추게(많다). 이제 정월 추석이 넘영 한밤이 뻗지.

“옳지, 건우물 가민 물이 하난(많으니까) 흥거니 지러질거라.”

경행, 날은 비암지기 어두침침한 날인디, 고닥고닥 강 보난 물이 많아. 그 물을 뜰라 하니 맘이 막 즐거와.

“아고, 나만 (이 물을) 독차지햐미켜”

하명 물을 길영. 이제 물을 두 번째 딱 길영 세 번째를 지러가신디. 아거기 어귀동산(차길위에 동네이름)에서 불이 ‘펄럭펄럭’ 하명 오라가.

‘아고, 나만 물 독차지햐점꾸나 하니까 저 사람도 물길레 오람꾸나.’

에게게, 그불을 바라봄신디, 불이 이만이 헛다 팍 벌어져.

‘어고, 저건 사람이 아니담다. 저기 도채비가 잘난다 한딘디, 저게 도채비로구나’

갱 머리털이 고짜고짜 일어서, 경행 도채비불이 등등 떠오는거라.

‘아고! 이제 큰일났져.’

아 건디, 그 불이 요만이 헤가. 졸앗당(작아졌다가) 또시 이만이 벌어져. 후레쉬불은 그렇게 안하지게. 그냥 구짜 물터레(물쪽으로) 올건디 물드레 오진 았고 거기서만 빙빙도는거라. 아고! 머리털이 고짜 일어서난 바싹바싹 무서왕. 물 세 번밖에 안 지러완. 집에오난 가슴이 탕탕탕탕 심장이 뛰영. 무서왕 다신 안가서.

7. 도채비 이야기 2

제 보 자: 고태인(여·78세)

조사일자: 2002년 7월 27일

조사장소: 장전리 마을회관

- 요약: 어릴적에 친정어머니와 길을 가다가 내창에 불이 보였다. 너무나 무서운 가운데 어머니가 돌을 부셔서 돌가루를 입에 넣어 얼굴과 하늘에 뿌려서 도채비를 물리쳤다.

<조사자: 도채비 본 이야기 또 어서마씨?>

옛 말중에 도채비가 나타나면 돌을 '톡톡' 씹으며 '푸~'하면 귀신이 도망간다 해.

<조사자: 경해난적이 이서마씨?>

어릴때 내가 꼭 열설때 우리 어머니하고 친정에 잔치를 먹으며 집더레 오랍신디, 내창가에 불이 '벌렁벌렁' 하는거라. 우리 어머니가 (그절 보더니) 이제 돌맹일 아상(잡아서) 톡톡 조자그네(깨어서) 나신디도 주멍 '푸~' 하라고 하고, 당신도 비삭비삭 씹으며 '푸~'하난 도채비가 어서전(없어졌다). 날은 청명한 날인디 경 어두워. 경행 앞을 보난 강아지가 보여, 강아지들은 알주게 귀신이 이신지. 어머니가

"어 이제 정신남찌, 개가 앞으로 가멍 귀신을 다 방제(防除)햐찌."
경행 넘어 가나서. 나 어릴적에.

8. 도채비 이야기 3

제 보 자: 진춘부(여 · 73세)

조사일자: 2002년 7월 27일

조사장소: 장전리 마을회관

- 요약: 어릴적에 소에게 먹이는 풀을 베러 갔다가 날이 어두워 움막집에서 자게 되었다. 그런데 밤이 깊자 '상여 끄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그때 어머니는 돌을 가라서 입에 물고는 얼굴에 뿌리는 것이었다. 그

러자 그 소리가 사라졌다.

<조사자: 도깨비 본 이야기 또 어서마씨?>

나가 어린 아이적 땀디. 옛날엔 구루마(牛車)도 없고 차도 없고 하나
까, 출(草) 비젠 하면 산심오름 앞에 움막집을 지었. 이제 아버지는 출 시
령(실어서) 집에 내려와 불고, 나는 아이니까 거기 어머니랑 같이 잠을 자
서 움막속에. 나는 모르는데 어머니한테 들은 이야기라. 밤중이 깊어가니
막 행상 메영 가는 소리처럼, 위로 '척척척' 아래로 '척척척' 하명 소리가
들려. 어머니하고 나하고 이서신디. 점점 소리가 커 가난 어머니도 막 무
서웠덴. 경행 고쟁이를 들렁 들을 막 움팍덴. 경행 돌가루를 입에 물영
'푸~'행 뿌리난 그 소리가 어서졌덴.

나는 어려서 도깨비가 뭔지 몰라신디도 어머니가 그런 말을 해.

9. 도깨비 이야기 4

제 보 자: 진성호(남·82세)

조사일자: 2002년 7월 28일

조사장소: 장전리 마을회관

- 요약 옛날에 비바람이 몹시 몰아치는 날 여러 사람이 모여 앉아 놓고 있
었다. 한 사람이 도깨비가 나올 것 같다고 하자 귀신을 믿지 않는 사람이
편잔을 주었다. 그래서 내기를 하게 되고 도깨비를 믿지 않는 사람은 도
깨비가 나온다는 풍낭에 가서 껍질을 벗겨 오기로 하였다. 풍낭에 간 그
사람은 나무위에 있던 예쁜 대감집 딸을 구해주고 그 대가로 대감집에
초대되어 후한 양반 대접을 받게 된다. 친구가 돌아오질 않자 걱정된 무
리들이 풍낭으로 가 보자 어이없게도 그는 가시덤불로 만든 구덩이 속에
있었다. 그리고 말뚱이며 소똥등 더러운 오물을 마구 먹어대고 있었다.
도깨비에 홀려 가시덤불을 기와집으로 착각하고 말뚱 소똥을 대접받은
진수성찬인 줄 알고 마구 먹어대었던 것이다.

옛날 이야기 혼 번 들어보젠?

<조사자1, 2 :네..네..>

요즘에는 귀신, 도깨비 이런 것이 전혀 없지만은 그 옛날에는 그런게 그렇게도 많이 있었어. 여러 사람이 모여 앉아가지고 노는데, 비바람이 막 몰아치거든. 그때 어느 혼 사람이 “도깨비 잘 나오는 장소가 있는데, 야 오늘은 시방 풍랑(뿡나무)에 도깨비(도깨비)들이 많이 나오겠다”하고 고라.

그러자 또시(또) 혼 사람이 잇다가 “도깨비가 거 뭐여? 히안뜩한(이상한) 소리하지 마라.”하고 화를 내. 경흐난 이번에는 도깨비 얘기 고른 사람이 “염병 너 사끼(새끼) 현 말 허지 마라. 너 강 올래?” 여나네.

“아! 나 강 오리.”

“너 강 온다며는 우리 둔(돼지) 혼 마리 잡겠다.” “정말이냐?”

“정말이지.”

“그럼 나가 강오지.”

그렇게 비바람 치는데도 이제 그 사람이 거길 갖는데 거기 그 풍낭에 가그네 그 꺾질을 뱃겨와야 거기 강은 처사를 알지.. 게며는 낫 가지고 나무 꺾질 뱃겨뒤 올꺼로... 그 사람이 갔다 말이야.. 가네 아무 살피도 아무 것도 못 봐.

“세상에, 뭐 도깨비! 구신(귀신)이 어디이서?” 이런 말이 끝나자 마자, 큰 폭나무 꼭대기에 꼭대기에서 “아이고 사람 살려주세요.” 이렇게 한단 말이야. 가만 영 바라보니 사람이라.

“하, 요게 구신이로구나! 너 여리 내려 와라. 나와서 대번 잘라 죽여볼겠다.”

“저는 귀신이 아닙니다.”

“그럼 너가 머냐?”

“저는 사람입니다.”

“이 히언뜩한 소리하지마. 사람이 이 비바람 치는데 풍낭 꼭대기에 올라 아줄(앗을) 일도 없고, 뭐 이런 구신이 어디 있나? 이리 내려와”

“아이 정말로 저는 사람인데.. 당신이 어떻.. 어떻헛든간에 나를 살려

주십시오. 나가 내려 갈테니 날 살라주십시오. 살라주십시오.” 하도 이래.

“하여튼 내려 와 봐.” 내려와 보니 이쁜 처자라.

“너 구신이 분명하지?”

“절대 구신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산 사람이 이 풍낭 꼭대기에 올라갔느냐?”

“나는 아무집에 대감의 딸인데 이 풍낭 그 구신들이 도깨비들이 저를 그냥 잠쪽스레 홀리하다가, 저 풍낭 꼭대기에 올려 부려두고 그 구신들은 간데 없이 도망가 버렸습니다. 저는 이제 내려가지도 올라가지도 못하고 잇은 참인데, 과연 저를 살라줄 사람은 당신밖에 없습니다. 저를 살려주십시오.” 계난.

“그럼, 그러면 살라주지.”

하고 내려와 주었지. 내려와 주니,

“저는 집이 가겠는데.. 당신을 뒤 두고 혼자 갈 수가 없으니, 나하고 이제 같이 가서 우리 아방님 어명님신디 가그네, ‘이 분이 나를 살려 주었습니다’ 이런 인사말도 강 허구.. 당신이 살 도리(방법)를 만들어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하고 갑시다.”

“아, 그러라”고. 그러니 그 처자하고 같이(같이) 갖단 말이여. 내가 이 밤중에 당신을 데리고 들어가면 우리 아버지가 대감인데 날보고 막 이제 큰 욕살(욕설)을 할테니, 여기 있으면은 우리 아버지한테 가그네 먼저 나가 미리 고라그네(말해서) 당신을 초청하겠다. 경허라고(그러라고) 가만히 잇더니, 머슴 놈들이 여러 사람이 와가지고, 아 이거 대감님이 들어오렌 초청합시나네 들어오라고. 들어가 보니, 하! 사는게 멋지거든.

“허허 당신덕분에 우리 딸(딸)은 무사히 살아났는데 정말 고맙다”고. “안트레(안에) 들어오라”고. 머슴놈들 보고 “이 분을 목욕시키라”고. “양반이 되려면 이 옷 다 벗어두고 새 옷을 입어야 한다”고 그래. 왜 대감님들 입는 옷 잇잖아게. 이제 새 옷 입치고(입히고) 갓을 씌우고 했는데 구들(부엌)에 들어간. 앞서가지고(그 전에) 담배 담아낸 담배 피우게끔 영 헤 주고 맛난 음식을 츠려 오거든. 하하. 세상에 먹어본 게 없는 음식을 막 츠려 줘. 그니 이제 ‘아 이거 팔자를 고쳐도 원, 그 어찌다가 원 장난말하다가

이렇게 팔자를 고칠 수가 잇는고'. 기빠도 기빠도 영채기(그렇게) 기빠.

견디. 아 그 내기한 사름덜은 이 사람이 '이제나 오카(올까) 저제나 오카' 해도 오질 안하거든(안겨든). "하하.. 이거 도채비들한테 흘려 꼬라박 아졌구나. 우리 전부 모여가자! 모여가그네 살앗건 붙잡아 오고, 죽엇거 들란 그런대로 보고 오자". 그 일행이들 모여갓어. 모여강(모여가서) 보니 그 놈도 못보고 험디 큰 가시덤불이 이서. 강 보니(가서 보니) 가시덤불이 움질락 움질락 꾸물려. 이 어명행 가시덤불이 꾸물럭 꾸물럭 햄신고 영 보니, 그 속에 가시덤불 속에 사람이 앉았어. "하 요 사끼 가시덤불 속에 앉았구나" 영 험. 이제 가시덤불 확 걷어낸 보란, 이그 가시덤불 속에 앉 았던 놈이

"이거 누구여? 왜 사람이 거하는데 함부로 갓을 베킨겨 누구여?"

영 험단 말여.

"사끼 이러 영 돌아부렸구나게."

험지. 그 가시덤불을 잡아 치아버리난 그 사람이

"이거 어떤 사끼여. 남의 갓을 함부로 그냥 확 확 베킨겨다니.."

"하하 요 사끼 요거.. 영 도채비헌티 미쳤구나."

"이 사끼 도채비가 뭐야?"

허멍 화를 내. 아피(앞에)받아 앓은 걸 보니 소똥, 말똥, 개똥 이런 걸 받아 아자네(앉아서) 그걸루 자꾸 먹는거라.

<조사자1,2:아~ 하하하.>

그것도 이제 간 사람들이 "아휴 추접허영." 발로 탁 허게 차나네. "이 사끼들 버르장머리가 잇은 자식들인가... 없는 자식들인가... 왜 밥상을 함부로 발로 차고 막.. 그저.. 지랄하는거여?"

<조사자들: 하하하하..>

"너 영영 미쳤버렸구나게. 너 나기(내기) 건겨 생각이냐?" 영 바래반.

"아~ 우리 나기 건 친구들이로구나. 속습혜(조용혜) 달라. 난 팔자를 확 고쳐볼젠했는데 이데(여기) 오라네 함부로 얘기하지 말고 나는 니네들도 팔자를 확 늘여지게 해줄테니. 제발 아무런 말도 하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자."

“하. 이 사끼. 영.. 그만..” 하하하...

<조사자2: 하하. 재밌다에~>

잡을 수가 없어. 소똥, 말똥, 개똥으로 막 온 몸을 막 그냥 뭘 헤놓고
나니.. 아 그래도 사람을 구하긴 구해나야 할건디 할 수 없다고.. 이거 목
쟁이, 턱 심어그네 집에 오라네.. “너 이제도 바른 말 못헤여?” 하난, “나
어떻헤져서?” “어떻헸다니.. 너 이리저리허지 아니헸나.” 허난. 허허허.
막 웃엇쥬.

<조사자: 할아버지 도채비 이야기가 이제까지 들은 것 중 쥬 재밌었
어요. 하하.>

10. 소죽이 못(牛死池) 이야기

제 보 자: 고태인(여·78세)

조사일자: 2002년 7월 27일

조사장소: 장전리 마을회관

- 요약: 일을 안 하는 게으른 사람이 있었는데, 어머니가 항상 “밥이 일한
다” 하면서 자꾸 꾸중을 하니, 도시락을 소쟁이에 걸쳐 놓고 자기는 그
늘에서 낮잠을 잤다. 저녁에 어머니가 와서는 그런 아들을 꾸중하면서,
소를 몰고 단숨에 밭을 갈고는 너무 지쳐서 ‘쇠죽이 못’에 가서는 물을
먹었다. 그러자 소도 죽고 어머니도 죽었다.

<조사자: 여기 저 밭갈양 쥬 물먹이다 보니까 쥬 죽엇덴 하는 얘기는
어서마씨?>

쥬주기 못 말헸꾸나. 나 잘은 몰라도 한번 얘기헤보쥬.. 옛날에 흠어
멍이 밭이 막 여러개 시난 장남한테, 옛날은 장남을 데령 살아나서.

“얘야 밭이나 흐저강 갈라. 흐저강 일하라 일하라” 하명 벤또 주멍 “밥
이 일한다. 밥이 일한다” 헸덴.

장남이 막 피곤하고 괴로우난 쟁기에 벤또(도시락)를 톡 걸영 “밥이 일한덴 하난 날랑 놀고 밥이 일헤라”헿. 어디 낭그늘에 강 걸러정 톡 자니. 이제 홀어명이 왕 보난 발 갈지는 앓고 벤또 걸어덩 그늘서 잠서.

“아고! 요놈아! 요놈아! 발갈렌 하난 뭐헿시 뭐헿시...”

“밥이 일한덴 하난 쟁기에 밥 걸영 밥이 일하지 앓암수과?”

“아고 요놈아 요놈아 고만시라. 내가 발 갈켜”

경헿 그 발을 죽등 살등 막 간 모양이라. 경허난 사람도 지치고 소도 지치고. 거기 물 이신디 강 췌도 물맥이난 췌! 사람도 물먹으난 췌! 헿 ‘췌죽이 못(牛死池)’라고 헿져.

<조사자: 쇠주기못 지금도 이서마씨?>

저기 삼가로 가면 흔적은 이서.

11. 장수물 이야기

제 보 자: 고태인(여·78세)

조사일자: 2002년 7월 27일

조사장소: 장전리 마을회관

- 요약. 몽고가 쳐들어 왔을 때 김통정 장군이 무쇠로 큰 성을 쌓았는데, 그만 애기업개(보모)를 성 밖에 두고 문을 닫아버렸다. 몽고군은 애기업개를 협박하여 성문을 녹이는 방법을 알아낸다. 그러자 김통정 장군은 성을 뛰쳐나왔는데 그때 그가 발본 곳이 바로 ‘장수물’이다.

<조사자: 할머니 혹시 김통정 장군에 대한 이야기 아는건 어서마씨?>

남자 하르방가 잘 알건디, 훗술 알아지는것만 골크메 남자드한테 들어. 옛날에 김통정이 ‘어린아이 업는 업개(보모)’가 이서서. 어평헿 애기업개가 밖에 잇는걸 모르고 왜적들이 들어오난 문을 더꺼브러서(닫았다). 철

문을 더끄난 왜적들이 들어와 보낸 애기업개가 둥그럼서(땅에 엎어져 있었다). 왜적이,

“이문을 어떻게 여냐.” 하난.

“그거랑 지들낭을 많이 헤다가 두일헤 열나흘을 불에 때영 해감시든 그 쇠가 녹앙 덜켜 열립니다”

왜적이 그 말을 들영 그 문을 들각 여난, 왜적들이 들어갈 것이 아니라. 이제 김통정 장군이 확 뛰명 발을 디디명 “이 물이랑 백성들 먹으라.” 헛던 험서. 그게 장숫물이주.

12. 김통정 장군 이야기 1

제 보 자: 강태복(남·61세)

조사일자: 2002년 7월 27일

조사장소: 장전리 마을회관

- 요약: 김통정은 온 몸에 비늘이 덮여 태어났는데 겨드랑이에 화살을 맞아 죽었다. 김통정 장군이 죽은 후, 세워진 비석이 '삼심봉'에 있다.

<조사자: 김통정 장군이 어떻게으네 죽었다 하는 얘기는 어서 마썸?>

김통정 장군은 비늘을 혼깃에 입어가지고 태어나서, 활로 쏘아도 들어가지 아니하고. 어떻게 팔을 벌린때에 좃갱이(겨드랑이)로 화살을 쏘난, 그 비늘이 들러진 트명으로 들어가가지고 죽었다고 이런말이 있어. 지금 산 새미 앞에 가면 물이 있어. 그디서 죽었다고들 해. 행정(관청)에서 비석까지 새왔주. 거기에.

<조사자: 아, 그 비석 새와 잇은 곳이 어딘고예?>

그 고성목장인데 삼심봉(三心奉) 앞이라. 거기가든 대강 그 역사가 써이서. 그 비문에는 그렇게 안 써이실꺼라. '아주 충성을 다해가지고 썩다

죽었다' 영 나와실거라.

13. 김통정 장군 이야기 2

제 보 자: 진성호(남·82세)
조사일자: 2002년 7월 28일
조사장소: 장전리 마을회관

- 요약. 몽고군이 쳐들어왔을 때 김통정 장군이 지은 무쇠집이 아기업개의 밀고로 녹아내리고 있었다. 그때 장군이 뛰쳐나와 뒷밭양반들만 신는 회을 신은 발)로 땅을 밟으며 “발자국에 물이나 빨아먹어라”라고 외쳤다고 한다. 그곳이 일명 장수물이 되었다는 이야기이다.

<조사자2: 장수 이야기나 한번 고라줍서.>

장수 이야기는 김통정 이야기가 잇쥬. 우리가 듣기로는 그 김통정이가 너무도 용렬해가지고 시방 동경에 토성을 쌓았는디. 몽고놈이 쳐들어와도 못 츠자(찾아). 왜그런가하민 김통정 토성이 여기 잇는데 강에 나가 재를...왜 불살라난 재 잇잖여.

<조사자1, 2: 예.. 잿가루예.>

응. 잿가루 모아가지고 바위에 막 뿌려 놓고 몽고놈이 올라하며는 물(馬)을 타가지고 이제 그 바위를 영영 휘달리며는 그 재 가루가 막 날려가지고 왁팍 헤그네, 토성 안을 발견을 못했다고.

<조사자2: 아.. 앞이 안 보이게 헤가지고.>

김통정이가 몽고놈이 오라네 게. 무쇠로 집을 지어신디. 그만 시간은 바쁘고 아기업개(보모)를 그만 들여놓지 못헤연. 몽고놈들이 왕 보난 무쇠로 집을 지엇거든. 아 아무리해도 그 문을 열수가 잇어야지. 무쇠로 된 문을 도저히 열어볼 재간이 어스난(없으니까) 아기업개를 붙잡아가지고 “이 문을 어떻게 열면 되느냐?” 물은거라. 아기업개는 게 죽지 않으려고 “나

무 가져다그네 불을 막 때서 무쇠를 녹여야 열립니다”하고 그라분거라(謂: 이르다). 쟁. 막 나무 가져다 불을 때나네 무쇠가 녹아네. 김통정이가 이제 막 뛰어나오면서 시방 ‘장수물’ ‘장수물’ 하는 물이 있는데...

<조사자1,2: 예예. 저기에.>

그 물을 ‘햇자국’ ‘햇자국’ 하는데 그 김통정이가 햇발이여. 그 옛날에 그 신랑같은 높은 사람이 신는 거 있잖여?

<조사자1: 아. 신 마쌌?>

응. 왜 요즘도 테레비 나오는 거 보면 그 ‘뻬’라고 옛날 양반들은 신고 상놈들은 그걸 못 신었지. 그 뻬를 신은 발로 ‘햇발’로, 그디를 자락 발부멍. “발자국에 물이나 빨아먹어라” 웨친거라. 하하하.

<조사자: 장수물 예?>

응. 그래서 장수물... 장수물 허주. 근디 사방 그걸 가만히 풀이힐 때 에 그건 옛 어른들 입으로 지어내는 거지. 사람으로서는 그럴 수도 없고. 허허. 근디 전설로 남아 있는 거. 이. 저. ‘장수물’ ‘장수물’ ‘햇자국’ 우리 주변 사람들 ‘햇부리’ ‘햇부리’ ‘햇부리물’ 그렇게 허거든.

<조사자2: 아.. 햇부리 물.>

응.

14. 거역목 밭에 묘자리 쓴 이야기

제 보 자: 강태복(남·61세)

조사일자: 2002년 7월 27일

조사장소: 장전리 마을회관

- **요약** 거역목 밭에 부모의 묘자리를 쓴 사람이 갑자기 힘이 세어졌다. 그는 장사고 100일이 안되는 날에 궁궐에 가서 이리저리 난동을 부리다가 잡히게 되었다. 그의 부모의 부덤을 파 보니 큰 황소가 아직 채 일어나지 못하고 누워 있었다.

<조사자: 묘자리 쓴 이야기엇어 마씨?>

무사 잇주. 거역목 밧이 워낙 산정기가 좋아가지고 거기 모시니까.

<조사자: 거역목 밧?>

거역목 밧이라고 한라산 가까운데. 거기선 '인장묘밭(寅葬卯發: 장사지낸 뒤에 복을 받음)'이라고 해가지고, '인시에 장사를 지나고 묘시에 발복한다'는 말이지.

<조사자: 거기서 무슨 일이 잇어났덴 마씨?>

그 날 비가 그렇게 (많이)와 가지고, 내(川)가 터지고 막 거세기 해가지고 사람이 넘어갈 수가 없는데, 상제가 사람을 하나씩 안으면서 내를 넘겼거든. 거난 인시에 장사지내고 묘시에 상제가 발복해 가지고 힘이 장사가 된 거지. 그래서 상제가 100일 안에 궁궐에 들어가 가지고 동으로 뛰고 서로 뛰고 해 가니까, 나라에서는 '이게 웬 놈이냐' 해 가지고, 그 사람을 군사를 거느려가지고 잡았어. 잡아네. 그 사람을 답도리 허니까 '부모를 거역목 밧에 모셨다'고 해. 거기워서 그 묘를 파고 보니까 아버지 무덤이 무슨 형체로 변해 가지고 일어서젠 허고 잇더라 이거야.

<조사자: 아, 무슨 형체로 변했덴 마씨?>

'췌'로 형체가 변했지.

<조사자: 췌?>

황췌로.

<조사자: 아, 황췌.>

갱 무덤에서 그 췌가 완전 일어서 불면 그 시름(상제)을 잡을 수가 없을꺼네. 일어서기 전에 잡아부니까 발복을 못한 거지.

<조사자: 아.>

산(묘)을 잘 써 가지고 그렇게 발복한 것이지. 힘센 장수가 될 뻔한 거지.

15. 열녀 이야기 1

제 보 자: 강태복(남·61세)

조사일자: 2002년 7월 27일

조사장소: 장전리 마을회관

- 요약: 남편이 아파서 영양이 부족하니까 자기 다리인육을 잘라서 먹었다. 그녀는 시부모도 공양을 잘 했는데, 상처 난 자리를 몰래 치료하다가 남편이 알게 되었다. 그후 나라에서도 알게 되어 열녀비를 세우게 되었다.

<조사자: 마을 입구에 들어오당 보든 열녀 비석 하나 잇잖아예? 그 사람은 어떻 헝으네 열녀가 댜던 헌 이야기는 들어난거 어수과?>

남자가 아파서, 다 죽게 되니까 여자가, 환자는 영양 부족해 가지고 고기영 사당 잘 멕여야 될꺼 아냐 이? 살아나젠 허믄 우선 병도 병이지만 은 잘 멕여야 되는데. 자기 인육을, 자기 다리를 잘라서 그것을 남편한테 준 거야. 줄 때는 사오고렌 헌거지. 남자는 아 맛이 좋거든. 그걸로 헤 가지고 이제 힘을 조금 얻었는데, 그런 후에 여자는 그디가 아파가지고 자꾸 치료를 허거든. 치료를 허니까 거 어떤 일이냐고 남자가 묻거든. 그래서 그 원인을 남자헌티 얘기허니까, 이것을 나라에서 알아 가지고, '허, 이런 여자가 어딴느냐?'. 충성을 다해 가지고 자기 남편을 공양하고, 시부모는 쌀을 얻어다가 늘 멕이고 정성을 다해 공양을 하니까, 나라에서 열녀비를 세워췌주.

<조사자: 아.>

16. 열녀 이야기 2

제 보 자: 진성효(남·82세)

조사일자: 2002년 7월 28일

조사장소: 장전리 마을회관

- 요약: 장전 자손 중 한 분의 7대손 되시는 분이 시부모 공양을 잘 한다고 중앙에 보고가 들어갔다. 그래서 그것이 사실인지 확인한 후에 열녀비를 세워주었다.

<조사자1: 할아버지 성함이 진자 성자 효자 맞지요?>

<조사자2: 할아버지.. 열녀비 알지요? 열녀비 마썸. 열녀비. 저 슈퍼 가면 동산 올라오는데...>

저기?

<조사자2: 예 혹시 열녀비에 관한 이야기 아서 마썸?>

그 내가 알기로는 고조부 그 손이 있는데.. 그 사람 5대손이 있는데.. 그 5대손이 그 할머니가 그 시아버지를 잘 그 공양을 해 가지고, 그 저 마을에서 즉 말하자면 중앙편에 중앙에 보고를 한 거지. 이런 훌륭한 분이 있다. 중앙에 보고를 하니 중앙에서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걸 비밀로 지켜 봤지. 이 사람이 정말인가 거짓말인가 비밀로 지켜봤지. 비밀로 지켜보니 그 사람이 정말이라. 그렇게 이제 시아버지를 잘 공양을 하니 그래서 그 열녀비를 준거지.

<조사자1: 시부모를 어떻게 잘 모셨덴 마썸?>

그 때 당시는... 부모도 죽여볼고.. 막 이제는 세상은 이런 세상이지만 그 때 당시는 그 부모를 그렇게 잘 모실 줄 알아도 그렇게도 안 되지. 근데 그거를 마을 동네 사람들이 상황을 올리는 거라. 그러면 나라에서 그거를 이중삼중 확인을 해 가지고 그 열녀, 효자 그런걸 주었지.

17. 영천이 목사와 김녕뽀 1

제 보 자: 강태복(남·61세)

조사일자: 2002년 7월 27일

조사장소: 장전리 마을회관

- 요약: 영천이 목사가 제주도에서 미신을 믿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당과 절을 모두 없앴다. 그리고 무덤들도 깨끗이 관리하였다. 그런데 김녕굴에 있는 큰 뱀에게 매년 처녀를 바친다는 이야기를 듣고 뱀을 토막내 죽인다. 그날 밤 꿈에 총귀신이 나타나 뱀귀신이 죽으려하니 빨리 제주도를 떠나라고 한다. 다음날 영천이 목사는 육지로 무사히 도망을 간다.

<조사자: 옛날에 다른 종교가 막 들어오고 할 때, 서낭당 없애젠 해뎀한 사람들 이서낫뎀 들어신디 혹시 그 얘기는 들으셧 마씨?>

옛날 영천이 목사엔 헌 사름이, 그분이 제주도에 와 가지고 제주도 사름들이 너무 이 미신에 혼탁허니까

<조사자: 예.>

절 500, 당 500을 부숴다 이거야. 이 사람들이 절 500, 당 500을 부숴신디, 이 영천이 목사는 김녕굴에 버염까지 잘랐다는 사람이라.

<조사자: 아.>

김녕굴에 큰 버염(뱀)이 있어 신디. 그 버염은 예쁜 아가씨를 일년에 한 번 맥여야 되어. 일년에 한 번 아가씨를 경 꼭 쥐야만 그 버염이 그 지역을 편안하게 구니까. 영천이 목사는 이거 안되겠다고 헤 가지고, 이 버염을 죽여볼젠 신방들 보고 막 굿을 허라고 시켄. 아가씨 갖다 놓고 막 굿을 허니까 버염이 나왔거든.

<조사자: 아 갱헐 어떻 죽연마씨?>

장도 칼. 옛날 아맹헤도 큰 칼이 잇던고라. 그걸로 헤 가지고 이제 일곱 도막을 탁 잘랐다 이거야. 딱 딱 잘라 가지고 그 버염이 다시 막 붙으젠 헤가니까 재 잇잖아. 재를 갖다가 막 뿌려부니까 붙으지 못하거든. 이제 큰 항아리에 딱 담아 놓고.

“너가 귀신이면 7일 동안에 다 붙을 것이다. 귀신이 아니면 붙으지 아니한다.”

그래서 마침 6일만에 간 보난 여섯 도막이 붙었다 이거야. 귀신이니

까 이? 이거 일곱 도막이 붙으면 또 이녁한테 피해를 줄까봐, 이젠 장작 가져 오렌 행 완전 소각해 가지고 화장시켜 불었지.

정헌디 영천이 목사는 평상시에 총(塚)를 잘 돌봐서, 총은 사람 묻은 곳인데, 총에 가시나곡 허민(가시덤불이 나면) 백성들고라 그걸 잘 소분허라고 시켰거든. '우리 사람이 죽은딘디 가시가 나면 되겠느냐' 하명. 겐디 호룻밤에는 막 꿈에 총귀신(무덤귀신)이 와가지고, '몇날 몇시에는 버염귀신들이 와 가지고 당신을 베어 죽일테니까 빨리 육지로 도망가라'고 고라.

<조사자: 아. 꿈에.>

무덤을 깨끗이 청소를 잘했거든 평소에 와 가지고, 계난 그 덕으로 총귀신이 와 가지고 도와준거지.

<조사자: 아.>

갱 뒷 날은 붉으난(밝으니까) 꿈이거든. 이젠 그냥 출려 가지고 베 대렌 행 육지로 도망간. 딱 육지로 간 끝 내리난 그 베가 탁 얹어졌거든. 영천이 목사가 배에서 딱 내려볼거니 배가 얹어졌어. 아! 과연 영감님 말이 맞다. 이런 전설이 있어.

18. 영천이 목사와 김녕뱀 2

제 보 자: 진성효(남·82세)

조사일자: 2002년 7월 28일

조사장소: 장전리 마을회관

- 요약: 영천이 목사가 제주도를 다스릴 적에 꿈에 총신귀신이 나타나 무덤을 허물지 않게 해 달라는 부탁을 하였다. 꿈에서 겐 목사는 다음날 묘 자리를 찾아가 총신귀신의 청을 들어주었다. 그후로 은혜를 잊지 않은 총신귀신은 김녕굴의 뱀귀신을 물리치는데 도움을 준다. 또 목사가 임기를 마치고 돌아갈 때에도 배가 난파하지 않도록 도움을 주어 무사히 제주를 빠져나갈 수 있었다는 이야기이다.

이건 영천이 목사 애긴디.

<조사자: 영천이 목사 마씨?>

영. 천. 이. 목사. 요즘 ㄱ트면 도지사. 옛날엔 사또사또 히신디. 영천 이 목사가 제주도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 제주도에 주권을 잡아가지고 이제 밀하는데. 한번은 이제 어떤 백발 노장이 와 가지고 “목사님. 전 딱 곤란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 “뭔 곤란한 점인고?” 그러니 “내일 저 아모디서 부모가 죽어가지고 묻게 되었는데, 나 산담을.” 즉 말하자면 묘담, 우리가 부르기는 산담이라고 부르지만 신에게는 묘담이지게. 묘담을 전부 치어가지고 그 사람이 묘담을 한번 해볼라고 하는데 “목사님 혼 번 살려주시면 어떻하겠습니까?” 하는데 그 놈을 봤어. 영천이 목사가.

<조사자1: 꿈편 마씨?>

응. 꿈 편. 깨어나고 보니 그게 꿈이라. 이게 진실인가 허실인가 헤가지고 그 꿈꾼대로 거길 좇아가 봤어. 아닌게 아니라 꿈꾼대로 거기다 인장을 묻고 그 산담을 치어가지고 새로 산담을 허기로 하거든. 그 때 이목사가 “안 된다. 나 혼 마디 부탁을 허겠는데 이 산담을 치어가지는 말고 허물어진 걸 잘 보상해주어라. 부탁이니 해달라.” 아. 도지사 명령인데 들을 수 밖에.

<조사자2: 누가 산담을 허물어 볼젠 하니깐 허물지 말렌 꿈에서 경헌 거 마씨?>

어. 그거 이장 못 허게 해달라고. 그런 꿈이었지.

<조사자1: 부탁한거구나예?>

부탁한거지. 그래서 이제 그 고충을 깨끗하게 잘 뭐.. 해주니 그 다음 날은 또 그 총신귀신(塙神: 무덤 귀신인 듯)이 꿈에 나타나가지고 고맙다고 목사한테 “나도 이제 목사를 돕겠다.” 그런 약속을 했어. 근디 그 소문을 들으니 김녕사굴에 뱀이 나타나가지고 일년에 딱 혼 번씩 막 큰 굶을 헤가지고 처녀를 바치면 그 뱀이 이제 처녀를 데려먹고 들러먹고 허는 그 뿔이 잇었어. 그 목사가 강 본다고 간 보니, 그 산방들이 모여 아자가지고 (앉아가지고) 막 큰 굶을 허고 잇는데 그 처녀를 이제 가져다네 앞에 앉히고 포장도 다 둘러싸우고. 영천이 목사가 그 산방들보고 굶을 막 헤라고

헤. 곳을 막 하니 그 처녀를 들러먹을라고 엄청나게 큰 뱀이 나와. 이 뱀이 대부분 나오도록 큰 곳을 막 헤. 그러면 처녀를 요래두고 땡겨놓고... 요래두고 땡겨놓고.

<조사자2: 아.. 뱀 유인하젠예.>

홀연네시리게..

<조사자1: 아.. 흘러그네 나오게..>

큰 곳을 헤라. 큰 곳을 헤라. 큰 곳을 막 하니 보임(뱀)이 이제 대부분 나왔어. 대부분 나완. 이제 그 때에는 처녀를 들러먹을라고 입을 영 벌리는거라. 보임(뱀)이 벌리니 영천이 목사가 화살을 가졌다가 화살을 세 발을 쏘어.

<조사자2: 입 안으로 마썸?>

응. 보임(뱀) 아구리(입)로 세 발을 쏘니 보임이 막 그냥 들러헤부니. 보임이 막 죽어져 가니 보임이 막 들러 었어.

그래서 이제 보임은 정신 잃러가지고 없단 말이여. 반 죽엇단 말이여. 죽엇신디 그 영천이 목사가 이 자객들 데령가그네 보임을 동등히 잘라서 혼 도막 두도막씩 줄라가지고(잘라가지고) 그거 소금 막 넣고 젓을 담았어.

<조사자2: 아.. 젓담안 마썸? 뱀으로 젓갈 마썸?>

응. 그래도 뒷날에 보니 반은 보임이 부텃더라고 자기대로 좇안 부턴. 다시 이제 그 보임을 간 곳 없이 없애신디. 젠디 그 결국은 보임이 신이 잇는거라. 보임 구신 귀신.

영천이 목사가 육지서 제주도로 발령오라네 그 기한이 다 되어서 다시 육지로 나가게 됐어. 그런데 도와준 총신귀신이 다시 나타나가지고 어떤 말을 했나하면은 "저 목사님은 육지로 나아가되 배를 타면은 아무런 말도 허영(혜선)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배를 타가지고 가는데, 배 우에(위에) 먹구름이 있어. 그 구름이 그냥 육지에 가도록 계속잇어. 영천이 목사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아니하고 육지에 가그네 내려네. 백부(백보) 이상 걸은 후에 "아 총신 따무네 살아졌구나. 크옥!" 해서. 경흐난 갑자기 난데없는 폭풍이 일어나가지고 그냥 와장창허게 불명 영천이 목사 탄 배를 그냥 삼시로 확 불러당 바닷물로 었어불거든. "아차 이게 이거로구나!". 그래서

그 영천이 목사가 총신 하나를 도왔다가 무사히 제주도를 빠져 나갔다는 얘기지. 허허..나가 알기로는 이런 전설이 남아 있다. 하하하.

19. 혼인 못한 여자가 복수한 이야기

제 보 자: 고태인(여·78세)

조사일자: 2002년 7월 27일

조사장소: 장전리 마을회관

- 요약: 두 여자를 데려온 아들에게 아버지는 두 번째 여자가 괜찮다고 하고 이들은 곧 두 번째 여자와 결혼을 한다. 이에 충격을 받은 첫 번째 여자가 그만 자살을 하고 마는데. 몇 년이 지나 아들 집에 찾아가던 아버지는 동산에서 한 여자와 동행을 하게 되고 아들의 집에 거의 다 왔을 쯤 그 여자는 자취를 감춘다. 아들 집에 도착한 아버지는 손자들과 함께, 목욕을 하는 며느리를 기다리는데, 아무리 기다려봐도 오지를 않는 것이었다. 알고보니 며느리는 목욕을 하던 도중 죽은 것이었다. 이는 아들에게 버림받은 첫 번째 여자가 귀신이 되어 복수를 한 것이었다.

<조사자: 이제. 고라줍서.>

이제 고라? 요망지기가 사람 관상 허민 고르긴 잘 고라지고, 이제 큰 아덜이 새각시 둘을 딱 봐그네.

“아바님, 어느게 좋암직 하우짜?”

“거 도라오라. 봐보게. 내 보민 안다.”

게난, 둘을 그자 이제 벗이엔 하는체 허멍 딱 돌아간 모양이라. 말제 연애한게 아맹헤도 할으방 믿음에 든고라. 영헤그네 닥 찍어녕 이제, “그 것쌍 연애허라. 다른건 말라.” 현 생인구라. 이제 그만 그 사람과 벌어지게 되난 오꼳 죽어불언. 자살행.

<조사자: 아~ 그 여자가 마썸?>

원, 참 말헤난게 오꼳 여자가 오꼳 자살행 죽어불언. 그 말제에 현것

팥(두번째 여자하고) 오꼳 연애해부나네. 자살행 오꼳 죽어불언.

이제, 이젠 저 만석이가 육지 아들신디. 서울 아들신디나 강 보젠, 곧 가불거니, 그 웨길 어디 육지 사람이 오랑 사는디. 만석이 포켓 동산을 꼭 그믐에 딱 건너가난 앞이 여자가 훌훌훌 가나네,

“어디 가는 아저씨우께?” 그 자기헌티 물어렌.

“난 세길이우다. 세길 만석이네 집 알아지우파?”

“예, 알아집니다.”

“고르쳐줍써.”

“예, 고라주쿠다.”

경헌디, 그 여자가 앞장성 걸어렌. 걸으난 줄음에(뒤에) 고들고들(천천히) 그 만석이네 올래목을 딱 가난, 아 어디 간 줄을 몰라불언.

‘아, 날고라 집 고르쳐주렌 행게. 거 이상하다.’ 하명, 만석이가 아들네 집에 잣단 말이여. 간, 간보나네 아이들만 잇이난,

“엄마 어디가시니?”

“저 방에 목욕하레 갔어요.”

이제 아기들신디 가만히 앉앗주. 앉으난 아 목욕허영 올만헌디 아니 와.

“거 이상하다. 엄마 목욕허는디 영 오래느냐?”

“오래지 않읍니다만은. 나 문열영 보쿠다.”

문열영 보난, 탁 데갈라경 오꼳 죽어불어서렌.

<조사자: 아~>

탁 죽어부난.

<조사자: 아, 귀신이 잡은거. 혼 잡아먹어 분거 마썸?>

그게 그 큰 각시 혼(魂). 만석이 그날 가는 날 만난 여자.

<조사자: 그 옛날 여자가, 그 첫 번째 여자 잡아먹은거마썸?>

응. 귀신으로 간.

<조사자: 아~>

(칭취불능) 아, 목욕은 더디 행오고 즈식 그 손지 보고,

“엄마 강 보라. 거 어떠한 경 빨리 아니 왓시니?”

“아~엄마 죽었어요. 죽었어요.”

그만 탁 걸러져부난게. “엄마, 엄마.” 해봐도게 편편허난(시체가 굳어있음). “할아버지, 오랑 보세요.” 허난, 뭐 할으방 강보난 오곳 죽어붙어서. 쟁헤쨌. 게난 귀신이 엇덴도 할 수가 없고, 싯덴도 할 수가 있어.

20. 귀신 태운 운전수

제 보 자: 진춘부(여·73세)

조사일자: 2002년 7월 27일

조사장소: 장전리 마을회관

- 요약 어느 날 밤, 한 여자가 지나가던 버스에 올랐다. 그런데 차비가 없으니, 잠시만 기다리면 금방 가지고 나오겠다던 여자가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를 않는 것이었다. 기다림에 지친 운전기사가 그 여자의 집으로 가보니 그 날은 여자의 제삿날이었다.

차장들도 경 고라. 차장도 양, 가당그네 어떤 처녀가 헤영게(하얹게) 출린(차린) 처녀가 질(길:路)에 서그네게. 나 태워달라고, 태워달라고 헤여그녕, 그 태우면은 차에 올르는건 봐신디 차엔 없어.

그래도 그 집앞꺼정 간 거라. 그디강 내려네. 나 돈 아이 가지난 돈 강 가져오켄. 게난 운전수는 고만히 앉앗주. 고만히 앉으난 아무리 기다려도 돈 아정오켄(가지고 올겠다) 한 사름이 오질 앉으는거라. 아니 오난게. 운전순 강 봤주. 강 보난 그날 저녁 식계(祭祀).

<조사자: 아~>

게난. 그 운전수 죽엇쨌 하는 말이 있어. 그 귀신 태워부난.

<조사자: 무사 죽엇덴 마썰?>

운전수가, 운전수가 귀신을 태왕 간거지. 게난 그 귀신이 식계 먹으러 가는 걸 태왕 강. 차비 아정오켄헤딩 노시 나오질 았이하난. 이젠 운전수

가 거길 들어강 보난 그날 저녁 그 처녀 식게주.

<조사자: 운전순 나중에 왜 죽언마썸? 무서웁 죽언마썸?>

경허난. 경허민(죽은 처녀를 보면) 죽넌도 해주. 귀신이 들렁.

<조사자: 귀신 썬웁마썸?>

옛날에 그런 말을 들엇주.

21. 손자를 감주술에 빠뜨린 할아버지

제 보 자: 진춘부(여·73세)

조사일자: 2002년 7월 27일

조사장소: 장전리 마을회관

- 요약: 제사 준비를 하지 않고 잠만 자고 있는 자식들 때문에 화가난 할아버지가 손자를 감주 끓이는 물에 빠뜨려 죽인 이야기이다.

옛날 막 저. 옛날에는 막 먼디도 걸엉만 덩기주.

<조사자: 예>

먼디도 걸엉 영. 산으로 걸엉 인제, 질 넘영가당 날이 저무니깐, 그 산 봉분 밑이 강 이제 즘을 자서. 즘 자당 보나네.

“할망, 식게 먹으래 가자. 오늘 식게 아이나? 식게 먹으래 가자.”

허난,

“난 아이 가커라. 할아방만 강 와.”

헤영. 우선 할아방만 식게 먹으로 강 보나네. 쿠롱쿠롱 즘만 자고, 무슨 걸 허염시나네. 감줄 숯앗던고라. 뒷날인줄 알앙. 식게날은 모르고, 감줄 숯압시나네. 감주 솟드레(술에) 아이 드리쳐동 와불어서. 허허. 경 곧는 말. 이것도 옛날 사름덜이 잘 고릅니다.

<조사자: 아~식게 준비 안해부난 마썸?>

거난 손자가 죽엇쩐 허는 말이여. 솟드레 술락(살짝) 빠정 죽언. 죽은

할아방이 식게 준비 안해 부난 손지를 솟드레 빠드린 거주게. 허허.

22. 가사장삼에 달과 별이 그려진 유래

제 보 자: 진춘부(여·73세)

조사일자: 2002년 7월 27일

조사장소: 장전리 마을회관

- 요약: 옛날에 사냥꾼인 남편과 그 남편 몰래 절에 열심히 다니는 부인이 있었다. 하루는 절에서 부인에게 가사장삼을 지어오라고 부탁했는데, 다 지은 가사장삼을 들고 절에 가던 도중 남편을 만난다. 자신 몰래 수상한 짓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든 남편은 부인을 활로 쏜다. 그러나 죽지 않자, 남편도 부인을 믿게 되고 같이 절에 가게 된다. 그런데 절에서 큰일이 난다. 얼마 후 열릴 법회에서 가사장삼이 필요한데, 남편이 쏜 활 때문에 모두 구멍이 난 것이었다. 이 구멍을 막기 위해 달과 별을 붙여 놓았는데, 이때부터 가사장삼에 달과 별이 붙여지게 되었다.

옛날에, 이제 시님들(스님들) 입는 가사장삼 잊지?

<조사자: 예.>

가사장삼이 잇는다. 등땡이에(등에) 그 저 행이(해) 빌(별) 그리고 둘(달)이 부쳐진거 잇잖아 이? 그거 부쳐진 것은 웬일로 부쳐졌는가 하믄은, 옛날에 이제 남편은 활쟁이, 이제 같으면 총이지만은 옛날엔 활이라. 이렇게 활쟁이고. 이제 활망은 남편 모르게 절간을 막 맹심하게 다니는다. 옛날엔 산에만 절간이 잇어난 모양이라.

<조사자: 예.>

산중에만 절간이 이시니깐, 이제 그 소나이(사내:남편)는 사냥을 가불지. 몰드래. 저 산에. 사냥을 가불면은 그 남편 모르게 절간엘 그렇게 열심히 땡겨.

<조사자: 예.>

열심히 땀기니깐 절간에서도 과절(과제를) 준 모양이라. 책임을.

<조사자: 예, 예.>

책임을 이젠 주니깐. 그게 뭐고 하니, 절간에서 무슨, 그 가사장삼을 짓엉 땀을 흘 모양이라. 이젠 내려올양 매틀(땀일) 동안 가사장삼을 지었어. 정행 그걸 갖고 절에 올라가젠 허난. 올라가던 도중에 오꽃 소나일(사내를) 만나서. 소나이한티 끌려불언(들켰다). 산중에서.

<조사자: 예.>

소나일 끌려비니깐. 어디 감시넌 허나네, 이만저만 행 가노렌 허니깐. 돌아사렌 허영 소나이가 총으로 쏘아서. 아! 활! 활로. 죽여볼젠. 아 경헌 디 안죽어. 따시 두 번 쏘아도 안죽어. 계난 이젠 기특하게 여편네가 절간 엘 땀기명 믿음다고 허여네. 가자. 절간엘 강 보켄.

<조사자: 아.>

강, 절간엘 강보니깐. 가사장삼을 보나네 오꽃 고양이(구멍)이 터져불엇어. 그 총으로 쏘아부니깐. 거 터져부난 절에선 난리가 난 모양이라.

<조사자: 예.>

절간에선 모래까지 그걸 허영 법회에 쓰젠헌 모양이라. 건디 그 고양이 나니깐 이제 이걸 어떻게 좋으넌. 경헌난 그 사름(남편)이 스실을 얘기 해서. 이만저만행 이걸 나가 터주운거라고. 이렇게 되시니 우리 여편네가 절을 기특하게 믿으니깐 이거 영 땀젠행. 이렇게 해서 그 장삼에 터진 고양이 막젠, 이제 돌 하고게 빌 기린 그림을 가사장삼에 부텃주.

<조사자: 아, 구멍 막젠 마썸?>

어. 계난 그렇게 절간을 믿어도 그렇게 믿어야지.

<조사자: 아.>

그렇게 해야 되어. 설법에 그렇게 말해서.

23. 콩이 얘기, 풀이 얘기

제 보 자: 진춘부(여·73세)

조사일자: 2002년 7월 27일

조사장소: 장전리 마을회관

- 요약: 옛날에 콩이 아기가 새엄마와 함께 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서 큰 잔치가 열리자 새엄마는 콩이 아기에게 지장(기장)을 뺏고 구멍이 터진 독에 물을 가득히 길어다 놓으라고 하곤 자신의 딸만 데리고 가버렸다. 그러나 새들의 도움으로 이 일들을 무사히 마친 콩이 아기는 역시 새들이 마련해준 옷과 신발로 치장을 하고 잔치집에 가던 도중, 고개를 넘다가 신발을 한 쪽 떨어뜨리고 만다. 그러나 이를 주운 청년이 콩이 아기를 찾아내어, 둘은 행복하게 잘 산다.

<조사자: 할머니, 어제 얘기 해 주켄헌 '콩이 팔이' 얘기 고라줍서.>

이녁 애긴 '풀이얘기'고, 큰 각시 난 애긴 '콩이얘기' 디. 콩이얘기는 콩만 숲아 쫓어. 콩만 숲앙 주당 보니, 아! 이녁 아기가 경혜신가? 바뀐영 고라졌어. 바뀐 고라전.

<할머니1: 이녁 애긴 '풀이얘기'고, 큰 각시 난 애긴 '콩이얘기'주.

이녁 아기는 풀빈데기(풀집데기)만 데작데작하고, 콩이얘기는 막 고와. 경허난 이녁 난 얘기 풀이얘기는 막 존걸로만 숲망 주고, 콩이얘기한테는 아무거나 막 주엇주. 경훈디 이제 그 뭐 잔치 먹으렌가를 가명 허는 말이.

"이제, 풀이얘기라그네는 비단옷 입영 오고, 콩이얘기는 지장밭에 강 지장을 빠덩 또시 독에 물도 채워똥 저 창고에 갈중이 이시메 입영오라."

<조사자: 창고 안에 갈중이를 입고 오렌마씨?>

어. 갈중이를 입영오라.

<조사자: 헌 갈중이를 입영 오라.>

입영오라 허난, 아명 지장 밭에 강 시장을 빠도 빠아져게. 또시 구멍이 터진 독에 물 질어당 ㄱ득 부어도 채워져게.

아명 지장을 빠아도 다 못 빠아. 혈수어시 이젠 영 너나네. 널랑널랑 생이(참새)가 놀아 땡기명.

"널영 지라(널었다가 지어라). 널영 지라." 그렇게 헌 모냥이라.

<조사자: 널영 지라?>

널렌. 그래 방석에 널라고. 경허난 이제 지장을 넣어워서 이제 물강 저당 그 터진 독에 채웠주. 빨리 물 저다그네 비워덩 잔치 먹으레 가젠. 물점 오당 보난 생이가 '찌찌찌찌찌찌찌찌' 허멍 그걸 먹는 것 같아. 경행 "아이고, 이거 까서 먹지 말라. 우리 어멍오면 욱한다." 건디 '푸~'허 난 쓸은 빠지고 채는 하늘 우트래(위에) 불러붙어.

<조사자: 아. 생이가.>

생이가 도와준거지. 그걸 까쥬. 이제 독에 물 강 채우젠 부지런히 지 어날랐주. 건디 아무리 해도 독이 그득차질 아니여. 그때,

"굳엉지라(굳어져라) 굳굴락 굳엉지라 굳굴락" 허렌. 그것도 송진을 어 디강 앓어왕 구멍에 바르멍 허렌.

<조사자: 송진은 누가 앓멍와 마씨?>

그 생이들이 그렇게 도와쥬.

<조사자: 아. 새들이 송진을 가져완마씨?>

거난 송진 앓어당 구멍을 메우난, 터진 독도 그득 차지고게. 또시 생 이들이 "어디 어디가 보닌 비단웃인가 무슨 웃인가 있고, 어디어디가 보닌 가막창 신도 있고, 저 대밭디강 보닌 물도 싯고" 허멍 막 고라쥬.

<조사자: 경허난 마씨. 쟁 어멍 된 마씨?>

제난 이제 그 옷 입고 그 신을 신고 허여네 물을 타고 그 잔치 먹으 레 간. 가당 어떤 남자를 만나신디 오쑤 그때 왼쪽신이 벗겨정 잃어버려 서. 이제 헐수어시 신 혼착만 신고행 들어간. 들어가난 막 이녁 난 애기 (풀이야기)보다 잘 출령 갈거 아니라게.

"아고! 어멍 저거 봐. 저거 봐. 소모 꿩이야기 막 출령 와서."

"경허지 말라. 가이가 올 리가 없다. 그 지장 발에 지장 빠고 밀터진 독에 물져동 올 리가 없다."

경허멍 보니깐, 이제 그 신 벗어둔거 봉근 남자가 들어와네, "아무라 도 이 신 발에 맞은 사람은 나 각시 도라가켜" 현 모양이라. 이 신 발에 맞 은 사람은 나 각시로 도라가켄 허난 풀이야기가 나와네 신을 거꾸로행 신 어봐도 안 맞지. 안 맞으면 그전 못 도라가고 "저 꿩이야기렌 현 사람은 영 나와보라. 신어봅써." 영허게 신으니깐 똑이 맞아. 맞으난 그 사람이

이제 콩이애기를 데려갓젠. 그렇게 말허여.

<조사자: 아.>

게난. 죽은 어머님이 도와준거주게. 죽은 어머님이.

<조사자: 나중에 결혼헛덴 마썸?>

결혼헛 잘 살앗덴허주. 남자가 대감 아들이주. 대감 아들.

24. 할망당 이야기

제 보 자: 진성호(남·82세)

조사일자: 2002년 7월 28일

조사장소: 장전리 마을회관

- 요약: 몽고는 땅이 대부분이 모래밭이라 물이 귀했다. 때문에 물이 나는 곳에는 나무를 세워 나무에 빨간색 한복으로 기를 만들어 걸어두었다. 몽고가 제주도를 지배할 때에 그것을 본 제주도 사람들은 그것이 영신이 있는 곳이라 생각했다. 이것이 연유가 되어 제주도에서도 나무에 한복을 매달아 당을 모시게 되었고 이 마을에서도 할망당을 모시게 되었다.

<조사자2: 장전초등학교 잇잖아 예? 그 앞에 할망당 잇잖아예? 동산에.>

어어.

<조사자2: 혹시 할망당에 얽힌 이야기 이서 마썸? 할아버지 들었던.>

하하

<조사자1: 할망당이 옮겼다그네 다시 온거잖아예? 무사 옮겼다그네 왔덴헌 얘기 못들었습니까?>

그러니 그거를 이야기 할려면은 그 우리 역사에 제주도가 몽고 사람들 오라네 제주 사람들을 그저 못살게 굴엇신디. 그래서 제주도뿐만 아니고

우리 나라를 그렇게 못살게 굴었어. 못살게 굴었신디 그 몽고 사람들이 과연 우찌헤가지고 그런가 하면, 몽고 사람들이 막 혜적, 옛날엔 혜적이라 해놔신디, 몽고 사람들이 혜적질을 해줬어. 그리고 몽고 사람들이 즉 말하자하며는 살 터거리가 얼마 없어. 몽고는 저 돌 하나 그거를 위주로 헤가지고 살았어. 알지 몽고 모래밭, 가도가도 끝이 없는 모래밭. 따무네(때문에) 살 길이 별로 없는데 그 몽고 사람들이 그 때 당시 그렇게 잘 살았어. 어찌헤가지고 몽고 사람들이 그렇게 잘 살았신고 하면은 그 몽고 사람들이 쟈 어려운 것이 물이라. 가도가도 끝이 없는 모래 따무네 물이 제일 어려운데 그 모래밭 가운데 나무만 잇으면은 저 나무 잇는데 물이 솟아나. 그러서 그 나무 잇은 데에 빨간 헌복(한복)으로 그 기를 매달려. 그 무삼인고 허면은, 막 목마른 사람이 여기 물이 잇으니 여기 오라그네 물 가져가시오 하는 신호기라. 그것이 우리 나라 사람들이 아차 몽고 사람들이 신을 믿엄구나. 그래서 몽고 사람들이 뭘 허는구나. 그래서 우리 나라에도 그러고 제주도에도 당을 모시게 댘지. 당은 모셔가지고 빨간 헌복, 하얀 헌복 다 가지각색으로 여러 헌복을 당 할망들이 막 그래가지고 그런식으로 헤가지고, 제주도에 당할망을 모시게 댘신디.. 마치 한가지로 우리 마을도 당 할망을 모시게 댘었고

25. 저승에서 살아온 이야기

제 보 자: 진성호(남·82세)
 조사일자: 2002년 7월 28일
 조사장소: 장전리 마을회관

- 요약: 옛날에 어떤 사람이 죽어 저승길을 가는데 황천길에서 주는 물을 받아 마시지 않았다. 그 물은 마시면 이승의 일을 잊어버리게 되는 물이었다. 고집이 어찌나 센지 그 물을 받아마시지 않자 다른 저승사람들의 항소로 그 사람은 자기집의 소로 태어나게 된다. 그러나 모진 노동을 이

가지 못한 그는 손자를 다치게 하게 되고 도살장에 끌려가 또 죽게 된다. 그러나 그는 또 황천길에서 그 물을 받아 마시지 않아 또다시 집의 뱀으로 환생한다. 그러나 손자의 몽둥이에 맞아 죽어 또 저승길에 오른다. 이번에도 역시 물을 받아 마시지 않자 다시 그 집의 손자로 환생한다. 그러나 어린아이가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누구에게나 반말을 하자 건방지다 하여 감옥에 갇혀 굶어 죽는다. 그러나 이번에도 물을 받아마시지 않아 결국에는 그집의 가장 나이 많은 할아버지로 태어나게 된다는 이야기이다.

얘기하여?

<조사자: 예.>

옛날에 모 어떤 분이. 우리 속담적으로 저승 저승 흐는다. 그 황천길 이?

<조사자: 예. 황천길.>

그 황천길을 가며는 똑 으만한 걸로(손으로 막사발 모양을 그리며) 물 하나 맥인다고. 저 세상으로 가며는. 그 무사 으만한 걸로 물을 맥이는 가 하며는 이 물을 안 먹으며는 여기(이승) 생각만 생각만 해 가지고 질러 갈 수가 어서.

<조사자: 아~ 물 안 먹으면 지나 갈 수가 없어마씨.>

아! 물 안 먹으며는 우리 저 시방 고향 생각나는 식으로게. 여기 생각 막 나가지고 여기서게 지낼 수가 없거든게. 그러니게 잇은 사름덜이 환장 하게 굴어. 그러니 이 물을 하나 먹으면 여기 생각은 통 잊어버리고 거기(저승) 생각만 허게 된다.

경헌디. 흐 사름이 아주 믿음(마음)이 강택한 사름이 잇는다. 아~그 물 먹지 말젠 허영그래게. 그런식으로 그 사름이 저 세상으로 가신디. 아! 그 물을 주니. '딱!' 하니 자게를 물고 그 물을 안 마셔서. 맨달 맨날 7따 쥐도(갓다 쥐도) 그 물을 아니 마셔. 하~그 혼놈 따문애(때문애) 거기 저승 간 사름덜이 막 불안해 가지고. 즉 말허민, 그 놈 하나로 "우리 좀(잠)도 못 자고 도저히 살 수가 없수다." 저 놈 어떻 처분을 해야지 안 되켤. 저기 저승황제(옥황상제) 상소를 헛지.

<조사자: 아~저승황제한테 마씨?>

영~ 어쩔 혼늬이 이승 생각만 해 가지고 영~불안해가지고 살 수가 없으니, 저걸 어떻게 처분해 도렌하니. 아! 그물을 아멩(어떻게든지) 먹이진 해도 입 '딱!' 다물영(달아서) 절대 그 물을 먹질 안 허영.

경행. 헐쑤어시(할 수 없이) 그 사름 환생시경으내, 그집더레 쉼(牛)로 환생시경. 그집더레 보내불렌.

<조사자: 소(牛)로 마씨?>

어. 쉼로 환생시켜그네 보내 불렌하니, 아. 쇠로 환생 시켜그네 그 집더레 보내 부러서. 경행. 보내부러신디. 아저 그 집에 오란에 이신디. 그 저 자기가 그 집 조상이 거든게. 즉, 말하민 하르방라. 하르방데. 그 쇠로 환생시켜 보내부니, 하르방를 코에 피어 가지고 이끄렁(이끌어서) 막 땡기고.

<조사자: 하하하.>

아 막 답돌이 허는디, 쳐어 답돌이 허영. 하도 윈 쥘디당 쥘디당 못 쥘디영.

'에라 이거 못 쓰켜. 그냥 손지(손자)고 뭐이고.'

손지 하나를 그냥 빨로 확! 잡아 쥘려 케우려 부니(빨로 받아서 손자를 날려 버리니) 천장 모냥 강 업더져네(엮어지니) 손지가 크게 다치거든 다치니. "이만 쇠 이거 잡아 먹어 부려야지" 아니되켤. 도깨빌레 알아져?

<조사자: 몰라마씨? 도깨빌레가 뭐 마씨?>

왜정 때에 쉼 잡는디를 보고 도깨빌레 영 허여.

<할아버지1: 옹포!>

<조사자: 옹포마씨?>

<할아버지1: 옹포가 저 거기가 전부 갈시메 공장. 전부 쉼 잡는디엿주.>

<조사자: 예. 경행 어떻게 마씨?>

그래서 도깨빌레가 그네. 요 농꺼정한 낫으로 요 빨더레 '딱!' 찍으니, 덩정허게 업더경. 쇠는 죽어냉. 또시 저세상으로 가서.

<조사자: 하하하.>

하하. 아. 또 저세상으로 가신디. 다시 그 물을 먹으려했어도 절대 안 먹어. 또시 그 사름 하나 때문에 거기 잇은 사름덜이 막 불안해 가지고, “아이고! 저 사름을 어떻게 치워 줘야지” 안되켤. 다시 또 저승 황제한테 상소를 하니. 저승황제가 그 표주박으로 물 맥여불렌.(먹여라) 표주박으로 물을 맥이젠 하니, 입 ‘딱!’ 좀거부렁(다물어서) 절대 물을 못 매겨.

이젠, 물을 먹지 아니헿. 헤 불 도리가 없수덴. 아이고! 갱 흐거들랑 그 집의 배엄(뺨,빈)으로 환생흐그네 그 집드레 보내불렌.

<조사자: 하하하.>

배엄으로 환생시경 그집드레 보내부니, 아 저. 소위 말흐는 구렁이!

<조사자: 예. 구렁이!>

구렁이가 되어 가지고 그 집이 주변을 뺨뺨 돌안. 배는 막 고프고 이젠 돌멍 쥐(鼠)라도 싯견(있으면) 먹어보젠. 뺨뺨 돌아가니. 아! 그 손지놈이

“구렁이 저기 나타났져! 나타났져!”

흐멍, 크멍크멍(?) 심어녕(잡아서) 그냥 막 타작헤네(두들겨서) 입(뺨의 입)에 소금 막 담고 헤네, 어디강 던져 버렸거든.

<조사자: 하하하.>

경헿. 다시 또 저 세상으로 갔어. 저 세상으로 가신디. 헤헤.

<조사자: 하하. 세 번째 왔구나 예? 하하.>

저 세상으로 가신디. 그 물을 절대 안 먹어. 입 ‘딱!’ 다물어 가지고. 그래서 배엄으로 왔다가 손지덜이 때려 죽여네 입에 소금 막 담고흐네 어디강 툅겨부러네(던져 버려서) 또시 저 세상으로 갔다말여!

아. 또 가니, 그 물을 멕이니 절대 안 먹어. 입 ‘딱!’ 다물어서. 또 이젠 거 저 세상 사름덜이 하도 불안해 가지고 “이 놈 때문에 도저히 살 수가 없다”고. “도저히 줌도 못 자게 흐고 이거 도저히 살 수가 없다”고. 도저히 줌도 못 자게 흐고, 이거. 그 거기 생각(이승생각)만 헤 가지고 뭐 하니 도저히 안 되켤. 이제 다시 황제한테 상소 하니네.

<할아버지1: 염라대왕이렌 고릅써.>

<조사자: 예. 염라대왕 훈티예?>

계난. 그거 “골란하다. 골란하다.” 이젠. 그디 자손으로 환생시경 보내 불렌. 자손으로 환생시경 보내부니. 이제 그디 자손이 되신디. 아! 으놈이 거시 커 가는다. 아방(아버지)이란 말 고를 줄 알아도 아방이렌 노시 아니 고라. “이 새끼!”, “저 새끼!” 어른 보고도 “이 새끼!”, “저 새끼!”.

<조사자: 아~. 다 자손이니까.>

막 늙은 하르방도 “이 새끼!”, “저 새끼!” 아! 이런 망할 놈이 새끼가 있나. 헤헤. 아 경헨 그 말이 혼 귀 녀영 두 귀 녀영. 막 우리나라 임금 혼 티까지 올라 갔지.

“아! 그 아이 심영 보내달라.”고.

어떻헌 아인지. 즉, 말하젠 흐민, 국민학교 졸업생이나 될만한 놈이 어른을 모른단 말이여. 아. 한 귀 녀영 두 귀 녀영. 우리나라 대통령 신디 까지(있는 곳까지) 상신(불려감:추축)이 되난. 아! 대통령 신디가도 “이 새끼!”, “저 새끼!” 경헤.

<할아버지1: 아~그 시절에도 대통령 시어? 헤헤.>

아. 가목방(감옥)에 가그냉.

<조사자: 어디마씨?>

감옥에!

“감옥에 가그냉 징역을 얼마간 살령. 버르장머리를 고쳐야지주”

아! 감옥에 강 살아도 그 버르장머리는 그대로라. 그대로디. 어떻 흐 다보난 디시 혼디 죽어부러터. 그 막 물란게(말라서).

<조사자: 아~ 감옥에서 굶영 죽엇구나예?>

영. 막 굶명게. 하도 거시기 흐난. 또시 저 세상엘 갓단 말여. 또 다시 그 물을 멕이니 영 아니먹어. 헤헤. 아 갱 흐단흐단 버치니. 이번이랑 그 집의 젤 늙은 하르방으로 환생시경 보내불렌. 막 늙은 하르방으로 게!

아! 늙은 하르방으로 환생시경 보내니 이 하르방이.

“이제 난 제라한(꼭 맞는) 집을 찾았다.”고

영명흐고 하며는 그 전설(자기의 저승간 이야기)을 다 얘기 하는거라. 이 만 저만 행. 나가 저 세상으로 간 때에 그 표주박 물을 아니 먹은 때문에 저 세상 사름덜이 아주 불안헤 가지고 나를 이승더레 쉼로 환생시경 보내

분다. 아! 자손덜이 나를 코에 띄어 가지고 막 두두려 타작하고 해 가지고, 속상하게 손지 하나를 뿔로 꺾령 캐우렸더니, 저어~도캣빌레에 가네 그만 패두두령 날 죽여버리난. 또 저승엘 가그네, 헤헤헤. 이런 얘기를 다 얘기를 하그네. 웃대 조상으로 환생행 보내난. 웃대 조상을 와 가지고 이 러 이러 했다. 전설 얘기를 다 훈거지.

나가 이 집이 쉼로도 환생행 와 나고. 베엄으로도 환생행 와 나고. 이제 저 다 해신디. “너네덜이 다 나 자손인디. 어찌 나가 너네덜훈티 ‘예’를 쓸 수가 잇느냐?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대통령도 나보다 몇 대가 아렌디. 내가 ‘예’를 쓸 수가 잇느냐?”

그래서 갱 했다는 그런 얘기를 하니, 그 때는 “아! 저승길이 그런 길이 구나!” 한 걸 글로부터 알았다는 그런 얘가지. 헤헤헤.

26. 거짓말쟁이 이야기1 (참새 이야기)

제 보 자: 진성호(남·82세)

조사일자: 2002년 7월 28일

조사장소: 장전리 마을회관

- 요약: 옛날에 거짓말을 잘 하는 사람이 다음과 같은 얘기를 했다. 조 농사를 하는 사람이 참새를 쫓으려고 칩을 덧으로 삼아 참새를 모조리 잡았다. 그 참새를 한꺼번에 먹으려고 한 마리씩 손질을 하는데 벌레가 꼬여 한 마리도 먹지 못했다고 한다.

<조사자: 옛날 이야기 해 줘서.>

저기. 거짓말 그런 얘기도 하나씩 들어야 허여. 옛말에 모 훈분이 하도 거짓말을 잘 하는 분이 잇는디. 그 분이 또 이 자리처럼 모여 앉아신디. 그 분이 오라시나네

“아이고! 거짓말이나 훈 곡조 험씨.”

흐나네,

“아. 이 사름덜이! 왜 거짓말을 혼단말여. 사람이 바른 말을 허멍 텅겨야지.”

“아. 그럼 바른 말이라도 험써”

흐나네. 이제 바른 말은 저. 나가 어느 밧뒤(밭에) 농사를 저신디. 아 그 조를 갈아 놔두난 참새떼덜이 드렁 하도 그 조를 먹어가난. 거 헤볼 도리도 없고. 그 밧 주변에 이제, '꼭' 알아져? 칙?

<조사자: 예. 칙!>

칙이 막 좋아신디. 그 칙을 가네. 그 훑을 막 훑어내영 놔 두엇거든. 게난 아 그 참새덜이 오라네 하도 조를 먹어 가길래. 진 대(긴 대나무) 고 정강(가져가서) “취~ 취~”허난, 그 참새덜이 칙싹 훑어 놓은 자리더레 강 다 앉더라고. 앉은디. 흐끔(조금) 늦어가난 별이 ‘와싹’ 나더니만은, 칙싹이 영 퍼와졌다가 별이 나가난 영 오그라져서(두 팔을 안으로 접으며)

<조사자: 아아.>

아. 오르라 지나네. 저 참새놈덜이 칙속에 맨딱(전부) 그냥 간챠다말여. “파슬락! 파슬락!” 허멍 나가지 못 행. 지랄을 허나네. 아! 그것을 그 래 한 집을 저다가 참새 하나를 거 먹고 말고 험껏도 없고. 한꺼번에 다 허영으네 먹젠. 흐나 꺼넝 그거 손 봐그네 다른 것 흐나 손 보고 허나네. 아! 몬여(먼저) 흐진 게 쉬파리가 고여네. 막 버랭이가(벌레가) 비글 비글 나오는 거라. 아! 그래서 참새를 그렇게 많이 잡아도 흐 마리도 먹어보지 못 험다. 하하하. 이게 춤 말인가 거짓말인가?

<조사자: 하하하.>

27. 거짓말쟁이 이야기2(소 이야기)

제 보 자: 진성호(남·82세)

조사일자: 2002년 7월 28일

조사장소: 장전리 마을회관

- 요약. 포목장이 물건을 실고서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비가 내려 내를 건널 수 없었다. 소의 뿔을 잡아당겨 몸뚱이가 건너편에 넘어가게 하고 모가지를 잡아 내를 건널 수 있었다.

다시 얘길 “헛썬, 헛썬” 하나네. 얘기를 하니, 저어 포목장이 대정간에. 이제 포목을 쇠(牛)에 실콕(실어서) 오다가 엄청나게 비가 쏟아졌다말여. 내(川)에 오라네. 이 내엔 헌디가 어딘고 하며는 이 저, 산업도로로 서레(서쪽으로) 가며는 저어 어디가 이서. 저, 새별오름! 새별오름 다 알지?

<조사자: 예, 새별오름!>

글로 저 서레로 가민 내가 이서. 내가 잇는다. 그 내에 오란보니, 내가 엄청나게 크게 내리는데. 아맹해도(어떻게 궁리를 해 봐도) 집어 가긴 가야 할 건디. 헛썬없이. 썬 양쪽 뿔을 으러케 심어가지고(뿔을 잡는 흉내를 내며) 내 셋 바위(서쪽 바위)에서 동 바위레 ‘횡’하니 던져. 던지니, 아그 쇠가 몸뚱이는 서 바위로 ‘착’하니 날아가고, 아 모가지는 손에 그대로 집어이서, ‘확’ 빠져 가지고!

<조사자: 하하하.>

모가지는 ‘확’ 빠져가지고 손에 집어이서. 이제는 활짝 그 내를 뛰어 건너네. 그 썬 피나기 전에 ‘딱!’ 부치노란게 거꾸로 부쳤어. 헤헤헤. 거꾸로 부치니 썬이 살아나긴 살아나신디. 눈, 코가 없어놓니, 집을 찾아 오라져야 말이지. ‘이래 들썩’, ‘저래 들썩’ 헤헤헤. 그게 춤말인가 거짓말인가?

<조사자: 하하하.>

28. 기러기 타고 세계일주 한 이야기

제 보 자: 진성호(남·82세)

조사일자: 2002년 7월 28일

조사장소: 장전리 마을회관

- 요약: 보리농사를 하는 사람이 기러기가 보리를 먹어대자 질긴 배를 가지고서 밭을 놓았다. 그 밭에 기러기 여러 마리가 걸려 들었는데 마침 배 줄은 그 사람의 배에 연결되어 있었다. '줘어'큰 소리를 내니 기러기가 날아올라 그를 중국으로 영국으로 데려다주어 세계일주를 했다는 이야기이다.

그 사람이 밭에 보릴 가랑 놔둬신디. 아 기러기떼덜이 오라네. 보릴 막 다 먹거든. 먹어가니, 아~ 요즘이야 나이롱 줄이라도 잊지마는 옛날은 나이롱 줄도 없꼬. 그 배를 아주 질긴 걸로 새끼를 꼬아가지고 돈돈히 묵껍(묵어서). 그 밭디 가지고 가서 으렇게(손으로 고리를 받들면서) 코를 놔서. 아! 기러기덜이 보리먹엉 가다가 그 야가리(목아지)가 영 걸리게 시리!

<조사자: 예.>

기러길 잡을라꼬 코를 영 놔두니, 기러기가 보리를 먹엉가명 그 코에 전부 걸리거든. 그 때 '줘어~(아주 큰 소리로)'허니, 기러기 혼 백 마리가 퍼드럭하게 놀더니만은 그 사람을 공중더레 확 끌어올려부러. 아! 그 사람 몸뚱이에 배를 졸라 맏다말려. 배를 질라메니 그냥 등등 하늘로 날아올라가. 그래서 어딜 가시고 하니 중국을 날아가.

<조사자: 아. 중국까지 날아간마씨?>

그렇지. 아 넓은 들판에 가네 주루루 하게 앉거든. 앉으냥 이제 중국을 혼참(한참) 구경하고. 다시 몸뚱이에 졸라맹. '줘어~'허니, 또 기러기가 퍼드럭 하게 놀더니만은 이번에는 영국을 갔어.

<조사자: 하하하. 영국마씨?>

하하. 영국을 뉘라간 혼참 구경하고. 다시 이제 또 '줘어~'허니 또시 미국을 뉘라갔어. 하하. 그래서 그 기러기 때문에 세계 일주를, 이 몸뚱이 졸라 메어 가지고 다 했다는 얘기라.

29. 소똥장이 1

제 보 자: 진성효(남·82세)

조사일자: 2002년 7월 28일

조사장소: 장전리 마을회관

- 요약 옛날에는 작은 어멍에게서 난 자식(서가지)는 제삿날 안에 들어가 지 못했다. 소똥장이라는 사람도 서가지였는데 재치있게 행동하여 제사에 참석할 수 있었다고 한다. 소똥장이때부터 서가지도 제사에 참석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다.

이 분도 강씨(氏)지만은(조사자 한 사람을 가리키며), 그 강씨가 입체를 안해신디. 실제 잇어난 얘기라. 소똥장이라는 한 분이 잇었지. 소똥장이!

<조사자: 소똥장이마씨?>

소.똥.장.이. 거. 이것도 알아야 뉘. 무사 소똥장이라 험신고(하는가) 허며는 그 소똥장이렌 현 마을이 여기 썬어 동쪽더레 가며는 이서. 소똥장이렌 현 마을이 이서. 거기 장가를 가게 뉘며는, 옛날은 그 장가간 마을 이름을 따 가지고 '○○장'이렌 흐거든. '○○훈장'이렌을 흐든지. '○○대감'이렌 흐던지. 그런 식으로 소똥장이렌 현 분이 이서나신디. 그 분이 서각이라. 서각이렌 현 것도 모르지?

<조사자: 예. 뭐마씨?>

<할아버지1: '서가지' 말이우 광? 작은 어멍에서 난 자식더레 서가지엔 허주.>

작은 어멍에 난 자식보고 서가지렌 허여. 그 소똥장이가 서가지라. 그 분이 아주 옛날에 무력이 세서.

<조사자: 아. 힘마씨?>

힘(力)이든 말(言)이든 그렇게 세 가지구. 옛날에는 서가지에 난 사람이 길제사 때에, 길제사! 아 그 시께맹질(제사와 명절) 때에!

<조사자: 예.>

서가지에 난 사람은 안에 들어가질 못하여. 그 바깥에서 뉘물(? 제물)이나 주전 머꼭(머고). 그런식으로 옛날에 헤 낫지.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일본놈덜한테 고통을 당하고 헤신디. 이제는 그런게 전혀 없어서 부렀지만도.

음력설이난 얼마나 추울거라게. 그디 문뚱에(문 앞에) 앉으렌 허민 추영 쥘더져게. 그래서 이 소똥장이렌 흰 분이 안터레(안으로) 들어갓어. 안터레 들어오라가난.

“이놈이 어찌 안터레 들어오느냐? 바깥터레 나가라!” 허난

“아! 보찌도 궤민 적이우다!” 헤. 보찌렌 흥거 알아져?

<조사자: ‘보찌’마씨?>

<할아버지1: 적(炙) 몰라?>

<할아버지2: 적이 아니고. 으만씩 흥거슨(손가락으로 옆에 있는 나무젓가락의 4등분한 지점을 가리키며) 보찌렌 흥고, 진 것은 진 보찌렌 흥는다. 반듯이 그것을 고사리나 콩나물 거튼 채소위에 다 양쪽에 이렇게 해서(두 팔로 상 위에 올리는 시늬를 하며) 두 가지를 올리거든. 지금도 올리고 이서.>

<조사자: 예.>

“보찌도 궤며는 적이다!” 아! 이추룩(이처럼) 흥게 적 아니라게.(탁자 위에 손으로 그리면서) 건디. 보찌는 으만씩 허주게. ‘이것도 궤민 적이된다’ 흥는 말이주.

아! “보찌도 궤며는 적이다!” 그리면서 안터레 들어오라네 턱 하니 앓아. 그래서 소똥장이렌 흰 분이 그 첫 코를 텃다는 거지. 서가지렌 헤도 소똥장이 모냥 익새며는 방안에 들어올앙이네 제사를 모신다는 얘기라. 그래서 그 전설로 남아 잇어.

<할아버지2: 계난. 소똥장이가 서가지에 태어나 가지고, 제사 참석을 그 할아버지 때부터 허기 시작했다는 이런 얘기주.>

어. 그 하르방이 헤젤(해제를) 시켰다는 거지.

<조사자: 아. 옛날에는 제사에 서가지는 참석을 못 헤 나신디. 그 할아버지 때부터 허게 됐다.>

30. 소똥장이 2

제 보 자: 진성호(남·82세)
조사일자: 2002년 7월 28일
조사장소: 장전리 마을회관

- 요약: 억센 소똥장이 남의 피를 베어 훔치고도 그 피의 절반을 받게 된 이야기이다.

근디. 그 하르버지가 어떻사(어찌나) 억센 하르버진지. 흥번은 저어 동 목장에 텅기다(다니다) 보니, 그 피맛실을 가라가지고 아주 좋은디가 이서. 그 새밭 이긴디가 이서(밭을 새로 만든 좋은 밭이 있어). 그 목장을 개간시켜 가지고 그디 농사를 지었지. 옛날은 비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때문에 그런 식으로 밭을 만들어서. 저어 산 앞더레 가며는 목장밭이엔 하는 밭 달이 이서.

근디 목장에 텅기당 보난 아주 너른디(넓은 곳) 어느 밭에 그 피맛실이 가 잘 자랑이서. 학생덜 피맛실이 흥면 모르지?

<할아버지2: 피는 알테주만 마실이는 모르지?>

<조사자: 마실마씨?>

<할아버지2: 허허허. 밭따 가는 피가 이서.>

전디 그것이 건 줌 익어그네. 흥 일주일이면 빌흥니 됐어. 빌흥니 돼 신디. 아까 고른 소똥장이렌 흥 분이 눅덜(일꾼들을) 비렁간(빌어서 가서는) 그걸 비영 눅쳐 버렸어(피를 비어서 눅혔다). 비영 눅쳐 부러신디. 아 그 근처 사름이 텅기당 받(다니다가 봐서)

“아! 그 곡식을 다 비영 눅졌더라.”고,

이제 그 사름한티, 곡식 간 사름한티 얘길 한거지. 얘길하니,

“아! 이럴수가!” 흥명.

이제 밭에 오란 지키는 거지.

“피를 비어쓰니 언젠가는 목끄레(뉘으러) 올 테지.”

이제 숨영 기다리니, 아년게 아니라 그 소똥장이가 놉덜 췌리고(데리고) 해서 나타났어.

“하하하. 도둑놈은 너로구나! 어찌해 가지고 남이 곡식을 말도 없이 이추룩(이렇게) 비엿느냐?” 호난.

“아~. 이 자식아! 내가 임자지. 넌 뭘데 나신디 올양 그런 수작이냐?” 호는거라.

이젠 돌라부텅(달라 붙어서) 싸울거 아니?

<조사자: 예.>

싸우는다. 소똥장이한테 감당을 못 하여. 똤라 부트민, 그자 저래 심영(잡아서) 똥 하니 데끼고(던지고), 쟁 이리 갈라지고 저리 갈라지고. 이제 는 심(힘)으로 감당을 못 호난, 이 사롬이 관(관청)에 가서 고소를 헛지. 아. 이제 관가에서 소똥장이라도 부르고, 그 고소한 사롬도 부르곡 헤 가지고.(소똥장에게)

“어찌해 가지고 남이 곡식을 함부로 그렇게 가서 비어 놉졌느냐?” 하니.

그 측에서도 사롬(밭 주인)이 잇고 이 측에서도 사롬(소똥장)이 잇는데, 그 송사(訟事)를 즐렸어.(소똥장이 송사에서 졌어.) 무데기로(한꺼번에) 가서 빈 사롬이 송사를 즐렸단말여. 아 근디 소똥장이렌 현 사롬이 그 관가 무똥에 나오란 춤을 똤씩! 똤씩! 취.

“그렇지! 그렇지! 재판장님이 그렇지!” 허멍.

이제 그 재판에 이긴 놉이 호꿈(조금) 이땅 영 나오다 보니. 재판 이겼 귀렌 허멍 재판 즐린 놉이 춤을 똤씩 똤씩 춘다말여.

“야! 너 이 자식아! 재판 즐린 놉이 재판 이기고렌 춤 칩나?”

“그렇지 나가 재판 이겼지. 내가 재판 즐렸나?”

“이 자식아! 재판은 나가 이겼지 너가 이겼나?”

“아! 재판 나가 이겼지.”

이젠 헐쑤없이 또 재판 허레 들어갓단말여. 또 재판허레 들어간 이 재판장이 영 보다가, 그 재판 이긴 놉 보고,

“저 사롬한테 곡식 반 갈라 쥐 불라. 반 갈라 쥐 부러야지. 넌 자격이

못 되어. 저 곡식을 전부 가져다가 먹을 자격이 못되어.”
경행. 재판장이 판결을 내리더라는 얘기. 하하하.
<할아버지1: 실화! 실화! 하하하.>

31. 변찰방 이야기 1

제 보 자: 진성효(남·82세)
조사일자: 2002년 7월 28일
조사장소: 장전리 마을회관

- 요약: 변찰방이라는 고집세고 심술궂은 이가 있었다. 욕심과 심술 때문에 좋기가 난 일이 있었는데 그 피고름을 본향에 가서 막 부비었다. 그 후로는 짝이 맞아야 재비가 맞는다고 하여 그 오당에는 변찰방을 위해 메밥을 하나 더 가져간다고 한다.

<조사자: 변찰방 얘기 고라줍서.>

변찰방? 변찰방 그 얘기는 아까도 얘기 했드시 그렇게 그 어저지(고 집)가 세서. 아까 그 쇠똥장이 말마따라. 변찰방이 작은 아들이다. 아덜이 세 성제(형제) 중에서 작은 아덜이다. 하도 어저지가 썩어 가지고. 검질(밭에 잡초)을 벌엉 매게 되며는 그디 검질 매려 가그넝 검질오 아니메고. 밧 띠강 영 보다가 떨어지는 사름(뒤쳐지는) 이시민 이런 몽둥이 가정가그네 화씩 두두리고. 또 앞에 넘어가는 사름(너무 앞에서 사름) 이시민 또 달려가 그네 손모개기(손목)를 화씩 후리고. 그런식으로 어저지가 세신디.

이제 변찰방 어멍이 오당, 오당! 오당빌레 흐는 오당이 이신디. 아! 당할망게! 당할망신디 갈라허믄(가려고 하면) 사전에부터 준비를 해. 아 우리 옛날식으로 곤쌀(고운쌀, 흰쌀)이나 바당피기(바다고기) 하근 것 정성껏 해가지고 놔 뒷당게 가져든. 아 근디. 그걸 변찰방이 놔뒤시난 몬딱 밥 행 먹어부러서. 게난 어멍이 이제 당할망훈티 가젠 보민 그게 잊어게.

<할아버지2: 하하. 그 몇번을 행 놔두민 그 하르방이 먹어불고 먹어 불고 헛주.>

게난 그 어멍이 흐는 말이 "저 아덜 놈의 새끼. 종기나 두룩새기(?) 모냥 나 불라!" 이 말 알아져?

<조사자: 모르쿠다. 무신말 마씨?>

종기엔 헌건. 허물.

"종기나 두룩새기 모냥 튀어 나불라! 나 아덜 놈의 새끼!"

이렇게 욕을 헛다말여. 아! 아년게 아니라 종기가 으렇게(오른손으로 왼손 엄지손가락을 잡으며) 튀어났다말여. 으렇게 튀어나니 그막 알코허 난(병으로 앓으니) 그 어멍이 흐는 말이,

"제나 잘 관다리어!(아주 잘 되어 부렀다!)" 헤.

본향에 가젠 하근 음식 철령(차려서) 놔둔거 먹어부난 그 췌라 헤나 네.(하니) 아! 지금 젊은 분들은 모르지만 변찰방이가 손으로 동그란 방석을 채.

<할아버지1: 동그란 방석이서. 짚으로 만든...>

변찰방이 손으로 방석을 췌 가지고, 방석위에 바늘침을 꼽아 놔그네 자락 들러 앉았지. 앉지난 피고름이 막 엄청나게 나는거라. 피고름이 엄청나게 나니, 그 피고름을 본향당 할망신디레 가져강.

나 인칙도 얘기했지이. 붉은 형죵, 흰 형죵, 파란 형죵 별헌 헌죵 다 있다고 이? 그디강 그 피고름을 짹! 짹! 묻치며 흐는 말이,

"본향 할망! 거시기 변서방신디 이 죽(피고름) 반젠? 잘 먹어!" 흐멍.

막 그래간 피고름을 대것단말여(물쳤다). 이제 남군 부락(남제주군 마을) 사름덜도 이 본향에 가는디, 본향에 가그네.

"본향 할마님! 제발 모든 거 좋게 헤 줘서. 좋게 헤 줘서." 흐멍

쌀을 영헤그녕 영행(손으로 쌀 잡는 시늉을 하며) 잡지이?

<조사자: 예.>

쌀 영 행 영 던정 알지? 영 잡앙 던정. 재비 잡는 거?

<조사자: 예. 예.>

건디 영 재비를 안쥐. 짹이 맞아야 할껀디. 짹 거리민 안 되거든. 짹이

맞아야 흐는다. 영 재비를 안 줘. 영 재비를 안 주니.

“그 어떤 때문에 재비를 안 줘습니까?” 흐난

그땐 변찰방이 아니지. 저 벤서방(변서방)!

“저어 벤 서방부터 먼저 위해 더 그네. 이제 해야 이걸 나가 받겠다.”

글로부터 이 오당에는 변찰방을 위해 메(밥)을 하나 더 가정가서.

<조사자: 아~.>

32. 변찰방 이야기 2

제 보 자: 진성호(남·82세)

조사일자: 2002년 7월 28일

조사장소: 장전리 마을회관

- 요약: 변찰방이 시험을 보러가서는 자신이 방귀를 끼어 놓고 시험 감독에게 뒤집어 씌웠다. 이에 보통 배짱이 아니라 하여 찰방 벼슬을 주었다는 이야기이다.

<할아버지1: 변찰방네가 삼 현젠디. 그 어느 형이 과거를 보러 갔는디.>

그 하르방이 무사 변찰방 아니라?

으흐! 당추 아니주.(절대 아니다) 그 부모네도 변찰방은 아주 형실 머리가 나쁘다고 해 가지고 게.

아. 그 하르방일꺼우다게.

<할아버지1: 방귀껴서 그 찰방 벼슬해땐 한 하르방아니라 마썸?>

아니게. 시중(試中)에 가서. 그냥 여기 저 시험지 으렇게 놔 노리까(놓으니까) 글도 모르고 허난. 경해도 글을 조금 안 거주게. 전혀 모른 사름이 아니지. 시관이 '시험지'를 싸와 놓으니간게. 먼저 방귀를 딱 흐게 끼어가지고.

“시중에서 방귀는 왜 끼어 가지고!”

자기가 끼어둬서 시험 감독한테 허난. 하하하. 감독 선생이 헤블 도리가 없다말여. 쟁 행 그 시험지를 제출할 적에

“백지 상승(上送인듯) 흐노이다”

헤네. 척 하니, 올렸다 마려. 아! 쟁 헤 노니,

“아! 이 놈은 보통 놈이 아니구나”

하고 과거를 찰방 벼슬을 쫓다는 그런 얘기라. 하하하. 보통 배짱이 아니거든 게. 생 방귀를 끼어 가지고 “똥! 당신같은 훌륭한 양반이 똥 끼느냐!”고 헤 노니깐. 하하하. “아! 이 사람은 웅당히 찰방 벼슬을 쫓도 잘 이행할 수 있다”하는 그런 뜻으로 그 찰방벼슬을 쫓다는 얘기가 이서.

33. 키 작은 사람이 키 큰 사람 흉내내는 이야기

제 보 자: 진성효(남·82세)

조사일자: 2002년 7월 28일

조사장소: 장전리 마을회관

- 요약: 옛날에 윗집과 아랫집에 두 사람이 살았다. 그런데 키가 큰 우녀집 사람은 술도 잘 얻어 먹고 해서 알력집 사람은 늘 부러워했다. 한번은 우녀집 사람하고 같이 소상집에 갔는데, 우녀집 사람이 하는데로 따라 하게 된다. 그곳에서 우녀집 사람이 한 말을 잘 못 알아듣고 해서 망신을 크게 당한다.

우알력집 알아져?

<조사자: 예?>

우알력집. 저거는 우녀집. 이거는 알력집. 우알력집에 두 사람이 살고 있는데 그 알력집이 사람은 날추룩(나 같이) 좀 멍청허곡.

<조사자: 에이. 할아버지가 무사마씨?>

허허허. 우녀집이 사람은 아주 똑똑한 분이고. 그런데 그 언제라도 그 우녀집이 사람이 나가면은 술도 잘 마성 들어오고 하거든. 그걸 알력집이 사람이 항상 부러워해. 우녀집이 사람은 나가면은 술도 잘 마성 들어오는데, 나는 어찌 이렇게 되는데 헤가지고. 그래서 그 우녀집이 사람한테 물었어.

“어찌헤가지고 당신은 나가면 술도 잘 마시고 그러는데, 나도 좀 데리고 가서 술도 좀 먹게끔 헤달라”고. 부탁을 했지이. 부탁을 하니 우녀집이 사람이 하는 말이, “그러면은 내 데리고 가지”. 저 ‘소상’ ‘대상’ 그런걸 알아져?

<조사자: 예>

사람 죽으면 소상도 허곡. 이제는 그런거 업쭈마는... 아. 그래서 이제 소상집일 가는데 우녀집이 사람은 키가 늘씬하게 아주 큰 사람이고, 알력집이 사람은 키가 아주 작은 사람인데. 그 키 큰 사람이 “나 허는 데로 똑 따라허여” 허나네. 그걸 잊지 않고 키 작은 사람이 그걸 따라 헐라고 해서. 그 우녀집이 사람은 키가 큰 사람인데 그 소상집이 들어가는데. 그 옛날에는 문간에 줄을 매거든. 줄을 매여.

<조사자: 아. 예.>

아! 키가 큰 사람이니까 들어가면서 자연스럽게 영 그 줄을 머리에 거시고 들어갔어. 경헌디. ‘아! 이것이 바로 비법이로구나!’ 그 알력집이 사람은 영 생각해 가지고, 그 줄을 건들려고 아맹(아무리) 들락키멍해도(바둥겨려봐도) 키가 작아노니, 영 줄을 거시지 못허여.

‘아. 이걸 아맹해도 거셔다동 가야 헐건디.’ 돌맹이덜 막 강 가져다가 그디 영 놔가지고 그 위에 올라상 이제 그 줄을 거섯어. 그 줄을 거셔두고 들어강 보니, 그 먼저 간 사람은 절 행으네, 이제 일어시는 판인데. 키 작은 사람이 “이거 어떻습니까?” 허나네, “절을 2배하고 허번이랑으네 반배만 하라”고. 반절하라고 헐 말이지.

<조사자: 예.>

아. 반배허라고 헐 말을 이 알력집이 사람이 반대로 허렌 헐말로 들어가지고, 두 번 절헤딩 뒤로 돌아상 절 허다말고 그만 뉘자빠지니, 상제가

“세상에 이런 놈이 어딴냐.”고. “어디 감히 영정 앞에서 뒤로 절하는 놈은 세상에 처음 봤다.”고. 이놈을 이제 퇴작허렌. 이제 그 상제들이 허난, 알력집이 사람이 “우녀집이 저사람이 반대로 절을 허렌헛젠” 헛. 이제 상제가 우녀집이 사람더레 “어디 반대로 절 허렌 하는 법이 어딴냐?”고 허난. 우녀집이 사람은 “세 번째랑 반배 허렌 헛신디, 사람이 명칭헤노니까 반대로 절을 헛다.”고.

또 이제 그 우녀집 사람 조꼬띠강(곁에 가서) 앉앗데, 그 우녀집이 사람이 방귀를 한번 영 꾸엇어. 방귀를 한번 꾸니, ‘아! 방귀도 예의법으로 꾸어야 허는가 보다.’ 허영. 아맹 방귀를 꾸젠 해도 방귀가 영 안 나와. 쟁막 힘을 내당보난 그만 똥을 싸 낀. 하하하. 이런 전설이 이서.

34. 닳되짜리 거짓말쟁이에게 당한 한말짜리 거짓말쟁이

제 보 자: 진성효(남·82세)

조사일자: 2002년 7월 28일

조사장소: 장전리 마을회관

- **요약** 거짓말 닳되짜리 북군사람이 거짓말 한말짜리 남군사람에게 거짓말을 배우러 간다. 가서는 여기 오는 도중에 꿀이 가득찬 노목(썩은 나무)을 발견했다고 거짓말을 하고는 소에 허벅을 싣고 꿀 따러 가자고 한다. 그곳에 도착하고는 잠시 기다리라고 하고는 남군사람 부인에게 가 가지고 남편이 급성맹장에 걸려서 다 죽어간다고 하고는 특효약으로 부인의 음부털을 받아 온다. 그리고는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남군사람에게 가서, 집에 불이 났다고 빨리 가 보라고 한다. 그리고는 그 남군사람의 가지고 온 소와 허벅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온다.

<조사자: 재밌는 얘기 또 어서마씨? 생각나는 얘기 또 어떤거 잇수과?>

음. 여기 남군분덜이 여기 이서? 저 남군분덜이 잇으면은 이 얘기 허게 되든 남군분덜이 쪼금 토라져. 거 왜 그런고 허면은 남군사람덜은 모여 았으면, “북군사람덜이 모질어 가지고(모자라 가지고) 우리 남군사람 한티 많이 속아넘은 예가 많다”고 호고. 북군사람덜은 모여 았으면, “남군사람덜이 모질어 가지고 우리 북군사람덜 헌티 속아 잘 넘는다.”고 헤. 무사경 허게 마련 아니라?

그거는 겐디. 북군사람은 거짓말을 허면 거짓말 닻뉘짜리고 남군사람은 거짓말 한말짜리라. 이제 그 북군사람이 남군사람한테 거짓말을 배워올라고. 이제 남군을 좇아(찾아) 가는 거라. 이제 소문들으멍 소문들으멍 좇아가네.

“저 여기 어디 어디 북군에서 온 사람인데. 그 소문듣고 왔는데 여기 댁에서 거짓말헌말 허는 선생님이십니까?”

하고 물으니,

“맞아. 나가 남군에서는 거짓말을 한말 지어서.”

“저는 북군에서 왔는데 저는 거짓말 닻뉘짜리 밖에 안뉘마썸. 거짓말 닻뉘짜리 밖에 안뉘네, 거짓말 한말짜리 선생님한테 거짓말을 더 배와하기로 작정을 행 이까지 좇아 와신디, 선생님 거짓말 배워주시겟습니까?” 하니,

“어. 배와 주지. 이제 들어와서 보게나.”

하니, 이 북군사람이 허는 말이,

“근디 들어가기전에 제가 저 산너미길로 이까지 좇아오당 보니, 벌꿀이 노목(썩어든 나무) 소곱에(속에) 들어 왕으네 막 거기 꿀이 쌓이고 허는디. 어떻사 꿀이 많이 들어신디, 꿀이 알래로 흘럼더라. 이제 우리 그 꿀을 따다가 먹으면서 거짓말을 배웁시다.” 하니,

“그거 좋지!” 허여. “이제 가자”고 허난, “우리 둘만 가면 안뉘다”고 “소에 허벽을 신고 갑시다” 헤. 계난 소에 허벽 두 개를 신고 해서 거길 갔어. 갖는데 이제 그 거짓말 닻뉘짜리 사람이 그 나무를 좇지 못하겠다고, “그소를 심영 았아 잇으면 내가 어디 이 주변을 영 돌아가지고, 그 나무를 좇앙으네 당신 오랑 데려가겠다”고 헤나네.

“아. 계건 그러자”고 했어. 아 그런데 그 거짓말 한말짜리 사람은 소심영으네 아무리 지들러봐도(기다려봐도) 영 오지를 앓헤.

“거 이상하다” 허는데, 그 거짓말 닳똥짜리는 어명헌 흥계를 내었어. 그 거짓말 한말짜리네 집이 달려와 가지고 그 거짓말 한말짜리 부인 시나네 부인보고,

“아! 큰일이 났다. 시방 그 당신 남편이 급질(급성맹장)에 걸려가지고 사람이 다 죽게 됐는데, 아이고 나가 똥(똥) 흘리멍 달려와신디. 아이고 이 노릇을 어떻게 좋을 꺼냐?”

고 물으니, 부인이

“아이고, 게메 나도 그걸 어떻게든 좋을지 모르겠다”

“좋은 약이 있긴 있는데, 아 그 약은 구혈수가 있어야지?”

“아! 사람을 살릴려면 어떠한 약이라도 구해야지.”

“그렇다면은 당신 그 하문(下門:음부인 듯)의 털을 가위로 잘라가지고, 그거를 강 메기면 직통 돌릴수가 있는데, 아 그걸 혈수가 있어야지.” 허니, “아. 그거야 어려울게 뭐 잇는냐” 고. 이제 그 귀세(가위)를 가져당으네 자기 강아래 털을 잘라네 쥐. 이제 그걸 가지고 올라가다가 그거는 딱 허게 담더레 붙영 벌라두고, 그 쇠 심어네 산 사람한티 달려갓어.

“아! 어디 이렇게 사람이 약속을 안 지키고 이럴수가 잇냐? 이거 쇠 심어가지고 몇시간 동안을 지켜신디. 아! 영 나타나질 안허고 이럴수가 잇냐?”고 허나네. 그 북군 사람은 그 사람한티강 큰일이 났다고 했어.

“큰일이라니?”

“나가 그 꿀벌 잇은 나무를 좃으레 땡기다가 어떤 사람을 만나가지고, ‘여기 저 검은 소에 허벅 들 실은 사람이나 본 적이 잇느냐’고 허니, ‘아! 거 본적이 잇다’고 하니, ‘아! 그사람을 좃아야 할껀디’ 헤. ‘무슨 따문에 그 사람을 좃느냐’고 허난. ‘그 사람네 집 안팎꺼리가 붙이 부떠가지고 다 타버려서 그 사람을 좃으레 와신디.’ 허난. 그런 애길 들어가지고 당신신디 오라네 고람쥬.”

“아이고 이럴수가! 아이고! 쇠야, 이놈의 쇠야, 빨리 글라.”

허멍, 이젠 빈 허벅 시끄고 가가니. 거짓말 닳똥짜리가, “당신만 우선

갖으며는 소는 나가 나중에 당신네 집더레 물고 갈테니, 당신만 우선 가 시렌” 해서. 경허난 거짓말 한말짜리는 소 내부러덩 집비(집에) 오라부렀 거든. 경허난 그 거짓말 닷뉘짜리는 “거짓말 헌말짜리도 별참여구나! 이 소야 나영 고치(같이) 가그네 우리집에 강 살게”. 쟁으네 그 소 몰양 오라 부렀다는 그런 얘기가 잇지이. 그러니 거짓말 한말짜리가 거짓말 닷뉘짜 리 헌티 그렇게 속아 넘어간 거지.

신 앙

〈 목 차 〉

- | | |
|---------|---------|
| 1. 개관 | 2. 공인종교 |
| 3. 신흥종교 | 3. 민간신앙 |
| 5. 가신신앙 | |

1. 개관

북제주군 애월읍 장전리는 마을 주민의 대부분이 굴농사에 종사하는 자그만하고 아담한 동네이다. 제주도에서 드문 산간지대라 바닷가를 끼고 있지 않으며 또 워낙 자그마한 동네라 당의 개수도 하나로 적은 편이다. 공인종교로는 마을에 불교신자가 많으나 장전리에 속하는 사찰은 없다. 기독교나 신흥종교도 발달한 곳이 아니다. 그러나 아직도 전통적인 생업(농사와 굴농사)을 유지하면서 생활하고 있는 토박이들이 많이 남아 있다. 마을 고유의 포제터가 있고 매년 제를 올리는 것으로 보아 규모는 작으나 전통 신앙이 아직까지는 비교적 굳건하게 전승되고 있기도 하다.

2. 공인종교

2.1 불교

1) 長龍寺

- ① 명칭 : 장용사
- ② 종파 : 대한불교 總和宗
- ③ 위치 : 제주도 북제주군 애월읍 신엄리 112번지(장전리의 절은 아니나 장전마을의 경계선에 위치하고 또 장전의 주민들이 많이 다닌다고 함)
- ④ 건물 : 법당 24평, 요사채(후원)10평, 대지 50평. 대웅전 내부 중간부에는 석가모니불을, 왼쪽에는 관세음보살을, 오른쪽에는 대세지보살을 모신다. 칠성각, 산신각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법당 하나에 칠성신,신장, 산신,용왕신을 한 방에 모신다. 범종은 법당 내부 오른쪽에 위치함. 아침·점심·저녁 예불시, 영혼들을 위한 천도제를 행할 때 울린다 한다. 아침에는 28-38번, 천도제와 같은 경우는 오랜시간 종을 울린다 한다. 범종을 칠 때에는 지옥에서 벌을 받은 죄인들도 쉴 수 있다고 한다.
- ⑤ 연혁 : 1938년 고내봉에 있다가 1981년 장용사로 이주하였다. 고내봉에 있었을 당시에는 신흥종교의 상태였다고 한다.
- ⑥ 주지 : 법명은 蘇雲, 本名은 金太形이다. 무진생, 1928년생으로 결혼하기 전부터 일찍이 출가하지 않은 제가생 출신이다.
- ⑦ 신자 : 장전리 주민, 아라동 및 제주시내, 주로 할머니와 아주머니들. 신자수는 약 500여 명.
- ⑧ 법회일 : 음력 정월 초칠일. 이월에는 용왕제, 3월에는 산신기도를 드린다. 4월 초파일, 7월 7석, 6월 유두불공, 동지불공, 설날 신장불공, 결제불공도 드린다.
- ⑨ 운영 : 연등대 - 1년에 1인당 2만원
기도때 내는 동참비 - 2~3일 하는 경우는 2만원, 하루는 1만원
절은 주지스님의 소유였으나 현재 관으로 등록되어 있어 주지스님의 사망 후에도 다른 스님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 ⑩ 당과의 관계 : 당에 다니면서도 절에 다니고 있는 것으로 보아 특별히 당과 배타적인 것 같지는 않다.
- ⑪ 금기 : 육류를 금하는 것 빼고 특별한 금기는 없다.

3. 신흥종교

1) 단군성주교

- ① 명칭 : 檀君聖主教
- ② 종파 : 무주대도
- ③ 위치 : 제주도 북제주군 애월읍 장전리 454-7
- ④ 건물 : 총평 300평, 건평 60평, 건물은 3개(1개는 신궁, 1개는 숙소, 1개는 객실).
- ⑤ 연혁 및 도덕계통

檀君本部聖殿 創造沿革은 甌山大法天師道德繼統을 傳受받은 無極大道 道主 龍江先生이 하늘의 天法을 받고 道의 터를 잡았다. 龍江先生은 濟州道 南濟州郡 中文에서 檀紀4228年 乙未5月7日 酉時 誕降 名姜昇華 字(上尼) 兒號(貳百) 當號龍江 尊號靈山) 한라산을 중심으로 後天의 새로운 開闢精神文化를 꽃피우기 위해 後天乾坤의 뜻을 폈다.

甌山道祖가 天地公事를 마친후 그 大法을 濟州傳道門公事로 自身の 龍華道主國을 이루고자 했다. 한때 普天教에 入教 得道을 위한 修道精進에 發源 向後 因緣이 없음을 알고 子子單身 이때 獨特한 道體를 定立 불과 30歲 나이에 易法 神法 術法에 능통 檀紀4257年 甲子2月22日 道德繼統 檀紀4264年 辛未9月9日 得道에 入境 太現一見運悟道 後天萬歲道心清의 得道文을 통해 龍江先生은 暉연 光風에 이끌려 半飛半步로 中文面 郡山尊帝屏始에 이르니 甌山上帝가 靈降하여 後天無極大道의 道成德立의 運을 傳授하고 印章을 주며 布德安民하여 創生을 求濟하라는 命을 받았다. 이어 3일밤을 尊帝屏始에가서 道法과 繼統을 받았는데 道를 받는 순간 눈을 뜨고도 앞을 못보는 청맹과니가 되었다. 그후 6日間을 彷徨하지 않고 精進을 거듭 苦行속에 一心으로 修行하며 起道 運通 成道 開運의 순서를 밟고 1936年 無極大道를 세우니 그의 나이의 42歲이다.

龍江은 布德에 나선지 9個月만에 2천여명의 道生이 몰리자 그해 11월 초천면 교래리 조인남에서 信道 2백여명과 함께 國運回復 大致誠을 奉行 이때 오정숙으로 하여금 執統케 하고 致誠이 끝나기전 倭警이 오면 발포하라고 명한다. 다시 1937年 3월 그는 6일동안 한라산 王將石廣場에서 救國山王大祭를 지

냈다. 3백여 信道가 雲集하고 역시 오정숙이 執統한다. 그해 6월 龍江은 道生들에게 지나사변과 世界大戰이 일어나 韓國이 乙酉년에 解放될 것을 豫言했다. 그리고 10월에는 道退運이 들었으니 샷갓을 쓰라고 하며 朝鮮獨立과 世界統一을 위해 어떠한 荊棘도 忍耐하라 이른다. 이 말을 한 다음날 倭警이 急襲하여 9백99인의 道生이 逮捕되니 3백50명이 10개월 간 調查를 받고 66명이 光州 檢査局으로 이송되었으며 그중 22명의 죄목은 日王不敬罪등 10여가지로 獄苦를 마쳤다. 龍江은 33일간 고두(머리타격)를 당하면서도 日本의 敗戰을 豫言했고 8년형이 끝날 무렵 日本法官이 日本으로 모시려하자 因緣이 없다 하며 歸鄉한다.

龍江은 다시 教團을 再建하면서 나라의 앞길을 念慮하며 濟州 4.3事件과 6.25를 豫言했고 1953年 道名을 檀君聖主教라 한뒤 後天을 對備한 道體와 組織을 꾀했다. 또한 教團을 明道岩으로 옮기고 先靈解怨公事를 한뒤「耽羅가 비록 좋다하나 세상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道德이 좋다하나 道生이 이를 알지 못한다」고 歎息했다. 1960년에 그는 모든 公事를 마치고 보림에 든후 3月 1日 仙化하니 歲壽 66歲이다.

靈山天師이신 龍江先生으로부터 繼統을 받은 新谷先生은 名(金雲寶) 當號(新谷) 道號(鋼) 尊號(南山) 濟州道 北濟州郡 涯月邑 光令里에서 檀紀 4244年 辛亥正月28日 卯時 誕降(檀紀 4292年 己亥 12月5日 覺性 4293年 庚子3月1日 道德繼統) 檀紀 4310年 丁巳9月25日 仙化했다.

新谷先生은 다른 指導者와는 달리 法通繼承體界 著述에 열중 內修道에 專念 이로인해 外形的인 發展은 못했지만 徹底한 계시로 道體를 세우기 위한 道緣을 豫見하여 향후 教團社會의 要體가 될 執筆作業에 隱遁과 修行으로 一貫했다.

新谷先生の 覺性書를 보면

玄玄白白眞奇筆 言言文文自中己 시虎投入基舞大 精物歸源萬事知 四變明星運悟道 三清世界 道心清 微妙玄通精致極 眞實如來知覺性 天下의 큰 보배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易理를 通達한 深奧한 啓示的 暗示를 接할 수 있다.

檀君聖主教에서는 靈山天師 上帝道德繼統後 天地公事 後續禮로써 統一神壇을 設置 無極之神西王母薛門大 仙母因緣 商山四皓 五仙圍棋 百帝之道 山下石骨 龍盤이요, 大野井邊 蛇走로다. 하여 南山大師이신 新谷先生 化仙後 運道致誠등 幼孩로 以後 道脈相傳繼承에 不可勝數하고 있다.

또한 大宇宙(三界)의 運機를 統制하시는 大統神聖統一神壇에 朝夕으로 “弘益人間理念으로 布德天下 廣濟蒼生과 人類和合大全協同文明利器를 先進

爲用하야 共通福利 天一家 國泰民安 時和連豐 神人合發 萬化定機로 歸一眞法 光明世界의 統一과 仙境建設 大道彰明의 道成德立을 速速히 成就시켜주옵소서"라고 祝願하고 人類社會 貢獻을 위해 自然에 順應함으로써 後天光明世界의 建設에 一助하고 있다

⑥ 대표자 : 眞法大師 月亭 姜鳳玉

현재 단군성주교 교단 책임자로서, 스승님(영산천사, 남산대사)으로 부터 도덕계통을 받았으며 통일신궁에 대통신단을 모시고 년중 대치성을 봉행하고 "후천문명건설과 대도창명을 속속히 성취시켜 주옵소서"라고 아침저녁으로 축원드리고 있다. 앞으로 도래할 후천문명의 중심으로써 진법교단의 문운전개와 발전을 위해 불가승수하고 있다.

⑦ 신자 : 도내에 50여명. 道人이라 불리운다.

⑧ 치성일 : 정월 15일, 정월 28일(남산대사 탄강일), 3월 1일(영산천사 선회일), 5월 7일(영산천사 탄강일), 6월 24일(중산천사 선회일), 7월 7일(칠월칠석), 9월 19일(중산천사 탄강일), 9월 25일(남산대사 선회일), 10월 3일(개천절), 동지.

⑨ 교리개요

源理(忠孝禪明不忘之道)忠孝禪明之道는 檀君聖祖靈神을 玉皇上帝之位로 參聖壇을 설치하여 井水焚香을 진심으로 忠禪崇拜禮節을 心誠化氣而鮮政美德 鮮本으로 宣揚하기 要함.

質理(愛親敬長隆師之德)愛親敬長隆師之德은 尊德善行에 진심으로 四大五常恭惟鞠養而孝烈에 尊心養性和 昏定晨省事親之禮를 勤眞的으로 要함.

綱領(仁義禮智四綱六倫)仁義禮智四綱六倫은 好生惡殺 裁博得宜 敬上愛下 分別是非 無友履而生之履之載地牧之萬物之中 最靈人生而樂殊貴賤 禮別尊卑 上和下睦 天倫凡序 博愛平等 相互救助 萬全에 解怨.

綱目(布德天下廣濟蒼生)布德天下廣濟蒼生之道는 大慈大悲之大乘精神 公正眞實 五遠六戒 損己益人 憫念衆生하여 濟生醫世 濟弱扶傾 萬民救護 爲主.

趣旨(神人合發萬化定機)神人合發萬化定氣는 天地人三才之 循理圖寫 禽獸畜綵 仙靈無名 天地始有 名萬物之母 同之謂玄 玄玄又건 衆妙之門 三界三道 星宿和氣 節時合運 共通福利를 全世界人類에 書傳而禮法을 增補變整함.

目的(保國安民尊德善行)保國安民尊德善行은 上保國家 下安百姓하여 愛國精神日月明 四時長春乾坤清 할일 많다. 無極大極朝鮮本 三元運道大中華.

⑩ 경전 및 비문소개

甌山天師님의 著書는 玄武經

靈山天師이신 龍江先生の 著書는 弓乙歌, 行運歌, 行善歌, 道化經, 教正篇, 法言訓示, 宣言文, 警文篇, 演眞經三篇, 警源錄八篇, 萬物書四篇, 開闢創造文, 檀君道傳文, 甌山運集篇, 萬邦通成文, 開闢養生文, 開闢運篤篇, 星秀法科文, 靈神保傳篇, 三生報恩篇, 演眞覺性篇, 報恩眞法篇, 萬病通集篇, 消成養生篇, 三聖經, 道德經, 判決歌 등.

南山大師이신 新谷先生の 著書로는 道德警宣文, 成道定機祈誠運集上下篇, 道禮法및 運堂號篇, 人導勤善眞言文, 天地人合機大要上下篇, 檀君聖主教書略書, 檀君聖主教趣旨文, 新婚禮式, 心祝大小祈禱文, 道繼因緣正法文, 修道終畢歌, 道德修心歌, 人間信仰篇, 呪文篇, 運算目錄, 地理書, 喪祭類辭少, 耽羅德修利文, 功功歌, 尋利學, 布德修利文 등.

宇宙의 基本生成原理 三位一體 後天之法道인 天地人神大道三寶를 소개 하면

- 「天開於子 道傳於夜 轍環天下虛靈公事之道 元仙 姜一淳(甌山天師),
- 「地開於丑 教奉御晨不信看我足知覺之道 亨佛 姜昇泰(靈山天師),
- 「人生於寅 布德於世腹中八十年神明之道 利儒 金雲寶(南山大師),

이며 至氣今至願爲大降은 日出東方還舊祖 南風造化 桐葉長이라 하여 眞人이 도래할 시기와 때를 계시함을 알 수 있다. 이 예시적 秘文을 보면 丙子布教數라 이것을 부연하면 「丙子布教강星君之運」을 따라 一內一了度數也라.

앞으로 변화하는 宇宙眞理의 大審判을 豫示한 기본강서를 보면 다음과 같다.

- ◆ 馬藏青天白日間 四通萬方變化運 修道男兒出世人 萬事大吉成運天 甲己

火藏春三月 四海風振一菊聲 三百六十定局運 七十二人道成天 四七八鄭別將 活計南方成運天(紫霞出)鄭道令」

- ◆ 無極之神西王母薛門大 仙母因緣商山四皓 五仙圍棋百帝之道 山下石骨龍盤이요 大野井邊蛇走로다.

原始反本 版外成道가 濟州道임을 證明하는 비문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桓因天帝化身이 檀君聖祖化運하신 甌山大法天師 上帝道德繼統法度辛弓乙箭 漢羅母山白鹿潭은 母精五土坤南運의 地天泰山 坤牛黃道 正度數也(不精十金)라.

耽羅에 新生大道眞法敎團의 創敎는 「造化主」의 神跡이며 「泰運之勢山靈」의 神祕이다. 北極紫微星 精氣가 照臨(七星照臨之地)됨으로 紫霞眞人出現 意義는 天地人神大道가 廣布된 것이다.

宇宙的 神祕 生命의 根原이 무엇이며 自然自體의 無限한 生命力을 發見하고 宇宙根原에 回歸함으로써 無爲眞人の 悟道의 大乘敎의 行원을 몸소 실천하는 檀君聖主敎는 五千年을 면면히 이어온 찬란한 文化와 韓民族이 世界中心舞臺의 主演俳優로서 世界의 自由와 平和繁榮을 위한 努力으로 풍요롭고 위대한 神話를 創造해 우리 겨레의 優秀性을 世界의 구석구석에 선양할 때가 왔음을 밝힌다.

甌山道祖가 天地公事를 마친후 그 大法을 濟州傳道門公事로 自身이 龍華道主國을 이루고자 했던 秘法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事之當旺在於 天地必不在於人이라 然無人無天地故 天地生人用人以 人生不參於 天地用人地之時 何可曰 人生乎라.

新谷先生の 「道德耽羅修利文中」의 일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新生天地地天泰 神農道德三皇精氣 耽羅回運도라왔네 坤牛出井 棋局明相 江南仙人 楊進士 天地人神 一體되니 神人合發 萬化定機 利在田田整齊 布

德珠珍 造化짓고 太乙元君 六道三合 神明三界 保護運道 日月彌勒 主世佛은
誠敬信是 三字을 壽命 福祿 分明받네. 三清世界道心清 奉清運道清齊齊.

漢羅瀛州三神山은 金鷄抱卵白鹿潭 西王母運坤道運河 德厚養生十勝景勢
白帝之運萬樹春光자랑한다. 靈室奇岩五百將軍 天佛降神歸宗處는 五峯九天上
勢君 虎勅確駕運轉靈氣 좋다(東西大洋統率)

濟州가 耽羅泰運之勢가 되는 必然的 當然性的 眞法을 보면 다음과 같
다.

- ◆ 白頭父山白龍潭과 漢羅母山白鹿潭이 天白地白兩白間에 道德君子人種
求於耽羅地라.(金弓太乙成道되니 竹帛萬姓耽羅地라)
- ◆ 禪主云亭恒山處 五嶽最宗靈主福 中嶽高山漢羅瀛州三神山の 主福
- ◆ 三八二七東南山에 天宮太乙地中天道
- ◆ 東南으로 通한 大道 造化로 前進함은 天地의 明命이며 運度의 順應이다.
- ◆ 上臨天鑑하고 下察地祇에 鬼神이 相隨라. 白木三公여기로다.
- ◆ 七星山大地井淵 坤牛負文而出于井이라(七星照臨之地也)七斗落(午未樂
亭當當하니 南無彌勒尊佛이다)

또한 檀君信仰에 대한 「天先禪」 韻字秘書를 보면 다음과 같다.

檀君上帝更生天 도率天地指道先 三道造化運棋局, 萬物生氣月亭禪, 三天曲
禮大明天, 五行台德廣濟先 棋局朝鮮主世界 生氣萬物道化禪

4. 민간신앙

4.1 포제

- 1) 제명 : 포제, 부락대제, 장전 부락제
- 2) 제신 : 포신지령, 포제지신

3) 제일 : 정월 정일 자시

정일에만 제를 지내는데, 마을에 일이 있어서 제를 미루게 될 경우 다음 정일이 없을 땐 해일에 한다. 자시에 제를 지내는 이유는 가장 조용할 때이기 때문이다.

제향회에서 1년에 한 번 향우회를 소집하여 포제를 정한다.

4) 제장 : 포제동산 (소나무 밭 제단)

5) 제의 : 삼헌관과 집사의 옷이 각각 다르다. (삼헌관- 옥색, 집사- 푸른색) 제의를 '도포'라 부르고, 모자는 '유건'이라 한다.

옛날엔 합숙하는 동안에도 제의를 입고 있었는데, 지금은 포제 장소에 도착해서 갈아입는다.

제의는 마을회관에 보관하고, 물려서 입는다.

6) 제비 : 5000원씩 모든 주민이 자발적으로 낸다. (교회 다니는 사람까지 모두) 예전에는 물자로 제비를 대신 했었다. (쌀, 과일 등. 처음 생산한 것으로)

7) 제관

① 제관자격 : 나이가 많고, 권위 있고, 덕망있는 사람. 여자는 제관을 할 수 없는데, 지금은 심부름 정도는 가능하다고 한다.

② 선출방법 : 제향회에서 합숙 2~3일 전에 정한다.

각 성씨별로 고루 살펴서 삼헌관을 시켰다. (큰성씨는 '강, 양, 고'씨) 집사는 상관없고, 삼헌관만 돌아가게 시킨 것

③ 제관의 종류 : 삼헌관(초헌관, 아헌관, 종헌관), 10집사(집례, 대축, 알자, 찬자, 봉로, 봉향, 봉작, 전작, 전사관, 사준)

집례 : 흥기를 부르고, 예를 집행하는 사람으로 사회자와 같다. 삼헌관에게 신께 절하도록 시킨다.

대축 : 축을 고하는 사람(부락의 안녕을 기원한다)

알자 : 삼헌관의 비서로서, 삼헌관을 인도하는 사람이다. (알자의 역할이 중요)

"알자이~~" → 절할 데로 다 들어서라는 말

찬자 : 집례가 "국궁배~(절하라)" 라고 말하면, 찬자가 "흙~(일어서라)"

이라고 말한다.

봉로, 봉향 : 향불 피는 사람

전사관 : 전체를 통솔. 제를 준비하기 위한 음식을 준비하는 사람(장을
봄)

사준 : 잔을 들이는 사람

* 꼭 13명이 아니더라도 개인적인 사정이 있을때 '봉향+봉로', '전작+사
준'을 곁해서 할 수도 있다.

- ④ 합숙 : 예전엔 제장 옆에 합숙하는 집이 있어서 그곳에서 2주동안 합
숙을 했었다. 그러나 지금은 마을회관에서 2박 3일동안 합숙을
하는데, 합숙할 때 부정한 사람이 아니면 외부인의 출입도 가능
했다고 한다.

합숙하는 동안에는 개·말고기는 먹지 못한다.

예전엔 합숙할 때 집사와 삼헌관이 방을 따로 썼었는데, 지금은 방을
같이 쓴다. (대신 삼헌관이 좀 더 위쪽에서 지냄)

합숙하는 동안 대축은 집사방을 쓴다. (축은 갱신할 수 있음)

합숙하면서 새내기 집사는 교육을 받고, 집례는 흥기를 암기해야 한다.

합숙할 때 삼헌관은 한복을 차려입고 있어야 하는데, 집사는 그냥 양
복차림을 해도 괜찮다.

전사관은 자기 집에서 깨끗이 목욕도 하고 10일 정성을 해야 한다. (다
른 제관은 2박3일이지만...) 장을 다 보고 3일 전엔 합숙장소로 들어온다.

8) 제물(전부 生食)

- ① 메 : 대메 - 쌀을 쳐서 2그릇

소메 - 좁쌀을 쳐서 2그릇

대메 소메 대메 소메

- ② 회생 : 돼지 한 마리를 날것으로 올리는데, 내장을 빼고 통째로 올린
다. 내장은 잡아서 헌관들이 술안주로 먹어버리고 통돼지와
피 조금만 올린다. 돼지는 굳이 검은 숫돼지가 아니더라도 아
무거나 사용 가능하다. 옛날엔 돼지를 포제청에서 잡았다고

한다.(매달아서 회생) 포제청 주위에는 5일 전부터 금줄을 두르고, 가시를 쳐서 사람이 못 들어오게 했다. 마구수(馬口水)를 떠다가 밥을 해먹고, 돼지도 잡았다. 돼지는 털을 그슬리고(털은 따로 울리지 않음) 떠온 마구수로 씻는다. 돼지를 잡을 때 버리는 건 없다.(내장도 다 먹고, 배설도 소금에 씻어서 먹음) 돼지 발톱은 땅에 묻는다.

- ③ 채소류 : 미나리 등을 익히지 않고 소금에 절이기만 해서 올린다.
- ④ 생선 : 명태(말린 것), 옥돔(생것)
- ⑤ 쇠고기 : 근으로 떠다 생으로 올림 (썰지 않고 금만 냄)
- ⑥ 실과 : 대추, 사과(3개), 배, 밤, 굴, 자두(예전에 사과, 배가 없었을 때는 맹유자로 대신함)

제주 : 생감주 (외부에서 술을 가져와도 익은 술이기 때문에 생감주 하나만 올림)

- ⑦ 폐백 : 광목, 베, 명주 중 하나를 올린다.
 - * 음식 올릴 때 '홍동백서'와 같은 규칙은 없고 아무데나 올려도 된다.
 - * 모든 것은 신 중심이므로 신이 왼쪽으로 먹을 수 있게 제물을 올려야 한다.
 - * 떡은 익힌거냐가 울리지 않는다.

9) 제복과 제기 : 제복, 제기는 마을 회관에 따로 보관한다.

제기는 목기를 사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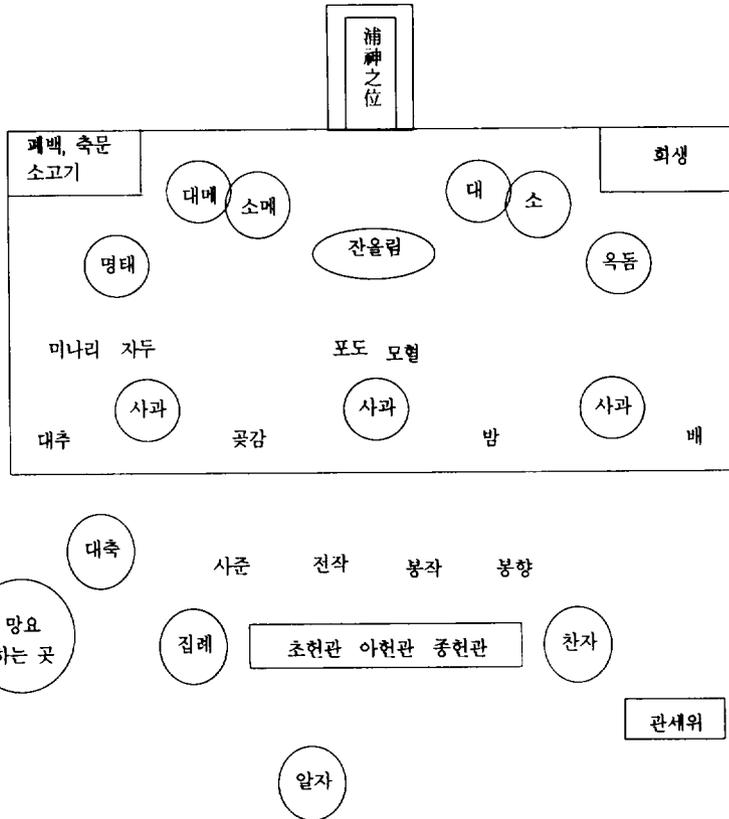
젓가락, 숟가락은 쓰지 않고 '새'를 2개씩 꽂아서 쓴다.

10) 제차

만일 오늘 밤 자시에 제를 지낸다고 하면 낮에 돼지를 잡고, 합숙했던 방에 병풍을 쳐서 전사관이 사온 제물을 포장해놓고 밤10시쯤 출발한다. 합숙소에서 포제청까지 갈 때 제관들이 앞서서 제물을 들고 가면 삼헌관이 그 뒤를 따라간다. 헌관은 관수(젓물 떠온 물)에 손을 씻고 제장에 들어간다. 자시에 제를 지내고 제가 끝나면 음복을 하고, 나머지 음식은 싸서 집에 가져간다. 예전엔 제장에 술을 가져가서 제가 끝나면 그곳에서 다 익혀서 먹고 와야 했다.

11) 포제단

12) 제물진설도 및 제관의 위치



13) 금기 : 제 지내기 5일 전에 금줄을 친다. 몸에 상처가 나거나 짐승이 죽거나 마을에 상이 있을 땐 제를 지내지 않는다. 예전에는 남자들만 음식을 장만하였으나 지금은 몸이 비리지 않은 부녀자도 심부름 정도는 할 수 있다.

- * 지금은 홀기에 한글로 토도 단다.
- * 예전엔 목축에 대한 것과 전염병이 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 4·3뎌 제를 못 지냈으니까 그 이후에 제를 지낼 때 신계 사정 얘기를 했다.
대전관, 행정기관에서 가장 높은 사람의 명에 따라선 제를 지내지 않아도 된다.

4.2 당신앙

- 1) 명칭 : 개당
- 2) 당신 : 할망
- 3) 제일 : 정월 초순.
 - 식구 모두 좋은 날 택일해서 간다.(주로 아들, 아버지에게 생기 있는 날)
 - 개날에는 안 된다고 하는 제보자도 있었고(자기 태어난 해는 가지 않음), 개날이 좋다고 하는 제보자도 있었다.(가지 않는 날 : 인, 축날)
 - 포제가 지나야 당제를 할 수 있다.
- 4) 형태 : 궤가 2개이다.
- 5) 제물
 - ① 메 : 쌀밥 2그릇 (예전엔 보리밥)
 - * 신은 한 명인데 메가 두 그릇인 이유
 - 한 그릇은 '할망당'에, 다른 한 그릇은 '지성메'(곡식 잘되게 해주라는 의미)
 - 금덕 할아버지 당의 작은 부인이니까 할아버지 메까지 올리는 것
 - ② 떡 : 다데떡 (7개 이상)
 - ③ 어류 : 구운 옥돔 2마리
 - ④ 과실류 : 귤, 사과, 배...(예전엔 댕유자를 올렸음)
 - ⑤ 제주 : 오렌지 주스, 소주...(예전엔 감주, 청주를 올렸음)
 - ⑥ 생쌀 : 점치는 것. 쌀그릇에 돈을 꽂기도 한다.
 - 점을 쳤을 때 쌀이 9톨 나오면 가장 안 좋은 것으로, 다시 점을 쳐도 계속 안 좋게 나오면 한 번 더 정성들여서 제를 지내야 한다.
 - 쌀이 6, 8, 10, 12 (짝수) 나와야 좋은 것이다.
 - ⑦ 삶은 계란 2~3개(허물날 때 갖고 감)

- ⑧ 폐백 : 시령목 석자, 명주 석자, 베 석자 중 1가지를 올린다.
 - 석자 모두를 태우는데, 열자를 가져갔을 땐 석자만 태우고 나머지는 가져온다.
- ⑨ 채소, 국은 올리지 않는다.
- ⑩ 콩, 보리, 조, 쌀, 팥(5가지)을 사방에 뿌린다.
- ⑪ 돼지고기, 쇠고기는 있으면 올리고 없으면 올리지 않아도 된다.

6) 제차

- ① 집에서 '미슴'을 갖고 제당까지 간다.(원랜 숯불을 들고 가야 하는데 역새풀에 붙을 붙여서 가기도 한다. 지금은 향으로 대신 가져간다.) 당에 가는 동안 미슴을 들고 있는 사람에게 말을 시켜서도 안 되고, 길을 비켜줘야 한다. 만약 말을 시키면 부정타거나 서로 좋지 않다. 음식은 등에 지고 간다.
- ② 음식을 올린다.
- ③ 초, 향에 불을 켜다.(가져간 미슴도 올림)
- ④ 절을 한다.
- 자신이 직접 제를 지낼 땐 "애월면 장전리 아무개 할마님 ~ ... 좋게 하여줍써"라고 스스로 말한다.
 - 심방이 있을 땐 본인은 조용히 있고 심방이 위와 같이 말한다.
- ⑤ 쌀점을 친다.
- ⑥ 음식을 조금씩 뜯어 2개의 궤에 캐우린다.
- ⑦ 소나무에 지전, 자투리 천, 소지를 걸어두었다가 태운다.
- 옷 말렸던 천 조각(빨강, 파랑, 흰색)
 - 명주 실(명 길게 해주라는 의미)
 - 지전(저승돈)
- ⑧ 음복하고 나머지는 싸운다.
- 7) 비념 : 집안일, 자식일, 허물·피부 팬찮으라고 빈다.
- 8) 제기 : 새벽에 이슬을 맞게 해서 깨끗해지게 한다.
- 9) 금기
- ① 당제 지내기 3일전엔 몸 비린다고 밭에도 가지 않는다.

- ② 상처가 있거나 개·고양이 죽은 것을 봐도 가지 않는다.
 - ③ 생리 때도 가지 않는다.
 - ④ 애기 피도 비리기 때문에 며느리가 애를 낳아도 가지 않는다.(1달 후에야 갈 수 있음)
 - ⑤ 마을에 상나도 가지 않는다.
 - ⑥ 교회가는 사람은 당에 가지 않는다.
 - ⑦ 당을 태운 사람도 있고 안 태운 사람도 있는데, 만약 안 태운 사람이 당에 가면 문제가 생긴다.
- 10) 당의 내력(유래) : 금덕에 할아버지, 할머니 당이 있는데 장전에 있는 당은 금덕당 할아버지의 작은 부인이다.(소가부인) 제보가는 심방이 제 지낼 때 “금덕 유수암서 갈라 온 소가부인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에서 이를 알 수 있었다고 한다.

* 당에갈 때 한복 치마, 저고리를 입고 간다.

* 장전엔 심방이 없는데, 대신 다른 곳 심방을 불러온다. 당제할 땐 큰심방은 모시지 않는데, 자기가 심방을 빌어오면 2만원이고, 이미 모셔 온 심방을 빌면 5천원이다.

- 하귀 : 강종규, 양제춘 → 큰심방

- 제주시 : 문성남 (사망했음)

* 예전에 ‘영천이목사’가 절 500, 당 500곳을 부수라고 하는 명령을 내려서 할망당도 없어질 위기가 있었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당이 피난처에 숨었다가 다시 나온 것이다.

4.3 가신신앙

1) 토신제

- 시신 묻을 때 : 제관이 대신 해준다.

- 집 지을 때 : 땅 파기 전에 한다. 제관 없이 집에서 해도 된다.

(1) 제일 : 택일

- 시신 묻을 때 : 남쪽이 터져서 남으로 산자리가 있을 때 토신제를 한다. 오늘 시체를 묻으려면 새벽에 미리 산에 올라가서 토신제를 해야 한다.

(2) 제물(火食은 안된다.)

- 쇠고기 2근(날것으로 가르기만 해서)
- 매 : 대매(흰쌀) 2그릇, 소매(좁쌀) 2그릇
- 숟가락, 젓가락은 사용하지 않고 모새(새로 만든 것)를 사용한다.
- 과일 : 사과, 배, 꽃감, 밤, 대추, 비자 (예전엔 당유자 1가지만 올림)
- 명태 말린 것 1마리
- 옥돔 비늘 붙은 채로 1마리(예전엔 2마리 있음)
- 채소 : 미나리(생것)
- 제주 : 생감주
- 돼지머리 : 시체 묻을 때만 올린다. 묻기 전에 제를 지내면 돼지머리를 올리지 않고 쇠고기만 올리고, 다음 해로 넘어 가면(남쪽이 막혀서 다음 해로 넘어가서 토신제를 지낼 때) 돼지머리도 올린다.
- 국은 올리지 않는다.

(3) 제물은 같되, 축은 별도로이다.(아무나 쓸 수 있음) 축문은 태운다.

(4) 폐백 : 시렁묵, 명주, 베 중 한필을 가져가서 태운다.

(5) 여자는 가면 안 되는데, 50세 이상 몸 비리지 않은 사람은 갈 수 있다.

11) 성주풀이

- 집이 10평 이상 되어야 성주풀이를 한다.
- 택일은 글 잘 쓰는 사람이 한다.
- 심방 3~4명을 빌어다가 아침부터 하루 종일 하는데, 쟁, 북, 다영, 장기, 팽과리와 같은 악기도 연주한다.
- 제물은 다 익은 음식을 올리는데, 송애기떡, 생선, 백메, 천 등을 올린다. 육고기는 올리지 않는다.
- * 송애기 떡 : 집짓는 모양

- 신을 즐겁게 해 줘야 하는 곳이므로 가장 재미있고, 구경해도 상관 없다.
- 12) 푸다시
- 냇두리 같은 것으로, 심방을 불러다 한다는 것이 냇두리와 다른 점이다.
- 13) 냇두리
- 자기대로 하기도 하고, 심방을 찾아가기도 한다.
 - 아이가 넘어졌을 경우 할머니가 아이의 등을 치고, 땅을 치면서 “이놈!!”하고 말하고, 아이의 이름을 말하면서 “어디갔느냐?” “예~ 여기 왔습니다” 라고 말한다.
 - 일반적으로 냇두리를 할 때는 머리에 물 묻히면서 “어~냇들라!” 라고 말한다.
- 14) 일월 울리는 곳(큰곳)
- 아프지 않아도 집안의 편안함을 기원하기 위해서 위해 조상들을 다 한번씩 건들어 준다.
 - 아플 때도 곳을 하는데, ‘시왕맞이’라고 하는 절차가 있다.
 - 3일 동안 하는 곳으로, 큰심방을 빌어다 해야 한다.
- 15) 불도맞이
- 3일에 걸쳐서 하는 곳으로 아기 내우고, 아기 좋게 하는 곳이다.
 - 당클 3개를 메는데(귀신이 많은 집은 4개도 함), 곳을 함부로 구경하면 안 된다고 한다.
- 16) 불찍맞이
- 장전에서는 하지 않는다.
- 17) 조왕할망(조왕제)
- 한밤중에 심방을 빌어다가 부엌에서 제를 지낸다.
 - 우환이 있을 때 먼저 문전에 제를 지내고, 다음으로 조왕할망에게 제를 지낸다.
 - 곡식 농사 잘 되기를 기원하고 집안이 편안하기를 기원한다. 또한 아픈 사람이 얼른 낫기를 빈다.

- 아픈 사람이 있을 때는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하여 생기가 있는 날로 택일한다.
- 상들에 지전과 나이, 성, 소원을 적은 종이를 올려놓고 나중에는 종이를 태운다.
- '상들'은 여자는 만들 수 없는데, 집안 식구 중 한 사람이 직접 정성 스레 만든다. (지방은 쓰지 않음)
- 제물은 메 1그릇, 떡, 과일(맹유자), 채소(콩나물, 고사리 등), 감주 등을 올린다.
- 명을 길게 해주라는 의미로 실을 올리고, 초도 2개씩 올린다.

18) 칠성굿

- 정성드리기 위해 새벽에 미리 그릇에 이슬을 맞힌다.
- 책 보는데 가서 본 후 칠성태운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이다.
- 과일, 채소(미나리), 메 7그릇을 올린다.
- 육고기는 올리지 않는다.

19) 동티굿

- 아플 때 문방(책 보는 곳)에서 동티났다고 하면 하는 것이다.
- 소 매는데, 변소에서 제를 지낸다.
- 동티난 데에 물을 뿌리고, 허벅보다 작은 '대받이'에 텃물(쌀 씻은 물)을 받는다.
- 새(역새)도 쫓는다.
- 이렇게 해도 낫지 않으면 심방을 빌어다가 '해원경(동티 풀리는 것)'을 읽고, 3일동안 굿도 한다.
- 뱀을 만지면 '동티'난다고 믿고 있다.

20) 백중제

- 축산이 잘 되게 해달라고 마소 주인이 각자 정해 놓은 제단에 제를 지낸다. 주로 높은 동산이나 산 아래 깨끗한 곳에 가서 기도를 드린다. 이때 마소를 적어도 10마리 이상을 키워야 백중제를 지낸다.
- 개인적으로 말고도 각 동별로 목감이 백중제를 지낸다. 이때 목감은 목장조합에서 장(조합원들의 우마)을 관리하는 사람이 목관이 된다.

목장 크기에 따라 큰 목장일 경우에는 3~4명, 작은 목장일 경우에는 1~2명의 목감이 있다. 목장 내에서 공방인 곳을 택해 백중 자시에 하는데 주로 켓물오름 주변에서 제를 지낸다.

- 1) 신위 : 모시지 않음
- 2) 제일 : 백중 전날 자시
- 3) 제물 : 돼지머리1, 메3, 갯3, 제주, 과일, 채소, 어수(바닷고기)→
익히지 않고 생으로
 - 돼지머리 : 익히지 않고 생으로
 - 메 3 : 대메, 피메, 조메를 그릇에 놓고 그 통째로 찐다. 지금은 피메를 구하기 어려워 같은 검은색인 검은 조를 올린다.→노랑 조메, 검은 조메, 백미
 - * 메를 3개 올림: 산신(토신), 백중신, 축우를 위한 신
 - 갯 : 원래는 백중제를 지낼 때 익힌 음식은 올리지 않으므로 갯을 올리지 않았는데 지금은 올리고 있다.
 - 제주 : 감주를 올렸으나 지금은 정종
 - 과일 : 옛날에는 유자를 주로 올렸으나 지금은 (3~4년 이전부터) 각종 과일을 사다가 올림
 - 채소 : 미나리는 필수(천금채라 해서 채소 중 가장 으뜸으로 칭), 고사리...
 - 어수 : 바닷고기 중 옥돔을 주로 올림

4) 제차

① 3일 전부터 복장, 마음가짐을 깨끗이 하고, 제물을 준비한다. 몸이 비리지 않도록 대문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 몸에 상처 하나라도 나서는 안되고, 죽은 시체를 보아서도 안되고, 상 당한 곳에 가서도 안된다.

② 제를 지내기 직전 향나무를 놓고 끓인 물로 온몸을 씻고 나가지만 목감이 제를 지낼 때는 형편상 그냥 찬물에 향을 띄워서 세수만 하고 제를 지낸다.

③ 옛날에는 종가집에서는 장손며느리가 아헌을 했으나 여자는 몸이 비릴 때가 많아서 제장을 자주 못 다닌다. → 주로 남자 한분 만이 제

를 지냄

④ 목욕재계하고 제물과 제복(청포 도표와 우건)을 가지고 제단에 가서 제복을 입고 제물을 진설해 놓는다.

⑤ 제단에 제물을 진설하고 황배를 한다. 황배라 하면 비스듬히 4배를 한다는 것인데 원래 엄중한 천제에는 황배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

⑥ 축을 고하는데 내용은 소와 말의 건강과 축사가 잘됨을 기원하는 것이다.

* 옛날에는 장전에 목축이 성해서 애월서 장전 목장 규모가 최대였다. 그러나 약 30년 전부터 과수원이 성행하면서 목축이 점차 사라지게 됨으로써 백중제를 하는 사람이 많이 줄어들게 되었다.

* 옛날에는 테우리(군유지, 도유지 등에서 소, 말을 관리하는 사람)가 백중제를 지냈다. 이 테우리는 대규모 목장 관리자로서 테우리끼리 연합도 있었다. 소, 말이 이탈시 백중제를 지냈다 한다.

21) 맹감코스(맹감제)

- 3년에 1번 심방을 빌어다가 곡식 잘되고 아이 좋게 하려는 곳이다.
- 집안의 신인 문전, 조왕, 칠성계 빈다.
- 메는 신의 수대로 올린다.(문전메, 조왕메, 칠성메, 그 외 집안의 조상 메)
- 송애기 떡, 다데, 침떡, 익힌 옥돔 등을 올린다.
- 제보자의 말에 의하면 문전은 '남선비'로서 조왕할망 본풀이이고, 조왕할망은 남선비의 큰 부인이라고 한다.